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李 恩 景

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 연구

指導敎授 박 정 구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2년 10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李 恩 景

李恩景의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이 옥 주 (인)

부위원장 강 병 규 (인)

위 원 김 현 철 (인)

위 원 박 찬 욱 (인)

위 원 박 정 구 (인)

국문초록

분열구문이란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되는 문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분절은 정보구조적 층위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즉 세계언어에서 분열구문의 발전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책략이 언어의 형식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은 한 문장을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할 수 있으며 초점 성분이 '是'의 뒤에 출현하므로 기능상 영어의 분열구문에 해당한다. 본고는 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통사적, 의미적, 정보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분열구문은 'O+是+XP+VP的', 'S+是+XP+VP的', '是+XP+VP的'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O+是+XP+VP的'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是+XP+VP的'이다. 또한, 'O+是+XP+VP的'의 경우 행위자, 시간, 방식,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으며 'S+是+XP+VP的'의 경우에는 방식,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이 자주 초점으로 출현한다. '是+XP+VP的'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논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행위자와 방식을 나타내는 두 논항이 함께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일수록, [+지속]의 자질이 약한 동사일수록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반면,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 중 [+지속]의 자질이 강한 상태동사와 강지속동사는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 분열구문으로 해석될지,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지는 동사의 상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동사가 [+종결], [-지속]의 속성이 강할수록 과거 시점 표현과만 공기하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종결]이면서 [+지속]의 속성이 강한 동사일수

록 다양한 시점 표지과 공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분열구문이 아니라,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약지속-동작동사가 ‘O+是+XP+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서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현재의 반복적인 행위로서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즉,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은 동사의 상적 의미에 따라 정보구조적으로 다르게 쓰이며 문장의 시제도 과거로 해석되거나, 비과거로 해석될 수 있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분열구문은 명사화구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사화구문과 분열구문 간에는 일종의 연속적 변이가 존재하지만 뚜렷한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열구문의 ‘的’는 점차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중국어 상표지의 전형적인 위치이다. 본고는 7대 방언 지역의 251명의 화자가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의 ‘的’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的’의 분포는 우선적으로 운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방 지역으로 갈수록 ‘的’는 문말에 출현하는 경향이 강하고, 북방 관화(官话) 지역으로 갈수록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열구문에서 ‘的’의 분포적 변화가 발생한 것은 ‘的’의 문법적 기능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북방 관화(官话) 지역에서부터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적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的’가 상표지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문법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是…的’ 분열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만 쓰이며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화자와 청자에 의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是…的’ 분열구문과 기능상 유사한 ‘是’ 초점구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에 모두 쓰일 수 있으며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미래 사건에도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반드시 ‘是’에 후행하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지만,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도 있고, 서술어-초점 구조나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是’ 초점구문이 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 ‘O+是+XP+VP’와 ‘S+是

+XP+VP’는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하며 ‘是+XP+VP’는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是’ 초점구문이 비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거 사건의 세부 정보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이 쓰이는 반면, 현재나 미래 사건의 세부 정보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是’ 초점구문이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논항-초점 구조로 해석되는 경우 두 구문의 출현은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없지만,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만 쓰이며 동사의 출현에 제약을 갖는 이유는 완정상 ‘的’의 기능과 정보구조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是…的’ 분열구문은 ‘的’의 완정상 기능으로 인해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줌으로써 실현된 사건을 나타내며 반드시 화자와 청자에게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은 과거에 이미 실현된 사건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또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반드시 자연 종점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가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쉽게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 인식된다. 반면,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자연 종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속의 자질이 강한 동사일수록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주요어: ‘是…的’ 분열구문, 명사화, 상황유형, 종결성, 지속성, 상표지, 완정상, 문법화, 정보구조, 논항 초점, 대조 초점, ‘是’ 초점구문.

학　번: 2018-32640

〈목 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론 ·····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분석 ····· 7

1.2.1 분열구문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연구 ····· 7

1.2.2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의 관련성 연구 ····· 14

1.2.3 분열구문의 동사에 대한 연구 ····· 20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 24

제2장 '是…的' 분열구문의 특징과 판단 기준 ····· 28

2.1 '是…的' 분열구문의 특징 ····· 28

2.1.1 '是…的' 분열구문의 문법적 특징 ····· 28

2.1.2 '是…的' 분열구문의 화용적 특징 ····· 36

2.2 '是…的' 분열구문의 판단 기준 ····· 43

제3장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 분류 ····· 49

3.1 상황유형의 개념 ····· 49

3.2 상적 특성에 따른 중국어 동사 분류 ····· 57

3.2.1 기존의 분류 기준과 방식 ····· 57

3.2.2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 재분류 ····· 65

제4장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 및 성분 분석 ····· 71
4.1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 ····· 71
4.2 'O+是+XP+VP的'와 동사의 상황유형 ····· 80
4.3 'S+是+XP+VP的'와 동사의 상황유형 ····· 90
4.4 '是+XP+VP的'와 동사의 상황유형 ····· 98
4.5 소결 ····· 104

제5장 '是…的'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 ····· 107
5.1 상태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 108
5.2 동작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 116
5.2.1 강지속동사가 쓰인 경우 ····· 117
5.2.2 약지속동사가 쓰인 경우 ····· 122
5.2.3 비지속동사가 쓰인 경우 ····· 127
5.3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 132
5.4 소결 ····· 137

제6장 '的'의 상적 기능 ····· 140
6.1 '的'의 문법적 기능 ····· 140
6.1.1 명사화표지로 보는 관점 ····· 140
6.1.2 어기조사로 보는 관점 ····· 144
6.1.3 시제표지로 보는 관점 ····· 148
6.1.4 상표지로 보는 관점 ····· 153
6.2 '的'의 공시적 분포 ····· 157
6.3 '的'의 문법화 ····· 166
6.4 소결 ····· 173

제7장 분열구문과 유사 구문의 정보구조 ····· 176
7.1 '是'의 초점표지 기능 ····· 178
7.2 'O+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 ····· 183
7.3 'S+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 ····· 194
7.4 '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 ····· 206
7.5 소결 ····· 219

제8장 결론 ····· 223

참고문헌 ····· 228

中文摘要 ····· 242

〈표 목 차〉

[표1-1] 두 종류의 '是…的' 형식의 부정형식 비교 …… 12
[표1-2] 근대중국어 과거 의미 '是…的' 형식의 타동성 특징 종합 비교 …… 20
[표2-1] '是…的' 구문의 사용 양상 …… 39
[표2-2] '是…的' 분열구문의 판단 기준 …… 48
[표3-1] Vendler(1967)의 동사 분류 …… 51
[표3-2] Smith(1991: 20)의 동사 분류 …… 52
[표3-3] Xiao & McEnery(2004: 59)의 동사 분류 …… 56
[표3-4] 邓守信(1985: 17)의 동사 분류 …… 58
[표3-5] 郭锐(1993: 75)의 동사 분류 …… 59
[표3-6] 胡裕树·范晓(1995: 171)의 동사 분류 …… 61
[표3-7] 杨素英(2000: 95)의 동사 분류 …… 63
[표3-8] 이은수(2009: 19)의 동사 분류 …… 64
[표3-9] 본고의 동사 재분류 …… 70
[표4-1] 'O+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 …… 81
[표4-2]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 …… 82
[표4-3] 'O+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 84
[표4-4] 'O+是+XP+VP的'에 출현하는 강지속-동작동사 …… 85
[표4-5]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 …… 86
[표4-6] 동사의 상적 자질과 'O+是+S+VP的'의 시제 …… 88
[표4-7] 'O+是+XP+VP的'의 초점 유형과 동사의 상황유형 …… 89
[표4-8]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 …… 91
[표4-9] 'S+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 …… 92
[표4-10]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 93
[표4-11]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상태동사와 강지속-동작동사 …… 94
[표4-12] 'S+是+XP+VP的'의 초점 유형과 동사의 상황유형 …… 98

[표4-13] ‘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 ····· 99
[표4-14] ‘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 ····· 100
[표4-15] ‘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 101
[표4-16] ‘是+XP+VP的’에 출현하는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 ····· 102
[표4-17] ‘是+XP+VP的’의 초점 유형과 동사의 상황유형 ····· 104
[표5-1] 상태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 116
[표5-2] 동작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 131
[표5-3]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 136
[표5-4] 동사의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 138
[표6-1] 吕叔湘(1942: 361)의 어기 분류 ····· 145
[표6-2] 방언별 설문 조사 참여 인원 ····· 158
[표6-3] ‘的’의 분포에 대한 지역별 조사 결과 ····· 159
[표6-4] 朱德熙(1993)에서 제시된 현대중국어 ‘的’의 분류 ····· 168
[표6-5] 『수호전』, 『서유기』에 출현하는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 ····· 173
[표7-1] ‘是’의 기능 분류 ····· 182
[표7-2]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 비교 ····· 220

〈그 림 목 차〉

[그림3-1] 상태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 53
[그림3-2] 동작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 53
[그림3-3] 순간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 54
[그림3-4] 달성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 55
[그림3-5] 성취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 55
[그림4-1]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과 출현 빈도 ····· 73
[그림4-2] 'O+是+XP+VP的'의 초점 논항 ····· 76
[그림4-3] 'S+是+XP+VP的'의 초점 논항 ····· 77
[그림4-4] '是+XP+VP的'의 초점 논항 ····· 79
[그림4-5]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분류 ····· 80
[그림4-6] 'S+是+XP+VP的'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분류 ····· 90
[그림4-7] 박정구 외(2020: 251)에서 제시한 '了$_1$', '了$_2$'의 상적 의미 ····· 97
[그림4-8] '是+XP+VP的'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분류 ····· 99
[그림4-9]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별 출현 빈도 ····· 106
[그림6-1] 음절수에 따른 'V的O'의 사용 빈도 ····· 160
[그림6-2] 음절수에 따른 'V的O' 누적 빈도 ····· 161
[그림6-3] 'V的O'의 지역별 사용 양상 ····· 164
[그림6-4] 북방과 남방에서의 'V的O' 사용 양상 비교 ····· 165
[그림6-5] 吴早生(2011: 201)이 제시한 분열구문의 문법화 경로 ····· 171
[그림7-1] '是'의 지시사에서 계사로의 문법화 과정 ····· 178
[그림7-2] 계사에서 초점표지까지의 연속체 ····· 180
[그림7-3] '是'의 기능 분류 ····· 181
[그림7-4] 石毓智(2005: 44)가 제시한 '是'의 문법화 과정 ····· 183
[그림7-5] '是+XP+VP的' 분열구문의 초점 논항 ····· 208

제1장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분열문(cleft sentence)’은 Jespersen(1937: 73)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서,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되는 문장을 의미한다.[1)]

(1) a. It was yesterday that he died.
그가 죽은 것은 어제였어요.
b. It is the wife that decides.
결정하는 사람은 아내예요.
(Jespersen, 1937: 76-77)

예문 (1)에서 초점은 be 동사에 후행하는 ‘yesterday’(어제)와 ‘wife’(아내)이며 나머지 부분은 전제로 해석된다.

Teng(1979), 汤廷池(1981), 方梅(1995), 田泉(1996), Wu(1998), 李晗·李慧敏(2020) 등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의 경우 한 문장을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할 수 있으며 초점 성분이 ‘是’의 뒤에 출현하므로 기능상 영어의 ‘it-분열문’에 해당한다.[2)] 다음의 예문은 ‘是…的’ 분열구문의 대표적인 예이며 영

1) 영어에는 ‘it-분열문’(it-cleft sentence)과 ‘wh-분열문’(wh-cleft sentence)의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분열문은 ‘it-분열문’을 가리키는 말이며 ‘Wh-분열문’은 준분열문(pseudo-cleft sentence)이라고도 부른다.

(2) a. It was his keys that John lost.
b. What John lost was his keys.
존이 잃어버린 것은 열쇠였어요. (Prince, 1978: 883)

2) 중국어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을 ‘是…的’(1) 구문이라고 부르며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를 ‘是…的’(2) 구문이라고 부른다. 또한, 汤廷池(1981), 方梅(1995), 田泉(1996), Wu(1998), 李晗·李慧敏(2020) 등 대부분의

어의 분열문과 완전히 동일한 형식은 아니다.[3)]

(3) a. 那本教材是1958年编写的。
그 교재는 1958년에 편찬되었어요.
b. 我是在预售处买的票。
저는 예매소에서 표를 샀어요.
c. 是小王告诉我的。
샤오왕이 저에게 알려 주었어요.

(刘月华 외, 2001: 763-764)

예문 (3)에서 문장의 초점은 각각 시간, 장소, 행위자이며 초점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전제로 인식된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에서 전제로 인식되는 부분은 반드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 즉, 중국어의 분열구문은 반드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법적 제약을 갖는다. 그러나 영어에는 이러한 시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4) a. *我是明天去的中国。
b. It is tomorrow that he will go to china.
그가 중국으로 가는 날은 내일이에요.

(Wu, 1998: 157)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현대중국어에서 모든 동사들이 '是…的' 형식의

학자들은 '是…的'(1) 구문의 경우는 분열문으로 분류하였지만,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2) 구문의 경우는 분열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2 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 본고는 Goldberg(1995: 4)에 근거하여 '분열문'이란 용어 대신 형식과 의미의 결합체로서 '분열구문'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특정한 동사 및 기타 성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중국어의 분열구문이 상, 시제, 정보구조 등의 측면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기타 구문과는 형식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喜欢'(좋아하다), '盯'(감시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5) a. *我是小时候喜欢的狗。
b. *警察是上周盯的他。

다음의 예문을 보자.

(6) a. 这是李四看的。
이것은 리쓰가 봤어요. / 이것은 리쓰가 보는 거예요.
b. 这是李四喜欢的。
이것은 리쓰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문 (6.a)와 (6.b)는 모두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며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나 (6.a)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6.b)는 명사화구문(nominalized construction)으로만 해석된다.[4] 즉, (6.a)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과거 사건의 행위자를 강조하는 '是…的'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중심어가 생략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6.b)의 경우에는 중심어가 생략된 명사화구문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예문 (6.a)의 경우 '是'에 후행하는 성분은 '谁'(누가), '什么时候'(언제) 등과 같은 의문대사(疑问代词)로 대체할 수 있다.

4) Li & Thompson(1981: 587-593), 朱德熙(1982: 108-109)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是…的' 분열문의 경우도 명사화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宋玉柱(1978), 赵淑华(1979), 吕必松(1982), 田泉(1996), 刘月华 외(2001: 762-782)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是…的'의 형식 중 '是'가 주요 동사이며 '的'가 중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particle)인 경우에만 명사화구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예문 (6.b)와 같이 '是'가 주요 동사의 기능을 하는 '是…的' 형식의 경우는 명사화구문으로서, '是…的' 분열문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7) A: 这是{谁/什么时候…}看的？
이것은 {누가/언제…} 봤어요?
B: 这是{李四/昨天…}看的。
이것은 {리쓰가/어제…} 봤어요.

그러나 상태동사 '喜欢'(좋아하다)이 출현하는 (6.b)의 경우에는 '是' 뒤의 성분을 '谁'(누가), '什么时候'(언제)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8) A: *这是{谁/什么时候…}喜欢的？
B: 这是{李四/上大学的时候…}喜欢的。
이것은 리쓰가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좋아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문 (6.a)와 (6.b)는 동일한 '是…的'의 형식으로 쓰였지만, 동사에 따라 기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赵淑华(1979), 牛秀兰(1991), 李讷 외(1998), 刘月华 외(2001) 등에 따르면 표준 중국어에서 '的'는 문말에 출현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앞에 출현할 수도 있다.[5)]

(9) a. 他是什么时候去北京的？
b. 他是什么时候去的北京？
그는 언제 베이징에 갔어요?

그러나 우시(无锡)방언과 민난(闽南)방언 등에서 '的'는 문말에만 출현할 수 있다. 아래는 우시방언의 예이다.

(10) a. 伊是啥辰光去北京个？
b. *伊是啥辰光去个北京？
그는 언제 베이징에 갔어요?

5) Chao(1968: 297)의 견해에 따르면 'V 的 O'는 북방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형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是…的’ 분열구문에서의 ‘的’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黄正德(1989), Wu(1998: 157-175), 刘林(2013)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是’ 초점구문도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과 마찬가지로 영어의 ‘it-분열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6)]

(11) a. 张三是明天到纽约去。
장싼은 내일 뉴욕으로 가요.
b. It is tomorrow that John will go to New York.
존이 뉴욕으로 가는 날은 내일이에요.
(黄正德, 1989: 44)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是’는 후행 성분을 초점화하며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제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11.a)와 같은 ‘是’ 초점구문은 기능상 (11.b)의 ‘it-분열문’과 동일하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분열구문의 특성을 갖는 ‘是…的’의 형식이 반드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왜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지, 동사의 선택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동일한 형식의 명사화구문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동사 ‘吃’와 ‘买’의 뒤에 ‘的’를 부가할 경우 ‘吃的’는 현재 ‘먹는 것’을 나타내지만, ‘买的’는 아무런 표지 없이 과거에 ‘산 것’을 나타낸다. 본고는 ‘V的’의 형식에서 동사의 시제가 어떤 경우에는 현재를 나타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동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상적 자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의 상적 자질이 ‘是…的’ 분열구문의 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동사를 상적 자질에 근거하여 분류한 후 각 유형의 동사들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경우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는지, 문장의 시제에는 어

6) ‘是’ 초점구문은 ‘我是学生’과 같이 ‘是’가 주요 동사로 쓰인 판단문이 아니라, (11.a)와 같이 ‘是’가 초점표지로 쓰인 경우를 의미한다.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이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면서 다른 기능을 하는 명사화구문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的’의 분포가 북방과 남방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선, 과거에 ‘的’가 문말에만 쓰이다가 현재는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어 변화가 활발한 북방 지역에서 먼저 ‘的’가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언어 변화가 더딘 남방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的’가 문말에만 출현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법화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的’의 문법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인다. 즉, 일부 학자들은 ‘的’를 일종의 명사화표지(nominalizer)라고 주장하였으며 일부는 ‘的’를 어기조사(sentence-final particle)로 분석하였고, 또 일부는 시제(tense)나, 상표지(aspect marker)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是…的’ 분열구문이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 이유도 ‘的’의 문법적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표준중국어에서 ‘的’가 문말과 목적어의 앞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반면, 남방 방언에서는 문말에만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 ‘的’가 완정상의 기능을 획득하면서 ‘了$_1$’과 마찬가지로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문법화의 속도가 차이를 보이는 방언 지역에서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 ‘的’가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的’의 문법적 기능 및 전반적인 문법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코퍼스 자료를 통해 각 유형의 분열구문이 실제로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是’ 초점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두 구문이 정보구조적으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이 전제와 초점을 분리하는 정보구조적 책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

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언어에서 분열구문이 갖는 보편적 특성과 분열구문의 발전 경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2 선행 연구 분석

1.2.1 분열구문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연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열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Jespersen(1937: 73)이다. 그가 (12.a)와 같은 문장을 '분열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의 명제가 두 개의 절로 분절되어 쓰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명제는 (12.b)와 같이 하나의 절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열문'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절로 분절되므로 유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12) a. It was here that he died.
그가 죽은 곳은 여기였어요.
b. He died here.
그는 여기서 죽었어요.

(Jespersen, 1937: 75)

Jespersen(1937)은 'it-분열문'에서 'it is 초점 + 관계대명사'를 일종의 외치(extraposition)로 분석하였다. 즉, 아래의 예문 (13.a)에서 주어는 'the wife'이고, 술어는 'decides'이며 (13.b)에서 주어는 'I'이고 술어는 'pay'이다.[7)]

(13) a. It is the wife that decides. → [sv] S [3^{c}] V
b. It is I who pay. → [sv] S [s^{c}] V

(Jespersen, 1937: 76)

7) Jespersen(1937: 6-7)에 따르면 예문 (13)에서 'S'는 주요 주어, 'V'는 주요 동사를 의미하며 's'는 부차적인 주어(lesser subject), 'v'는 부차적인 동사(lesser verb)를 의미한다. 또한, 그는 'that'을 '3^{c}'로, 'who'를 's^{c}'로 표기하였다.

Jespersen(1937)에 이어 분열구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범언어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영어의 분열구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Gundel(1977), Prince(1978), Borkin(1984), Delin(1989), Collins(1991), Hedberg (1990, 2000), Lambrecht(2001), Herriman(2005) 등이 있다. 특히, Lambrecht(2001: 467)는 분열구문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8)]

> 분열구문은 계사가 핵인 주절과 관계절로 구성된 복합적인 문장구조이며 관계절은 계사의 서술적 논항과 공지시 관계에 있다. 또한, 주절과 관계절은 논리적으로 하나의 명제를 나타내며 진리조건적 변화 없이 단일문(single clause)의 형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9)]

Prince(1978), Delin(1989), Lambrecht(2001) 등에 따르면 영어의 분열구문은 크게 'it-분열구문'과 'wh-분열구문'의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열구문은 (14.b)와 같은 'it-분열구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14) a. I like CHAMPAGNE.
저는 샴페인을 좋아해요.
b. It is CHAMPAGNE that I like.
제가 좋아하는 것은 샴페인이에요.
c. What I like is CHAMPAGNE.
제가 좋아하는 것은 샴페인이에요.

---

8) A CLEFT CONSTRUCTION(CC) is a complex sentence structure consisting of a matrix clause headed by a copula and a relative or relative-like clause whose relativized argument is coindexed with the predicative argument of the copula. Taken together, the matrix and the relative express a logically simple proposition, which can also be expressed in the form of a single clause without a change in truth conditions.

9) 최윤지(2008: 1)는 분열구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single clause'를 '단일문'으로 번역하였다. 즉, 하나의 명제를 정보구조에 따라 쪼개어 표현한 것이 분열구문이라면, 그렇지 않은 무표적인 구성을 가진 문장이 단일문이다.

d. CHAMPAGNE is what I like.
샴페인은 제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Lambrecht, 2001: 467)

예문 (14.a)는 무표적인 단일문이며 (14.b)~(14.d)는 유표적인 분열구문으로서 주절과 관계절로 구성된다. 또한, (14.c)와 (14.d)는 모두 'Wh-분열구문'으로서 준분열문에 해당하며 (14.d)의 경우는 도치된 'Wh-분열구문'이라고도 부른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분열구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보면 임규홍(1986), 김영희(2005), 박철우(2008), 이남근(2008), 최윤지(2008, 2016) 등이 있다. 김영희(2005: 267-293)는 분열구문을 '쪼갠문'이라고 불렀으며 의미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쪼갠문(cleft sentence)이란 명제 내용 일부를 초점을 받는 성분으로 뽑아내고, 나머지를 전제(presupposition)된 것으로 나타내는 통사적 장치이다.

한국어의 분열구문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최윤지(2008)는 정보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5) a. 주연이가 오늘 아침에 [사과]를 먹었다. →
b. 주연이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은 [사과]이다.
c. [사과]가 주연이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이다.
d. 주연이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이 [사과]이다.
e. [사과]는 주연이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이다.

(최윤지, 2008: 57)

예문 (15.a)는 무표적인 단일문이며 (15.b)~(15.e)는 분열구문에 해당한다. 최윤지(2008: 57)에 따르면 (15)의 네 가지 유형의 분열구문은 문법적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정보구조적으로 볼 때 (15.b)와 (15.c)는 분열된 성분이 초점이므로 '초점 분열구문'이라고 불리며 (15.d)와 (15.e)는 분열된 성분이 화제이므로 '화제 분열구문'이라고 불린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분열구문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Teng(1979: 101)은 중국어의 분열구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분열구문에서 ‘분열, 또는 분절’(‘clefting’, or ‘cleaving’)이란 초점이나, 대조 또는 강조를 위해 문법적 기제를 사용하여 표지를 부가함으로써 문장을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Teng(1979)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은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할 수 있으며 초점표지 ‘是’가 존재하므로 분열구문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초점이나 대조, 강조는 강세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음운적으로 표현되지만, 중국어 분열구문에서 분절 요소는 반드시 문법적 표지로서 두드러진다.

윤유정(2019a, 2019b)은 중국어 분열구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중국어의 분열구문은 영어의 ‘it-분열구문’에 대응하는 형식으로서 확신의 어기(语气)를 나타내거나,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이며 준분열구문은 영어의 ‘wh-분열구문’에 대응하는 ‘…的是…’의 형식이다. 그가 제시한 중국어의 분열구문과 준분열구문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6) a. 我是喜欢香槟酒的。 / 我是喜欢的香槟酒。
b. 我喜欢的是香槟酒。

(윤유정, 2019b: 75)

윤유정(2019b)의 주장에 따르면 예문 (16.a)는 영어의 ‘it-분열구문’에 대응하는 분열구문이며 (16.b)는 ‘wh-분열구문’에 대응하는 준분열구문이다.[10]

그러나 汤廷池(1981), 方梅(1995), 田泉(1996), Wu(1998), 李晗 · 李慧敏(2020)

10) 본고는 20 명의 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예문 (16.a)의 수용도를 조사하였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모어 화자들은 모두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고 표준중국어를 구사하는 25~45 세의 중국인이다. 조사 결과, 모두 ‘我是喜欢的香槟酒’는 비문이며 ‘我是喜欢香槟酒的’는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이라고 답하였다.

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을 분열구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만을 분열구문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Wu(1998: 204-240)는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의 경우 이미 실현된 사건의 세부 정보가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세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전제가 되기 쉽지만,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의 경우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문장을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명확히 분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

(17) a. 他是昨天来的。
그는 어제 왔어요.
b. 他是会来的。
그는 올 거예요.
c. (这事儿)他是知道的。
이 일에 대해 그는 알고 있어요.

(Wu, 1998: 205-216)

예문 (17.a)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으로서 시점 표현 '昨天'(어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전제가 된다. (17.b)는 미실현된 사건으로서 사건이 발생할지, 또는 발생하지 않을지를 초점화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양태표지가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17.c)는 주어의 상태나 습관을 묘사함으로써 상태의 존재나 비존재를 초점화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 문장의 시제는 일반적으로 현재를 나타낸다. 또한, (17.b)와 (17.c)의 경우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과는 달리, 문장을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분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Wu(1998)는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은 분열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은 분열구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田泉(1996)은 분열구문으로 쓰인 '是…的' 구문과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첫째,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是'와 '的'는 음성적으로 약하게 실현되지만, 화

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실현된다. 둘째, 정보구조적으로 다르다. 분열구문으로 쓰인 '是…的' 구문의 구조는 '(是)신정보 + 구정보的'의 구조로서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된다. 그러나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의 경우 '是'와 '的' 사이에 있는 구정보에 화자의 긍정이나 확인의 어기를 더하여 신정보로 포장함으로써 청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초점과 전제의 두 부분으로 분절하기 어렵다. 셋째, 부정형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분열구문에서 '不'는 '是'의 앞에만 출현할 수 있으며 부정의 범위는 '是'에 후행하는 초점 논항에 국한된다. 그러나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의 경우 부정사는 '是'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으며 부정의 범위는 전체 명제가 된다.

[표1-1] 두 종류의 '是…的' 형식의 부정형식 비교[11]

구 분	예 문	출현 위치	부정 범위
'是…的' 분열구문	这个消息(不)是我告诉他的。	'是'의 앞	초점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	我是(不)会嫁给他的。	'是'의 뒤	명제
	我这些年的苦(不)是你拿钱算得清的。	'是'의 앞	
	这种危险(不)是(不)存在的。	'是'의 앞과 뒤	

다음으로 赵淑华(1979), 吕必松(1982), 刘月华 외(2001: 762-770) 등에 따르면 아래의 예문과 같이 '是'와 동사 사이에 부사어가 출현하지 않는 '是…的'의 형식도 분열구문의 하위 유형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문말의 목적어가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18) a. 我是骑的自行车，他是骑的摩托车，当然他比我快。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갔고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으니, 당연히 그

11) [표 1-1]은 田泉(1996: 31)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가 저보다 빠르지요.

b. 每个同学都给墙报投了稿，有人是作的诗，有人写的文章，有人是画的漫画。

모든 학생들이 벽보에 투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를 썼고, 어떤 사람은 글을 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렸어요.

(赵淑华, 1979: 60)

그러나 본고는 예문 (18)의 경우 일반적인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과는 다르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是'와 동사 사이에 어떠한 부사어도 출현하지 않는 경우 '是'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2] 둘째, 이러한 경우 '的'는 문말에는 출현할 수 없으며 목적어의 앞에만 출현할 수 있다. 셋째,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의 경우 '是'의 초점표지 기능으로 인해 문장의 초점은 반드시 '是'에 후행하는 성분이 되며 초점의 범위는 동사의 앞쪽에 놓인다. 그러나 '是'와 동사 사이에 어떠한 부사어도 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말의 목적어가 초점으로 기능하며 초점의 범위는 문말에 놓인다. 따라서 본고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是'와 동사 사이에 출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일반적인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과는 구분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黄正德(1989), Wu(1998: 157-175), 刘林(2013) 등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어의 분열구문에는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13]

---

12) 본고는 20 명의 중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예문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두 예문 (20.b)가 (20.a)에 비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답하였으며, 예문 (20.a)와 같이 '是'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0) a. 你是买的什么？ - 我是买的书。

b. 你买的什么？ - 我买的书。

13) 黄正德(1989: 43)는 '是'자문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我是学生'과 같이 '是'가 주요 동사로 쓰인 판단문이고, 두 번째 유형은 예문 (19.a)와 같이 '是'가 초점표지로 쓰인 '是' 초점구문이다. 본고에서 '是…的' 분열구문과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예문 (19.a)와 같이 '是'가 초점표지로

(19) a. 他是昨天去图书馆了。
b. 他是昨天去的图书馆。
그는 어제 도서관에 갔어요.

(刘林, 2013: 105)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是' 초점구문에서 '是'는 후행 성분을 초점화하며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제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또한,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의 경우도 '是'에 후행하는 성분이 초점으로 기능하고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제가 된다. 따라서 그들은 '是' 초점구문과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은 모두 분열구문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형식상 서로 다른 두 구문이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즉,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은 형식이 다르기에 당연히 화용적 기능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의 이러한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7장에서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두 구문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1.2.2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의 관련성 연구

본 절에서는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학자들은 '是…的' 분열구문을 명사화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는 두 구문을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是…的' 분열구문을 명사화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Chao(1968), 朱德熙(1982, 1993), Li & Thompson(1981), 袁毓林(2003), 完权(2013), 吴福祥 · 邢向东(2013: 308-328) 등이다. Li & Thompson(1981: 587-593)에 따르면 명사화구문에는 적어도 하나의 명시되지 않은 참여자를 갖는 동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명사화구문의 지시대상은 바로 그 명시되지 않은 참여자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명사화구문 '我喜欢的'(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좋아하는 주

기능하는 경우이다.

체는 명시되어 있지만 좋아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我喜欢的'는 좋아하는 대상을 지시한다. 아래의 예문은 Li & Thompson(1981)이 제시한 '是…的' 분열구문의 예이다.

(21) a. 他是昨天来的。
그는 어제 온 사람이에요.
b. 我们是从日本走的。
우리는 일본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Li & Thompson, 1981: 587)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 (21)에서 '昨天来的'와 '从日本走的'는 명사화구문이며 행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명사화구문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은 행위자가 된다. 즉, 예문 (21)은 '주어+是+명사화구문(…的)'의 구조로 볼 수 있으며 '是'는 주요 동사이고 '…的'의 형식으로 쓰인 명사화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昨天来的人', '从日本走的人'이다.

朱德熙(1982)도 Li & Thompson(1981)과 마찬가지로 '是…的' 분열구문을 명사화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아래의 예문 (22)에서 '是'는 주요 동사이며 '我开的灯'는 중심어가 '灯'인 수식구조이다. 또한, '的'에 후행하는 중심어를 문두 위치로 이동시킬 경우 (22')와 같은 형식으로 파생된다.

(22) a. 是我开的灯。
내가 켠 불이에요.
b. 是用开水和的面。
끓는 물로 반죽한 밀가루예요.
(22') a. 灯是我开的。
불은 내가 켠 것이에요.
b. 面是用开水和的。
밀가루는 끓는 물로 반죽한 것이에요.
(朱德熙, 1982: 109)

다음의 예문을 보자.

(23) a. 我是1964年上的大学。
저는 1964년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b. 她是昨天打来的电话。
그녀는 어제 전화를 걸어 왔어요.
(赵淑华, 1979: 59)

예문 (23)은 전형적인 '是…的' 분열구문의 예이다. 만일 '是'를 주요 동사로, 'VP的N'을 수식구조로 해석할 경우 '나는 1964년에 입학한 대학교이다', '그녀는 어제 걸어온 전화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예문 (23)의 경우에는 '是'를 주요 동사로 볼 수 없으며 'VP的N'을 수식구조로 해석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是…的' 분열구문은 명사화구문과 의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문이라고 주장한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宋玉柱(1978), 赵淑华(1979), 吕必松(1982), 张宝林(1994), 刘月华 외(2001) 등이다. 특히, 赵淑华(1979)는 하나의 문장 안에 '是'와 '的'가 함께 출현하는 형식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명사화구문으로서 '是'가 주요 동사이며 '的'가 중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particle)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 '的'의 앞에는 주로 명사구, 대명사, 형용사구, 동사구 등이 출현하며 '的'에 후행하는 중심어는 의미상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므로 생략된다.

(24) a. 这本书是弟弟的。
이 책은 동생의 것이에요.
b. 这本书是借的。
이 책은 빌린 것이에요.
(赵淑华, 1979: 57)

두 번째 유형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도구, 방식, 목적, 원인, 행위자, 대상 등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是'는 주요 동사가 아니라 후행

하는 성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的'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이미 과거에 발생했거나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是'의 초점표지 기능으로 인해, '是'의 뒤에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반드시 시간, 장소, 도구, 방식, 목적, 원인, 행위자, 대상 등을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해야 한다. 또한, (25)와 같이 동사의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25) a. 我是一九六四年上大学的。/我是一九六四年上的大学。
저는 1964년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b. 我是在书店遇见他的。/我是在书店遇见的他。
저는 서점에서 그를 만났어요.
(赵淑华, 1979: 59)

세 번째 유형은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이며 '是'와 '的' 사이에는 형용사나 동보구조, 또는 조동사를 동반하는 동사구가 출현한다. 또한, '是'와 '的'는 모두 어기를 나타내며 주로 주어에 대한 화자의 판단, 서술, 묘사를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26) a. 他的死是比泰山还要重的。
그의 죽음은 태산보다 더 중요해요.
b. 马克思主义是一种科学真理，它是不怕批评的。
마르크스주의는 일종의 과학적인 진리예요. 그것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赵淑华, 1979: 64)

중국어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위의 세 유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을 '是…的' 구문이라고 부른다. 즉,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도구, 방식, 목적, 원인, 행위자, 대상 등을 강조하는 경우를 '是…的'(1) 구문이라고 부르며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를 '是…的'(2) 구문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근거하면 명사화구문은 '是…的' 구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명사화구문과 '是…的' 분열구문은 구조적으로

나, 의미적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구문이며 두 구문에 출현하는 '是'와 '的'의 기능도 상이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吕必松(1982)는 '是'와 '的'가 함께 출현하는 문장이 명사화구문인지, '是…的' 분열구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만일, '是'와 '的'를 생략할 수 없거나, 생략했을 경우 문장의 근본적인 의미가 변한다면 명사화구문이 쓰인 문장이다. 반면, '是'와 '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했을 경우 문장의 시제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근본적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면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도구, 방식, 목적, 행위자, 대상 등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27.a′)는 (27.a)의 '是'와 '的'를 생략한 경우이며 책의 출처를 나타내는 (27.a)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27.a)는 명사화구문이 쓰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문 (27.b)는 '是'와 '的'를 생략할 수 없는 문장이므로, 이 경우 역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된다.

(27) a. 这本书是买的，(不是借的。)
　　이 책은 산 것이에요. (빌린 것이 아니에요.)
　　a′. 这本书买，(那本书不买。)
　　이 책은 살게요. (저 책은 안 사요.)
　　b. 笔是写字的。
　　펜은 글을 쓰는 것이에요.
　　b′. *笔写字。

(吕必松, 1982: 34)

그러나 吕必松(1982)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도 명사화구문인지,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28) a. 那件毛衣是她自己织的，(不是买的。)
　　그 스웨터는 그녀가 직접 뜬 것이에요. (산 것은 아니에요)
　　b. 那件毛衣是她自己织的，(不是别人织的。)
　　그 스웨터는 그녀가 직접 떴어요. (다른 사람이 뜬 것이 아니에요)

(吕必松, 1982: 35)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 (28.a)와 같은 상황에서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는 스웨터의 출처이며 '是'와 '的'를 생략할 경우 문장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뀌므로, (28.a)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예문 (28.b)의 상황에서 화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행위자이며 '是'와 '的'를 생략할 경우 문장의 시제만 변할 뿐 근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으므로, (28.b)는 '是…的'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吕必松(1982)는 예문 (28)과 같이 목적어가 '是'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중의적인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张宝林(1994)는 '是…的' 형식이 중의성을 갖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는 문두에 출현하는 명사구가 지시대사(指示代词)이거나, 동사구가 소실(또는 손상)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만 중의성을 띤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래의 예문에서 (29.a)는 문두 명사구가 지시대사이기 때문에 중의성을 띠며 (29.b)는 동사가 소실(또는 손상)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중의성을 띤다. 반면, (29.c)와 (29.d)는 소실(또는 손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출현하므로 '是…的'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당 문장들은 중의적이지 않다.

(29) a. 这是我哥哥寄来的。
이것은 저의 오빠가 보내온 것이에요./이것은 저의 오빠가 보냈어요.
b. 自行车是小王借的。
자전거는 샤오왕이 빌린 것이에요./자전거는 샤오왕이 빌렸어요.
c. 房子是我们拆的。
건물은 우리가 허물었어요.
d. 油井是敌军破坏的。
유정은 적군이 파괴하였어요.

(张宝林, 1994: 16)

그러나 张宝林(1994)는 (29.a)~ (29.d)의 문장들이 모두 과거 사건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29.a)와 (29.b)는 중의적인 구문으로 해석되는 반면, (29.c)와 (29.d)는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1.2.3 분열구문의 동사에 대한 연구

이번 절에서는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자질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김선희(2015b)는 근대중국어의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에 출현하는 총 371개의 과거 의미의 '是…的' 형식을 아래의 표와 같이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출현하는 동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경향성이 있음을 밝혔다.

[표1-2] 근대중국어 과거 의미 '是…的' 형식의 타동성 특징 종합 비교[14]

높은 타동성 특징	목적어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A)	주어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B)	'是'가 문두에 위치하는 형식(C)
참여자 2개	163개(84.5%)	16개(17.6%)	29개(33.3%)
동태	193개(100%)	91개(100%)	87개(100%)
[+종결]	193개(100%)	81개(89.0%)	35개(59.8%)
순간성	75개(38.9%)	64개(70.3%)	25개(28.7%)
의지성	160개(82.9%)	85개(93.4%)	79개(90.8%)
긍정	137개(71.0%)	59개(64.8%)	73개(83.9%)
현실	187개(96.9%)	91개(100%)	83개(95.4%)
행위자성이 높음	163개(84.5%)	91개(100%)	85개(97.7%)
빈어가 완전히 영향 받음	127개(65.8%)	12개(13.2%)	10개(11.5%)
빈어 개체성 높음	193개(100%)	15개(83.5%)	24개(27.6%)
합계(평균)	1591개(82.5%)	605개(66.5%)	530개(62.9%)

14) [표 1-2]는 김선희(2015b: 378)가 제시한 것이며, 본고는 '施事性高'를 '행위자성이 높음'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표에서 '높은 타동성 특징'의 10 가지 매개변수들은 Hopper & Thompson(1980: 252)에서 제시된 것이다. 김선희(2015b)는 이러한 매개변수를 통해 문장의 타동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하였다. 그는 타동성 특징이 나타내는 평균비율이 78% 이상이면 타동성이 높고, 39% 이하이면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 형식과 C 형식의 경우 중등 정도의 타동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근대중국어에서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는 [표1-2]와 같이 모두 [+동태]의 자질을 갖는다. 또한, 과거 의미의 A 형식에 출현하는 동사들은 모두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므로 A 형식의 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동사의 종결성이다. 반면, B 형식과 C 형식에 출현하는 동사들은 [+종결]의 자질을 가질 수도 있고, [-종결]의 자질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B 형식과 C 형식의 경우 과거의 의미는 동사의 자질과는 무관하며 구문이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그의 분석에 따르면 근대중국어에서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에는 반드시 [+동태]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만 출현할 수 있으며 목적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A 형식의 경우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은 출현할 수 없다. 만일 A 형식에 출현하는 동사가 '说'(말하다)와 같이 [-종결]의 자질을 내포할 경우 '是'의 앞에 출현하는 명사구는 반드시 '这句法语'와 같이 [+한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을 보면, 현대중국어에서는 [-동태]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도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30) a. 因为他寻不到部队指挥官，而他的部队呢，亦无影无踪，天知道是如何消失的! (拜伦,『唐璜』)
그는 부대 지휘관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부대 역시 종적을 감추었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하늘이나 알겠지요!

b. 门房就直截了当地告诉他："先生，她已经死了，而且是刚刚死的。" (左拉,『娜娜』)
경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녀는 이미 죽었어요. 게다가 방금 전에 죽었어요."

c. 然而牡蛎怎么样呢？难看得像一口痰，外壳儿也肮里肮脏。要费九牛二虎之力才撬得开。是谁发现的？它们就靠从丢弃的残羹剩饭和下水道的污物长肥的。 (詹姆斯·乔伊斯,『尤利西斯』)
그런데 굴은 어떤지 알아요? 가래 덩어리처럼 볼품없고 껍질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세게 힘을 줘야 열려요. 누가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음식물 찌꺼기와 하수도 오물로 살찐 거예요.

예문 (30)에 출현하는 동사 ‘消失’(사라지다), ‘死’(죽다), ‘发现’(발견하다)는 모두 [-동태]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로서 중첩, ‘V一下’ 및 명령문의 형식으로 쓰일 수 없다.[15] 따라서 김선희(2015b)의 분석 결과로는 현대중국어에서 [-동태]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들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근대중국어 문헌의 예를 갖고 분석한 것이므로 현대중국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김지나(2012)는 CCL(베이징대학 현대한어 코퍼스)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575개의 동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경향성이 있음을 밝혔다.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 중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은 동사들은 결과동사, 행위동사, 활동동사, 동작동사 및 생리동사이며 출현 빈도가 낮은 동사들은 감각동사, 존재동사, 수반동사 중의 능원동사와 술목동사이다.[16] 또한, ‘是…的’ 구문에 출현할 수 없는 동사들은 관계동사, 성질동사, 변화동사, 평가동사, 수반동사 중의 전치동사이다.

그러나 김지나(2012)는 왜 일부 동사들이 ‘是…的’ 분열구문에 전혀 출현할

15) 이은경(2021)에 따르면 [+동태]의 자질을 공유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첩과 ‘V一下’의 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 중첩과 ‘V一下’의 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자주(自主)동사이며,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은 명령문의 형식에도 쓰일 수 있다.

16) 김지나(2012)의 동사 분류는 崔希亮(1995: 19)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며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정태 동사	존재(存在)동사	有, 无, 堆, 挂, 站, 摆, 放, 停
	관계(关系)동사	是, 为, 指, 像, 相同, 属于, 姓, 等于
	성질(性质)동사	讨厌, 小心, 轰动, 热爱, 信任, 迷信, 密切
	결과(结果)동사	出来, 成立, 发现, 获得, 分别, 到达, 批准, 通过
	행위(行为)동사	帮助, 服务, 旅行, 游泳, 指导, 祝贺, 压迫
동태 동사	변화(变化)동사	大, 高, 成, 好, 紧张, 成熟, 漂亮, 地道, 瓷实
	활동(活动)동사	布置, 打扮, 筹备, 联络, 交涉, 准备
	동작(动作)동사	打, 抓, 摘, 搂, 拉, 拽, 脱, 砍, 剁, 劈, 砸, 削, 穿
	평가(评价)동사	看, 当, 说, 夸, 怀疑, 算, 称, 叫
	감각(感觉)동사	愁, 想, 欢喜, 忧伤, 伤心, 兴奋, 疼, 难受, 寂寞
	생리(生理)동사	哭, 笑, 叫, 喊, 嚷, 病, 嚎, 吵
수반 동사	능원(能愿)동사	能, 会, 可以, 情愿, 宁, 要, 肯, 应该, 得(děi)
	전치(前置)동사	把, 朝, 向, 往, 被, 对, 对于, 由, 从, 据, 冲
	술목(谓宾)동사	省得, 值得, 任凭, 给以, 予以, 加以, 显得, 难免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고는 BCC(베이징어언대학교 코퍼스)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을 검색한 결과 평가동사에 속하는 '说'는 '是…的' 분열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현 빈도도 다른 동사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17]

(31) a. "不过有人告诉我，说您趁一千多个农奴呢。"奇奇科夫谦虚地指出："这是谁说的？谁说这话，先生，您就该当面唾他一口！"(阿瑟·高顿,『死灵魂』)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천 명 넘는 농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치치코프는 겸손하게 지적했다. "누가 말했나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선생, 반드시 면전에서 반박을 해야지요."
b. "戎野老师是怎么说的?""他说明天就去向警察报案，请警方帮忙寻找。"(村上春树,『1Q84』)
"룽예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c. ≪福音≫里讲得很清楚。也许是≪圣经≫里说的？不，是圣保罗说的。是圣保罗或是圣阿古斯丁纽说的？(埃萨·德·凯依洛斯,『马亚一家』)
복음에 명확히 적혀 있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 성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바울, 혹은 성아구스티노가 말한 건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이 반드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왜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지, 구문의 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동사의 선택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是…的' 분

17) 본고는 4 장에서 BCC(베이징어언대학교 코퍼스)를 통해 700 개의 '是…的' 분열구문을 추출한 후 분열구문의 유형과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은 'O+是+XP+VP 的', 'S+是+XP+VP 的', '是+XP+VP 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说'는 'O+是+XP+VP 的'에는 13 회, 'S+是+XP+VP 的'에는 11 회, '是+XP+VP 的'에는 12 회 출현함으로써 다른 동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열구문은 동일한 형식으로 쓰인 명사화구문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유사한 기능을 하는 ‘是’ 초점구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며 왜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지, 동사의 출현에는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是…的’의 형식이 어떤 경우에 분열구문으로 인식되는지, 어떤 경우에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명사화구문과 분열구문이 정보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명사화구문과 분열구문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중국어의 분열구문은 어떤한 기제를 통해 발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是’ 초점구문과의 비교 · 분석을 통해 분열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본고는 우선,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문법적 및 화용적 특징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현대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의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동사를 상적 자질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중국어의 동사를 다양한 기준과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동사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시간적 자질에 근거하여 동사의 상황유형(situation type)을 새롭게 분류할 것이며 각 유형의 동사들이 ‘是…的’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는지, 동사의 자질과 문장의 시제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코퍼스 자료에 근거하여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을 분류할 것이며 유형별로 어떤 논항이 초점으로 자주 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是’의 뒤에 시간 표현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고는 ‘是…的’ 형식의 초점이 시간 표현인 경

우 각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어떠한 시간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的' 분열구문의 시제 제약과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동일한 '是…的'의 형식을 사용하는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是…的' 형식이 어떤 경우에 분열구문으로 해석되는지, 어떤 경우에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법화의 속도가 차이를 보이는 방언 지역에서의 '的'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了$_1$'과의 비교를 통해 '的'도 완정상 표지로 문법화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며 '的'의 문법화 경로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코퍼스 자료를 통해 각 유형의 분열구문이 실제로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정보구조적으로 유사한 '是' 초점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是…的' 분열구문에 대해 소개하고, 시제 제약 및 동사 제약 등 중국어의 분열구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분열구문의 범위와 유형 및 명사화구문과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是…的' 분열구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열구문의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문법적 특징과 화용적 특징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 분열구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동사의 상황유형(situation)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4분법, 5분법, 6분법 등 상황유형의 다양한 분류 기준과 방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과 방식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중국어의 동사를 어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동태성(dynamic), 지속성(durative), 종결성(telic)의 자질에 근거하여

상태(state), 동작(activity), 달성(accomplishment) 및 성취(achievement)의 네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각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이 의미·기능적으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BCC(北京语言大学语料库: 베이징어언대학교 코퍼스) 자료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논항이 ‘是…的’ 분열구문의 초점으로 자주 출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是…的’ 분열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없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的’ 분열구문이 왜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지, 동사의 어떠한 자질이 ‘是…的’ 분열구문의 시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5장에서는 과거, 현재 및 미래 시제와 관련된 시간 표현(T)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분열구문으로 해석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각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시간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 공기하는 시간 표현에 따라 초점의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O+是+T+VP的’, ‘S+是+T+VP的’의 형식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명사화구문과 분열구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구문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的’의 상적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的’를 명사화표지나, 어기조사로 보는 견해가 왜 적절하지 않는지, 시제로 보는 관점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법화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방언 지역에서의 ‘的’의 출현 위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사적으로 ‘了$_1$’이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한 것처럼 ‘的’도 현재 완정상 표지로서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 단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的’의 전반적인 문법화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7장에서는 Lambrecht(1994)의 정보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을 ‘O+是+XP+VP的’, ‘S+是+XP+VP的’, ‘是+XP+VP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처럼 ‘是’ 초점구문의 경우도 ‘O+是+XP+VP’, ‘S+是+XP+VP’, ‘是+XP+VP’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O+是+XP+VP的’ 분열구문의 비교 대상은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며 ‘S+是+XP+VP的’ 분열구문의 비교 대상은 ‘S+是+XP+VP’ 형식이다. 마찬가지로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XP+VP的’ 분열구문의 비교 대상은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다. 분석 과정에서 코퍼스 자료를 통해 각 유형의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이 실제로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는지, 정보구조적으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은 형식이 다르므로 화용적 기능도 서로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8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개괄하고 본 논문의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이 왜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지, 동사 제약의 원인은 무엇인지, 명사화구문 및 ‘是’ 초점구문과는 어떠한 연관성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기능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제2장 '是…的' 분열구문의 특징과 판단 기준

현대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에는 Teng(1979), 赵淑华(1979), Li & Thompson(1981), 汤廷池(1981), 朱德熙(1982), 吕必松(1982), 方梅(1995), 田泉(1996), 牛秀兰(1991), Wu(1998: 204-240), 李讷 외(1998), 杉村博文(1999), 年玉萍(2000), 刘月华 외(2001), 袁毓林(2003), 조현정(2005), 张雷(2006), Paul & John(2008), 김선희(2015a, 2015b), 王文颖(2018), 윤유정(2019a, 2019b), 이은경(2022a)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이 과거 시제만을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문법적 및 화용적 특징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문법적 및 화용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是…的' 분열구문의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是…的' 분열구문의 특징

2.1.1 '是…的' 분열구문의 문법적 특징

Li & Thompson(1981: 587-593)의 견해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은 명사화 구문이 쓰인 특수한 문형이며 (1.b)의 구조로 해석된다.[18)]

18) 앞서 언급했듯이 Li & Thompson(1981)에 따르면 명사화구문은 적어도 하나의 명시되지 않은 참여자를 포함해야 하며, 명사화된 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명시되지 않은 참여자를 가리킨다. 즉, (1.a)의 '昨天来的'에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昨天来的'가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어제 온 그 사람'이다. 그는 예문 (1.a)와 같은 '是…的' 분열구문을 '他是昨天来的(人)'의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是'를 주요 동사로, '的'를 중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로 보았다.

(1) a. 他是昨天来的。
그는 어제 온 사람이에요.
b. 주어+是+명사화구문(…的)

그러나 아래의 예문 (2)와 같이 '是'의 앞에 아무런 명사구도 출현하지 않는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에는 (1.b)의 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

(2) a. "你怎么到这儿来了？""是妈妈带我来的！"她笑着说。 (魏巍, 『东方』)
"네가 어떻게 여기 왔어?""어머니가 저를 데려왔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b. "祖国人民慰问团已经到啦！杨大妈和来凤也来啦！是师长陪着他们来的！" (魏巍, 『东方』)
"조국인민위문단이 이미 도착했어요. 양씨 아주머니랑 라이펑도 왔어요! 사단장님이 그들과 함께 오셨어요!"

또한, 예문 (2)에서 '妈妈带我来的'와 '师长陪着他们来的'에는 명시되지 않은 참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 (2)의 '妈妈带我来的'와 '师长陪着他们来的'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1.b)의 '주어+是+명사화구문(…的)'의 구조로써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모든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Li & Thompson(1981)은 '是…的' 분열구문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문장의 주어는 명사화구문의 명시되지 않은 주어 참여자와 동일하다.[19] 둘째, '是…的' 분열구문에는 예문 (3)의 '八点钟'과 같이 사건의 배경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포함된다. 셋째, '是…的' 분열구문의 '是'는 생략이 가능하다. 넷째, 아래의 예문 (3)과 같이 동사의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경우 문말의 '的'는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19) Li & Thompson(1981)은 예문 (3)의 '八点钟开门的'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하였으며, 예문 (3)의 주어 '他们'은 '八点钟开门的'에 명시되지 않은 주어 참여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3) a. 他们(是)八点钟开门的。
b. 他们(是)八点钟开的门。
그들은 8시에 문을 연 것이다. /그들은 8시에 문을 열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 a. 谁想得到就是它竟然也促成一段浪漫的儿女情长的佳话？ 您绝对猜不出，我敢拿百万打赌，那都是由一场台球戏而引发的。 (拜伦,『唐璜』)
누가 그런 일이 로맨틱한 사랑으로 이어질 줄 알았겠어요? 당신도 절대 추측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백만금을 걸 수 있어요. 그것은 당구 영화를 촬영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b. 他们被她邀请到庄园来住上一个星期。他们的房屋是十七世纪末建造的，四周是方方正正的大围墙，房子外观朴实无华。 (左拉,『娜娜』)
그들은 그녀의 요청으로 장원에서 일주일 묵었어요. 건물은 17세기 말에 지어졌는데, 사방은 네모반듯한 큰 담장으로 둘러쌓았으며 건물의 외관은 검소하고 평범했어요.

예문 (4)의 밑줄 친 문장들은 '是…的' 분열구문이며, '那'와 '他们的房屋'는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이다. 또한, 앞서 본 예문 (2)의 경우에는 '是'의 앞에 어떠한 명사구도 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의 앞에 출현하는 명사구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으며 '是'의 앞에 아예 명사구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Li & Thompson(1981)이 제시한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유형의 '是…的' 분열구문에 부합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Li & Thompson(1981)이 제시한 '是…的' 분열구문의 네 가지 문법적 특징 중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특징들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赵淑华(1979), 吕必松(1982), 刘月华 외(2001: 762-770) 등의 분석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원인, 목적 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며, 따라서 '是'와 동사 사이에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출현한다. 만일

아래의 예문 (5.a)와 같이 시간 부사어가 ‘是’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 ‘是…的’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으로 해석된다. 즉, 예문 (5.a)는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이며 (5.b)는 과거 사건의 시간을 강조하는 ‘是…的’ 분열구문이다.

(5) a. 这件事，我昨天是知道的。
이 일은 나는 어제 (이미) 알고 있었어요.
b. 这件事，我是昨天知道的。
이 일은 저는 어제 알게 되었어요.
(刘月华 외, 2001: 777)

또한,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이다. 특히, 朴正九(2005)에 따르면 일반적인 계사문의 경우에도 ‘是’를 생략할 수 있으며 ‘我, 北京人’과 같이 생략된 ‘是’의 위치에는 반드시 휴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분열구문에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휴지 없이 ‘是’를 생략할 수 있다.

(6) a. 他昨天回来的。
그는 어제 돌아왔어요.
b. 我在北京见的他。
저는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어요.

刘月华 외(2001: 768)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是’는 생략될 수 있지만, ‘是’ 앞의 주어가 ‘这’, ‘那’인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문 (7)을 보면 ‘是’ 앞의 명사구가 의미상 동사(V)의 목적어(O)인 경우(이하 ‘O+是+XP+VP的’로 표기)에도 휴지 없이 ‘是’를 생략할 수 없다.[20]

20) XP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의미한다.

(7) a. 衣服*(,)上个月买的。
옷은 지난 달에 샀어요.
b. 词典*(,)昨天找到的。
사전은 어제 찾았어요.

따라서 예문 (6)과 같이 '是' 앞의 명사구가 의미상 동사(V)의 주어(S)인 경우(이하 'S+是+XP+VP的'로 표기)에는 휴지 없이 '是'를 생략할 수 있지만, 예문 (7)과 같은 'O+是+XP+VP的'의 경우에는 휴지 없이 '是'를 생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Li & Thompson(1981)이 제시한 네 번째 특징인 '的'의 이동에 대해서도 赵淑华(1979), 牛秀兰(1991), 李讷 외(1998), 刘月华 외(2001), 廉竹钧(2022)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牛秀兰(1991)의 분석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는 동사의 음절이 짧을수록 동사 바로 뒤의 위치를 선호한다.[21]

(8) a. 我是中午看电影的。
b. 我是中午看的电影。
저는 정오에 영화를 봤어요.
(牛秀兰, 1991: 177)

다음으로 马学良 · 史有为(1982), 史有为(1984), Wu(1998), 杉村博文(1999), Paul & John(2008), 박정구(2020) 등의 연구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그러나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인다. 杉村博文(1999)에 따르면 'V的(O)'는 'V了(O)'의 승계(承指)된 형식이며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의 뒤에 상표지를 부가할 경우 'V了(O)'의 '了'와 기능상 중복이 된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21) 이러한 경향성은 방언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북방 방언에서는 '的'가 동사의 바로 뒤에 오는 것을 선호하지만, 남방 방언에서는 '的'가 문말에만 위치한다. 또한,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할 때 운율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음절 배합은 동사가 1 음절이고, 목적어가 다음절인 경우이다.

(9) a. 我的爸爸，一个小镇上的小学教员，被划分成了右派，… 他是1958年划的右派。
저의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우파로 분류되었어요. … 그는 1958년에 우파로 몰렸어요.
b. 他已经找过我三次。… 他是什么时候找的你？[22)]
그는 이미 저를 세 번 찾아왔었어요. … 그가 언제 당신을 찾아갔었나요?

(9') a. *他是1958年划{过/了}的右派
b. *他是什么时候找{过/了}的你？

(杉村博文, 1999: 51)

宋玉柱(1981), 马学良 · 史有为(1982), 史有为(1984), 刘月华 외(2001: 763) 등은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서 ‘的’는 과거의 의미와 실현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시상(体-时)조사이므로 동사의 뒤에 다른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정구(2020)는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의 뒤에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的’의 완정상 기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는 이미 상적 기능을 획득했으며 ‘了$_1$’과 유사한 완정상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열구문에서 ‘的’는 다른 상표지와 공기할 수 없으며, 중국어의 분열구문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的’의 이러한 상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법화의 속도가 빠른 베이징방언에서 ‘的’의 위치가 동사의 바로 뒤로 이동한 것도 상적 기능에서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동사에는 상표지뿐만 아니라, 양태표지도 부가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에는 赵淑华(1979), 吕必松(1982), 田泉(1996), Wu(1998), 刘月华 외(2001), Paul & John(2008), 王文颖(2018) 등이 있다. 특히, Wu(1998: 205-206)의 분석에 따르면 동사의 앞에 양태표지가 출현하는 ‘是…的’ 형식의 경우 양태표지는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그는 양태표지가 출현하는 ‘是…的’의 형식은 분열구문과 정보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

22) 예문 (2.b)의 ‘找’는 ‘찾아가다/방문하다’의 의미로서 ‘무언가를 찾다/물색하다’의 의미와는 다르다.

게 해석되므로 분열구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0) a. 他是会来的。
그는 올 거예요.
b. 他是不可能去的。
그는 안 갈 거예요.

(Wu, 1998: 205)

본고도 예문 (10)과 같이 동사의 앞에 양태표지가 출현하는 '是…的'의 형식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대상 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열구문은 완전히 다른 구문이며 후자의 경우 동사의 앞에는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的'의 뒤에 중심어를 복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 年玉萍(2000)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복원할 수 없다. 만일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다면 이 경우의 '是'는 주요 동사이고 '的'는 중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며 이러한 '是…的'의 형식은 분열구문이 아니라, 판단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아래의 예문을 보면 (11.a)는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이고, (11.b)는 판단문이다. 따라서 (11.a)의 경우 '的'의 뒤에 중심어를 부가할 수 없지만, (11.b)의 경우에는 '的'의 뒤에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다.

(11) a. 其中一个人和我是同年同月生的，我称她为姐，她也称我为兄。
그중 한 사람과 저는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녀를 누나라고 부르고, 그녀도 저를 오빠라고 불러요.
b. 那屋脊是弧形的。
그 지붕은 아치형이에요.

(年玉萍, 2000: 63-64)

(11') a. *其中一个人和我是同年同月生的人，我称她为姐，她也称我为兄。
b. 那屋脊是弧形的线条。

年玉萍(2000)에서 인용된 또 다른 예문들을 살펴보자.

(12) a. 他是华济毕业的。
그는 화지대학교를 졸업했어요.
b. 这是儿媳妇送给我的。
이것은 며느리가 선물했어요.
(年玉萍, 2000: 64)

年玉萍(2000)에 따르면 예문 (12)는 ‘是…的’ 분열구문으로서 (12.a)의 경우는 장소를, (12.b)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강조한다. 그러나 본고는 예문 (12.a)와 (12.b)는 모두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판단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예문 (12.a)의 ‘他是华济毕业的’는 (13)의 상황에서는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14)와 같은 상황에서는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的’의 뒤에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다.

(13) A: 他是哪个学校毕业的？
그는 어느 대학교를 나왔나요?
B: 他是华济毕业的。
그는 화지대학교를 졸업했어요.
(14) A: 他怎么那么了解武汉？
그는 어떻게 그렇게 우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B: 他是华济毕业的(人)。当然对武汉很熟悉。
그는 화지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우한을 잘 알지요.

또한, 예문 (12.b)의 ‘这是儿媳妇送给我的’는 문장의 주어인 ‘这’가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인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판단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문 (16)의 대화문과 같이 판단문으로 해석되는 경우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부가할 수도 있다.

(15) A: 这是谁送给我的？
　　이건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요?
　　B: 这是儿媳妇送给我的。
　　이건 며느리가 선물했어요.
(16) A: 这是什么？
　　이건 뭐예요?
　　B: 这是儿媳妇送给我的(生日礼物)。
　　이건 며느리가 나에게 선물한 것(생일선물)이에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是…的'의 형식에서 '的'의 뒤에 중심어의 부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문맥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的'의 뒤에 중심어를 부가할 수 없지만, 판단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다.

2.1.2 '是…的' 분열구문의 화용적 특징

앞 절에서 '是…的' 분열구문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분열구문의 화용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Prince(1978), Borkin(1984) 등의 분석에 따르면 영어의 분열구문은 다음의 화용적 특징을 갖는다.

(17) a. John lost his keys.
　　존은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b. It was his keys that John lost.
　　존이 잃어버린 것은 열쇠였어요.
　　c. What John lost was his keys.
　　존이 잃어버린 것은 열쇠였어요.

(Prince, 1978: 883)

예문 (17.a)는 무표적인 단일문이며 (17.b)는 'it-분열구문', (17.c)는 'Wh-분열구문'에 해당한다. 'it-분열구문'에서는 'that'절이 전제 혹은 화제로 기능하고 주

절의 be 동사 뒤의 성분인 ‘his keys’가 초점으로 기능한다. ‘Wh-분열구문’에서도 ‘Wh’절이 전제 혹은 화제로 기능하고 be 동사 뒤의 ‘his keys’가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18.a)와 (18.b)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7.a)는 쓰일 수 있지만, (17.b)와 (17.c)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 (18.c)에 대한 대답으로 (17.b)와 (17.c)는 쓰일 수 있지만, (17.a)는 적절하지 않다.

(18) a. What happened to John?
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b. What happened?
무슨 일인가요?
c. What did John lose?
존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Lambrecht(1994)도 Prince(1978), Borkin(1984) 등과 마찬가지로 분열구문에서 관계절로 표현된 명제는 화용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래의 예문 (19)에서 관계절로 표현된 명제인 ‘누군가 닉슨에게 카스웰을 임명하라고 다그쳤다’라는 사실은 청자에게 알려진 것으로 화자에 의해 추정되어야 한다.

(19) It was MICHAEL who urged Nixon to appoint Carswell.
닉슨에게 카스웰을 임명하라고 다그친 사람은 마이클이에요.
(Lambrecht, 1994: 278)

또한, Lambrecht(1994)는 예문 (19)의 정보구조를 (20)와 같은 도식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20) 전제: X urged Nixon to appoint Carswell
단언: X = Michael
초점: Michael

(20)의 도식을 보면 '누군가 닉슨에게 카스웰을 임명하라고 다그친 것'은 화용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단언은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이다'이며 초점은 마이클이다. Lambrecht(1994)의 정보구조 도식에서 중요한 것은 분열구문의 정보구조를 논항-초점 구조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23] Lambrecht(1994: 224)는 '논항 초점 구조'라는 용어는 초점이 서술어나, 전체 명제이기보다는 특정 논항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논항 초점'에서 '논항'이라는 말은 비서술적 표현(non-predicating expression)으로서, 장소, 시간, 태도 등과 같은 표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Halliday(1967)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분열구문의 초점을 다른 논항과의 대조를 이루는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Lambrecht (1994)는 대조를 이룰 수 있는 대안(alternative) 집합이 많은 경우에도 대조 초점으로 보는 Halliday(1967)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표적인 논항 초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즉,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조 초점은 대조를 이룰 수 있는 대안 집합이 적을 때만 성립한다. 그러나 분열구문에서 초점은 누가, 언제, 어디서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적은 대안 집합과의 대조를 이루지 않으므로 대조 초점이 아닌, 논항 초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음으로 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의 화용적 특징에 대해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李讷 외(1998: 98)는 '是…的' 구문이 실제로 어떠한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열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서사문(narrative)과 대화문(conversation)을 대상으로 '是…的' 구문의 실제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

23) Lambrecht(1994: 221-238)는 문장의 초점 구조를 서술어-초점(predicate-focus), 논항-초점(argument-focus), 문장-초점(sentence-focu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서술어-초점 구조는 가장 무표적인 구조로서 문두의 주어가 화제이고 술어가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논항-초점 구조는 서술어나 문장 전체가 아닌, 특정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며 문장-초점 구조는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로서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표2-1] '是…的' 구문의 사용 양상[24]

	A1	A2	B1	B2	C	합계
서술문	0	6	4	2	1	13
대화문	29	17	14	25	69	154

[표2-1]을 통해 '是…的' 구문은 서술문보다는 대화문에서 더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李讷 외(1998)의 견해에 따르면 대화문은 사건 중심(event-centered)의 발화 형식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상황(背景知识)에 대해 그 상황과 관련된 일부 세부 정보를 논하는 형식이다.[25] 특히, '是…的' 구문이 가장 많이 쓰이는 환경은 아래의 예문과 같이 예측(anticipate)과 대답(respond)의 상황에서이다.

(21) A: 你也离了？ 谁离的谁？
당신도 이혼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이혼하자고 했나요?
B: 她离的我。
그녀가 저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22) A: 我仍不明白的是他们在何时交换的房间钥匙。
저는 아직도 그들이 언제 방 열쇠를 교환했는지 모르겠어요.
B: 还有一个细节你也遗忘了或是没有注意到，他们是在你鼻子底下交换的钥匙。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당신도 잊어버렸거나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당신의 코앞에서 열쇠를 교환했어요.

---

24) [표 2-1]에서 A 류는 '是我去跟他谈的'와 같이 '是'의 앞에 주어가 없는 '是…的' 구문이며 B 류는 '我是在路上遇见他们的'와 같이 '是'의 앞에 주어가 있는 '是…的' 구문이다. C 류는 '韩劲是一定会对你好一辈子的'와 같이 화자의 긍정과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이다. 또한, A1 과 B1 는 '的'가 문말에 있는 경우이며 A2 와 B2 는 '的'가 동사의 바로 뒤 즉,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25) 李讷 외(1998: 98)에 따르면 사건 중심(event-centered)의 발화 형식은 어떠한 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李讷 외(1998)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 (21)과 (22)의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확인(certainty)의 어기를 나타내므로, 화자가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하는 의도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21)과 (22)의 '是…的' 분열구문에서 화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是'의 뒤에 출현하는 사건과 관련된 세부 정보, 즉 행위자와 시간이다.

赵淑华(1979), 吕必松(1982), 史有为(1984), 田泉(1996), Wu(1998)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도 李讷 외(1998: 98)와 마찬가지로 '是…的' 분열구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나 사건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거나 완료되었다는 것을 대화하는 쌍방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쓰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 화자가 부각시켜 전달하려는 중점(문장의 초점)은 행위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원인, 목적, 대상 등 세부 정보이다.

다음으로 袁毓林(2003)은 '是…的' 분열구문을 사태문(事态句, state of affairs)이라고 불렀으며 (23)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건문(事件句, event sentence)인 'V了O'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V的O'의 전제를 'V了O'로 설정하였다.[26] 즉, 예문 (23)의 '发明的蒸汽机'의 전제는 '发明了蒸汽机'이다.

(23) a. 瓦特发明了蒸汽机。
b. 瓦特发明蒸汽机的。/瓦特发明的蒸汽机。
c. 是瓦特发明蒸汽机的。/是瓦特发明的蒸汽机。

(袁毓林, 2003: 4)

그의 주장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의 초점은 '是'와 '的' 사이의 성분이며 '是…的' 구조 자체가 초점표지의 기능을 한다. 만일 '的'가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할 경우 초점 영역이 축소되며, 따라서 '的'의 기능은 목적어를 탈초점화(defocusation)함으로써 정보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또한, 그는 '是…的' 분열구문

26) '是…的'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가 'V 了 O'의 정보를 전제로 한다는 주장을 최초로 한 학자는 杉村博文(1999)이며 木村英树(2003), 张雷(2006)를 비롯한 학자들도 '是…的' 구문의 전제를 'V 了 O'로 설정하였다.

의 초점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4) a. 谁指使你来的？
b. 命，不公平的命指使我来的。

(袁毓林, 2003: 7)

'是…的' 분열구문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예문 (24)에서와 같이 의문대사(疑问代词)이거나, 의문대사에 대한 대답이며 이 경우 [+대조]의 자질을 포함한다. 즉, 행위자나 부사어가 초점인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초점 성분은 다른 후보들과의 대조를 이루므로 대조 초점으로 기능한다.

方梅(1995), 刘月华 외(2001, 762-770) 등도 袁毓林(2003)과 마찬가지로 '是…的' 분열구문의 초점 유형을 대조 초점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刘月华 외(2001)의 분석에 따르면 '是'는 후행하는 성분이 문장의 초점임을 나타내는 초점표지이며 '的'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거나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화제표지이다. 또한, 아래의 예문에서 '两点半'은 기타 시간과 대조되는 시간이며 '预售处'는 다른 장소와 대조되는 장소이므로 '是…的' 분열구문의 초점은 일종의 대조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25) a. 他是什么时候出去的？ - 他是两点半出去的。 (不是其他时间)
그는 언제 나갔어요? - 그는 두 시 반에 나갔어요.
b. 你是在哪儿买的票？ - 我是在预售处买的票。 (不是别处)
당신은 어디서 표를 샀어요? - 저는 예매소에서 표를 샀어요.

(刘月华 외, 2001: 763)

그러나 본고는 (25)에서 '什么时候'와 '在哪儿'로 질문할 때 대조의 자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Lambrecht(1994)는 대안 집합이 적은 경우에만 대조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什么时候'와 '在哪儿'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대안 집합은 너무 많아서 [+대조]의 자질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의 초점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며 '谁', '什么时候', '在哪儿', '怎么'

등과 같은 의문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초점 유형을 논항 초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27]

또한, 모든 논항 초점은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 대조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예문 (25)에서 '两点半'과 '预售处'는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지만, (26)와 같은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에는 대조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26) a. 他是四点出去的吗？ - 不是，他是两点半出去的。
그는 4시에 나갔어요? - 아니요, 그는 2시 반에 나갔어요.
b. 你是在老张那儿买的票？ - 不是，我是在预售处买的票。
당신은 라오장에게서 표를 샀어요? - 아니요, 저는 예매소에서 표를 샀어요.

그러나 대조 초점의 기능을 하는 모든 성분이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7) a. 那是以前喜欢的，这是现在喜欢的。
그건 이전에 좋아했던 거고, 이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b. *这是什么时候喜欢的？
이건 언제 좋아했던 거예요?

예문 (27.a)에서 '以前'과 '现在'는 과거의 시점과 현재 시점의 대조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대조 초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7.b)와 같이 시간 표현을 '什么时候'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다음으로 예문 (25)의 '他是两点半出去的'와 '我是在预售处买的票'의 정보구조를 Lambrecht(1994)의 도식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27) Lambrecht(1994: 224)의 '논항 초점'에서 '논항'이라는 말은 비서술적 표현(non-predicating expression)으로서, 장소, 시간, 태도 등과 같은 표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어 '是…的' 분열구문에서 초점 위치에 출현하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과 같은 성분을 모두 논항 초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8) 전제: 그는 X에 나갔다/나는 X에서 표를 샀다.
단언: X = 두 시 반/예매소
초점: 두 시 반/예매소

(28)의 정보구조 도식을 보면 ‘그는 이미 나갔다’와 ‘나는 이미 표를 샀다’는 내용은 화용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단언은 ‘그가 나간 시간은 두 시 반이다’와 ‘그가 표를 산 곳은 예매소이다’이며 여기서 ‘두 시 반’과 ‘예매소’는 초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은 논항 초점 구조로서 영어의 분열구문과 정보구조적으로 동일하게 해석됨을 알 수 있다.

2.2 ‘是…的’ 분열구문의 판단 기준

2.1에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문법적 및 화용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2.1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와 동사 사이에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출현하며 ‘是’는 휴지 없이 생략할 수 있다. 동사의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경우 문말의 ‘的’는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에는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없으며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경우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부가할 수 없다. ‘是…的’ 분열구문의 화용적 특징은 ‘VP的’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며 초점은 ‘是’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으로서 논항 초점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2.1의 분석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28]

28) 이은경(2022a)에서도 ‘是…的’ 분열구문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만, ‘是’의 앞에 동사의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출현하는 ‘S+是+XP+VP 的’와 ‘O+是+XP+VP 的’의 형식에만 국한된 기준이다. 본고에서는 ‘是’의 앞에 동사의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출현하는 형식뿐만 아니라,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XP+VP 的’의 형식까지 모두 포괄하여 분열구문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의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문말)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29) a. 我是在外语学院学的英语。
b. 我是在外语学院学英语的。
저는 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刘月华 외, 2001: 765)

아래의 예문과 같이 '的'가 문말에만 출현하는 '是…的' 형식의 경우는 분열구문이 아니다.

(30) a. 经过三年修正以后，这里园林的面貌是会有变化的。
3년에 걸쳐 손질하고 가꾸면, 이곳 조경의 면모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b. *经过三年修正以后，这里园林的面貌是会有的变化。
(刘月华 외, 2001: 771)

둘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는 휴지 없이 생략이 가능하다.

(31) a. 她(是)昨天通知我的。
그녀는 어제 저에게 알려 주었어요.
b. 我们(是)五点半回学校来的。
우리는 5시 반에 학교로 돌아왔어요.
(刘月华 외, 2001: 765)

셋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에는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32) a. 我们是昨儿进的城。
우리는 어제 시내로 들어왔어요.
b. *我是三年前去{过/了…}的北京。

(33) a. 他们都是在北京语言学院学的汉语。
그들은 모두 베이징어언학원에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b. *他们都是在北京语言学院{要/可能…}学的汉语。

넷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와 동사 사이에 출현하는 부사어는 논항 초점으로 기능한다.[29] 일반적으로 분열구문의 초점은 '什么时候', '在哪儿', '怎么', '谁' 등 의문대사에 대한 대답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사어를 의문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판단할 것이며, 대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열구문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다. 즉, 아래의 예문 (34)에서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논항 초점을 갖는 '是…的'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34) a. 他是上周去的北京。
그는 지난주에 베이징에 갔어요.
b. 他是什么时候去的北京？
그는 언제 베이징에 갔어요?

그러나 예문 (35.a)는 시간 표현을 '什么时候'로 대체할 경우 비문이 되므로 논항 초점을 갖는 '是…的'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명사화구문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35) a. 这是上大学的时候喜欢的。
이것은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거예요.
b. *这是什么时候喜欢的？

다섯째,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부가할 수 없다.

29) 앞서 2.1.2 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고의 '논항 초점'이라는 용어는 비서술적 표현(non-predicating expression)으로서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과 같은 표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36) a. 李老师是用红笔改的(*人)。
이 선생님은 붉은 펜을 이용하여 고쳤어요.
b. 我们是坐公共汽车去的(*人)。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刘月华 외, 2001: 764)

그러나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한 문장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앞뒤의 문맥이 필요하다. 즉, 아래의 예문 (37)에서 '…的'의 형식은 상황에 따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37) a. 他是昨天回来的(人)。
그는 어제 돌아왔어요./그는 어제 돌아온 사람이에요.
b. 他们是八点钟开门的(人)。
그들은 8시에 문을 열었어요./그들은 8시에 문을 연 사람들이에요.

또한, '是'의 앞에 출현하는 명사구가 의미상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도 문맥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경우 문말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부가(또는 복원)할 수 있다.

(39) a. 那是她自己织的(毛衣)。
그것은 그녀가 직접 떴어요./그것은 그녀가 직접 뜬 스웨터예요.
b. 这是我哥哥寄来的(东西)。
이것은 저의 오빠가 보내왔어요./이것은 저의 오빠가 보내온 물건이에요.

따라서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에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앞뒤 문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단순히 한 문장을 갖고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 분열구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본고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이 모든 유형의 분열구문에 다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첫 번째 기준의 경우 ‘S+是+XP+VP的’와 ‘是+XP+VP的’의 형식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O+是+XP+VP的’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문두에 출현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기준의 경우는 ‘S+是+XP+VP的’의 형식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O+是+XP+VP的’와 ‘是+XP+VP的’의 형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다. ‘O+是+XP+VP的’의 형식에서는 ‘是’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된 위치에 반드시 휴지가 있어야 한다.

(40) a. 手帕*(,)哪里来的?! (迟子建,『额尔古纳河右岸』)
손수건은 어디서 났어요?
b. 伊万说地图*(,)达西给他的。 (迟子建,『额尔古纳河右岸』)
이완이 지도는 다시가 그에게 주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XP+VP的’의 경우에도 ‘是’는 생략이 가능하다.

(41) a. “你怎么到这儿来了？”“(是)妈妈带我来的！”她笑着说。 (魏巍,『东方』)
“네가 어떻게 여기 왔어?”“어머니가 저를 데려왔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b. “祖国人民慰问团已经到啦！杨大妈和来凤也来啦！(是)师长陪着他们来的！” (魏巍,『东方』)
“조국인민위문단이 이미 도착했어요. 양씨 아주머니랑 라이펑도 왔어요! 사단장님이 그들과 함께 오셨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명사화구문의 경우도 ‘是’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위치에는 휴지가 요구된다. 즉, 모든 유형의 ‘是…的’ 형식에서 ‘是’는 생략이 가능하

지만, 휴지 없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S+是+XP+VP的’의 형식뿐이다. 다시 말해서 ‘S+是+XP+VP的’의 경우에는 휴지 없이 ‘是’를 생략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분열구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O+是+XP+VP的’와 ‘是+XP+VP的’의 경우 ‘是’의 생략 여부로 분열구문인지, 명사화구문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분열구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세 번째부터 네 번째 기준이다. 즉, 동사에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있는지, ‘XP’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지, ‘的’의 뒤에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S+是+XP+VP的’, ‘O+是+XP+VP的’, ‘是+XP+VP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 분열구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제시한 ‘是…的’ 분열구문의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2] ‘是…的’ 분열구문의 판단 기준[30]

기 준	S+是+XP+VP的	O+是+XP+VP的	是+XP+VP的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	×	√
‘是’는 휴지 없이 생략할 수 있다.	√	×	×
동사에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	√	√
‘是’ 뒤의 성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한다.	√	√	√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부가할 수 없다.	√	√	√

30) [표 2-2]에서 ‘√’는 해당 유형의 분열구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며 ‘×’는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3장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 분류

상(aspect)이란 용어는 슬라브어의 완정상(perfective)과 미완정상(imperfective)을 구분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한 러시아어의 ‘vid(вид)’의 번역어로서(Lyons, 1977: 508), ‘시계(视界)’, ‘시야(视野)’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31] 다시 말해서 상은 사건(또는 상황)을 하나의 통합적인 것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과정들로 나누어 내부구조를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관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언어학에서 상은 문법상(grammatical aspect)과 어휘상(lexical aspect)으로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문법상은 문법적인 형태소로서 동사의 굴절형태로 표현되며 관점상(viewpoint aspect)이라고도 부른다. 어휘상은 어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 자질(temporal features)에 의해 표현되며 상황유형(situation type)이라고도 부른다.

3장에서는 현대중국어의 동사들을 대상으로 어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 자질에 근거하여 상황유형을 분류할 것이며 각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이 의미·기능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3.1 상황유형의 개념

동사의 상황유형은 동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 자질에 의해 표현되는 상적인(aspectual) 의미를 말한다. 예를 들어 ‘know’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시간적인 경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ecognize’와 같은 동사의 경우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알아차렸고 이로 인해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시간적인 경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now’와

31) 조경환(2015: 16)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recognize'에 내포되어 있는 시간적 자질은 서로 다르며 'know'와 'recognize'는 서로 다른 부류의 상황유형으로 분류된다.

상황유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분류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가장 최초로 동사 자체에 내재된 상적인 자질에 대해 언급한 학자는 Ryle(1949: 149-153)이다. 그는 'win', 'find'와 같이 내부구조 속에 종결점(terminal point)과 함께 결과로 인한 변화를 포함하는 동사를 성취(achievement) 동사로 분류하였으며 'hear', 'run' 등과 같이 내부구조 속에 일정한 지속 구간을 포함하는 동사를 동작(activity)동사로 분류하였다. 이후 Garey(1957)는 프랑스어의 동사를 크게 상태(state)와 활동(action)으로 이분하였으며, Kenny(1963: 120-130)는 상태(state), 수행(performance), 동작(activity)으로 삼분하였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4분법, 5분법, 6분법 등 다양한 기준과 방식으로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류하였다. 동사의 상황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많은 연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Vendler(1967)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동사를 상태(state), 동작(activity), 달성(accomplishment), 성취(achievement)의 네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Smith(1991)는 Vendler(1967)의 분류를 기반으로 성취 상황과 구별되는 순간 상황이라는 유형을 첨가함으로써 동사의 상황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Xiao & McEnery(2004)는 Vendler(1967), Smith(1991)를 비롯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동사를 여섯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Vendler(1967: 97-121)의 4분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동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지속성(durative), 진행성(progressive), 종결성(telic)의 세 가지 자질에 근거하여 동사를 아래의 표와 같이 상태, 동작, 달성 및 성취의 네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32]

32) 지속성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황이 지속적인지, 순간적인지를 구분하는 자질이며, 진행성은 진행상(progressive aspect)과의 결합 여부를 통해 계속적인 시제(continuous tense)를 나타내는 동사와 아닌 동사로 판단하는 자질이다. 종결성은 사건의 종결과 함께 어떤 결과가 산출되거나, 상태의 변화를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동사를 종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비종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는 자질이다.

[표3-1] Vendler(1967)의 동사 분류

상황유형 (situations)	지속성 (durative)	진행성 (progressive)	종결성 (telic)	예
상태 (state)	[+]	[-]	[-]	know, love, like, have
동작 (activity)	[+]	[+]	[-]	run, walk, swim, pull
달성 (accomplishment)	[+]	[+]	[+]	paint a picture, make a chair, build a house
성취 (achievement)	[-]	[-]	[+]	recognize, realize, identify

Vendler(1967)에 따르면 상태 상황유형은 명확한 시간적 구간(time period)이 없으며 어떠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태동사는 [+지속], [+진행],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대표적인 동사로는 '소유하다', '좋아하다' 등이 있다. 동작 상황유형에는 '달리다', '걷다' 등과 같이 내부구조 속에 일정한 지속 구간을 갖는 동사들이 속하며 동작동사들은 [+지속], [+진행],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 달성 상황유형은 내부구조 속에 명확한 시간적 구간이 존재하며 종점(final point)을 포함한다. 달성동사들은 [+지속], [+진행],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대표적인 동사에는 '그림을 그리다', '집을 짓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취 상황유형은 사건의 출현과 함께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며 내부구조 속에는 기점(initial point)과 종점(final point)이 겹치는 명확한 순간(time instant)이 포함된다. 성취동사는 [-지속], [-진행],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대표적인 동사에는 '알아차리다', '깨닫다' 등이 있다.

Vendler(1967)의 분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행성에 대한 판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래와 같이 진행상(progressive aspect)과 결합할 수 있으면 [+진행]으로, 결합할 수 없으면 [-진행]으로 판단하였으며 [+진행]의 자질을 갖는 동사는 계속적인 시제(continuous tense)를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1) a. *I am knowing. (상태)
b. I am running. (동작)

c. I am painting a picture. (달성)
d. *I am recognizing. (성취)

(Vendler, 1967: 99)

이후 Vendler(1967)의 분류를 적용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학자에 따라 진행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즉, 일부 학자들 중에는 진행성을 자주성(voluntary)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고, 과정성(processes)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동태성(dynamic)으로 해석하였다.

Smith(1991: 17-37)는 Vendler(1967)의 진행성 자질 대신 상태성(static)을 사용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동사를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세 가지 자질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33] 또한, 그의 분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Vendler(1967)의 성취 상황과 구별되는 순간 상황이라는 유형을 첨가했다는 점이다.

[표3-2] Smith(1991: 20)의 동사 분류

상황유형 (situations)	상태성 (static)	지속성 (durative)	종결성 (telic)	예
상태 (stative)	[+]	[+]	[-]	own the farm believe in ghosts
동작 (activity)	[-]	[+]	[-]	eat cherries stroll in the park
순간 (semelfactive)	[-]	[-]	[-]	knock at the door cough
달성 (accomplishment)	[-]	[+]	[+]	build a bridge destroy a house
성취 (achievement)	[-]	[-]	[+]	leave the house recognize Aunt Jane

33) Smith(1991)가 분류 기준으로 삼은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자질 중 지속성과 종결성은 Vendler(1967)와 유사하다. 나머지 자질인 상태성은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나 상황이 정적인지, 또는 동적인지를 구분하는 자질이다.

Smith(1991: 32)에 따르면 상태 상황유형은 ‘소유하다’, ‘믿다’ 등과 같이 시간축의 어느 시점(moment)이나, 어느 구간(interval)에서도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상태], [+지속], [-종결]을 상태 상황의 자질로 제시하였으며 상태동사의 내부구조를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3-1] 상태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그림3-1]에서 I는 기점(initial endpoint)을 의미하며 F는 종점(final endpoint)을 의미한다. Smith(1991)는 상태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속에 기점과 종점은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 상황이 유지됨을 나타내는 지속 구간은 동질적(homogenous)임을 주장하였다.

동작 상황유형은 ‘먹다’, ‘산책하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추구하다’, ‘귀를 기울이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비확장(non-extensional)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Smith(1991: 23)에 따르면 동작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상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내부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3-2] 동작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그림3-2]에서 F_{Arb}는 임의의 종점(arbitrary final endpoint)을 의미하며 동작 상황의 내부구조에는 기점, 종점, 지속 구간이 포함된다. 동작 상황유형의 내부구조에서 종점은 자연 종점(natural final endpoint)이 아닌 임의의 종점이며, 기점과 종점 사이의 지속 구간은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다. 그러나 어떤 동작이 명확하고 독립적인 유계성(boundedness)을 나타낼 경우에는 내부구조 속의 지속 구간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 a. We fed the puppy for an hour.
우리는 강아지 먹이를 한 시간 동안 주었어요.
b. The wheel revolved for an hour.
그 바퀴는 한 시간 동안 회전했어요.

(Smith, 1991: 24)

위의 예문은 전치사 'for'를 사용함으로써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와 바퀴가 회전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종점이 존재하며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순간 상황유형은 '노크하다', '기침하다'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비종결성 사건으로서 어떠한 결과나 종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건의 출현으로만 구성된다. Smith(1991: 29)는 순간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단일 단계 사건(single-stage event)이며 내부구조 속에는 아래와 같이 순간적인 사건(event)만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E

[그림3-3] 순간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순간 상황유형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며 아무런 결과도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상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가진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을 보자.

(3) a Mary knocked for five minutes.
메리는 5분 동안 문을 두드렸어요.
b. Mary coughed for an hour.
메리는 한 시간 동안 기침했어요.

(Smith, 1991: 2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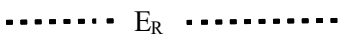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순간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유계적(bounded)이지만, 예문 (3)의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Smith(1991)는 이러한 경우를 [-상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갖는 파생된(derived) 다중-사건 동작(multiple-event activities) 상황유형으로 분석하였다.

달성 상황유형은 '짓다', '파괴하다' 등과 같이 사건이 종점에 도달하여 어떤 결과나, 또는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내부구조 속에는 사건 종료 전까지의 지속 구간을 포함한다. Smith(1991: 26)는 달성 상황이 내포하는 자질을 [-상태], [+지속], [+종결]로 보았으며 달성동사의 내부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3-4] 달성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그림3-4]에서 F_{Nat}는 자연 종점(natural final endpoint)을, R은 결과(result)를 의미하며 달성 상황의 내부구조에는 기점, 자연 종점, 지속 구간이 모두 포함된다.

성취 상황유형은 '사라지다', '인식하다' 등과 같이 사건의 출현과 동시에 상태 변화의 결과를 갖는 순간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또한, 성취 상황의 경우 선행 혹은 후행 단계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만, 사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보거나, 노력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물건을 찾는 경우가 성취 상황유형에 속한다. Smith(1991: 30)가 제시한 성취 상황의 자질은 [-상태], [-지속], [+종결]이며 내부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3-5]에서 E_R은 사건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림3-5] 성취 상황유형의 내부구조

마지막으로 Xiao & McEnery(2004: 33-88)의 6분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Vendler(1967), Carlson(1977), Smith(1991) 등 많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동사를 동태성, 지속성, 경계성, 종결성, 결과성의 자질에 근거하여 여섯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34)]

[표3-3] Xiao & McEnery(2004: 59)의 동사 분류

상황유형 (situations)	동태성 (dynamic)	지속성 (durative)	경계성 (bounded)	종결성 (telic)	결과성 (result)
동작 (activity)	[+]	[+]	[-]	[-]	[-]
순간 (semelfactive)	[+]	[-]	[±]	[-]	[-]
달성 (accomplishment)	[+]	[+]	[+]	[+]	[-]
성취 (achievement)	[+]	[-]	[+]	[+]	[+]
개별층위-상태 (individual-level stative)	[-]	[+]	[-]	[-]	[-]
장면층위-상태 (stage-level state)	[±]	[+]	[-]	[-]	[-]

Xiao & McEnery(2004)의 6분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Carlson(1977)이 제시한 개별층위(individual level)와 장면층위(stage level)의 분류를 바탕으로 상태 상황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점이다. Carlson(1977)에 따르면 술어는 개체층위와 장면층위로 구분된다. 개체층위 술어는 개체의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내어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장면층위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하기 쉬운 일시적인 속성을 나타낸다.[35)] Xiao

34) Xiao & McEnery(2004)가 제시한 분류 기준 중 지속성과 종결성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Vendler(1967), Smith(1991)와 유사하다. 동태성은 Smith(1991)가 제시한 상태성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나 상황이 동적인지, 또는 정적인지를 구분하는 자질이다. 일반적으로 [+상태]의 자질을 갖는 동사는 [-동태]의 자질을 갖는다. 경계성은 시간적인 종점(final temporal endpoint)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자질이며 결과성은 사건이 종점에 도달하여 어떠한 결과를 산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는 자질이다.

& McEnery(2004: 58)의 주장에 따르면 개별층위의 상태동사와 장면층위의 상태동사는 지속성, 경계성, 종결성, 결과성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자질을 공유하지만, 동태성의 측면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자질을 갖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像'(resemble)과 '诚实'(honest)는 개별층위의 상태동사로서 [-동태]의 자질만을 내포하지만, '病'(be ill)과 '忙'(be busy)의 경우 장면층위의 상태동사로서 [+동태]의 자질과 [-동태]의 자질을 모두 포함한다.

3.2 상적 특성에 따른 중국어 동사 분류

3.2.1 기존의 분류 기준과 방식

본 절에서는 현대중국어의 동사를 상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분류 방식과 기준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邓守信(1985), 郭锐(1993), 胡裕树 · 范晓(1995), 杨素英(1998, 2000), 左思民(2006, 2009), 陈前瑞(2008), 이은수(2009), 김선희(2015a) 이은경(2021)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중국어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우선, 邓守信(1985)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Vendler(1967)와 동일하게 중국어의 동사를 상태 동작, 달성 및 성취의 네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분류 기준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Vendler(1967)는 지속, 진행, 종결의 자질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지만, 邓守信(1985)은 습관, 진행, 완성, 경험의 자질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邓守信(1985)의 주장에 따르면 '教'(가르치다), '写'(쓰다), '走'(걷다), '找'(찾다) 등과 같은 동작 상황유형은 아무런 표지가 부가되지 않을 경우 습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진행상 표지 '在/着'와 경험상 표지 '过'를 부가할 수 있는 반면, 완정상 표지 '了$_1$'은 부가할 수 없다. 또한 '煮好'(익히다), '作(梦)'(꿈을 꾸다), '走到'(~로 가다) 등과 같은 달성 상황유형은 아무런 표지가 부가되지 않을 경우 습관을 나타낼 수 없으며 진행상 표지

35) 이은경(2018: 49)의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在/着'와 경험상 표지 '过'를 부가할 수 없는 반면, 완정상 표지 '了$_1$'은 부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死'(죽다), '破'(찢어지다), '干'(마르다), '病'(아프다) 등과 같은 성취 상황유형은 아무런 표지가 부가되지 않을 경우 습관을 나타낼 수 없으며 완정상 표지 '了$_1$'과 경험상 표지 '过'를 부가할 수 있는 반면, 진행상 표지 '在/着'는 부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喜欢'(좋아하다), '知道'(알다), '会'(할 줄 안다), '客气'(사양하다) 등과 같은 성취 상황유형은 아무런 표지가 부가되지 않을 경우 습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진행상 표지 '在/着', 완정상 표지 '了$_1$', 경험상 표지 '过'를 모두 부가할 수 없다.

[표3-4] 邓守信(1985: 17)의 동사 분류

상황유형 (situations)	습관(ø)	진행(在, 着)	완정(了)	경험(过)
동작(活动)	教书	在写信	*走了路	找过房子
달성(完结)	*过去煮好饭	*煮好着饭	作了一个梦	*走到过大学
성취(达成)	*某种人不死	*气球在破	油漆干了	他病过
상태(状态)	不喜欢吃肉	*在知道这件事	*会了游泳	*客气过

본고는 邓守信(1985)의 분류에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그가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 습관, 진행, 완성, 경험의 자질을 판단하는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취동사에는 경험상 '过'를 부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가 표에서 제시한 '死'와 '破'의 경우에는 '*他死过', '*气球破过'와 같이 '过'를 부가할 수 없다. 둘째는 '死', '破', '干', '病'을 모두 동일한 자질을 공유하는 성취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邓守信(1985)의 성취 상황유형(达成)은 Vendler(1967)의 'achievement'를 번역한 것으로서,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干'과 '病'의 경우 '건조하다/마르다', '병나다/아프다'와 같이 어떠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므로 오히려 상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郭锐(1993)는 중국어의 동사를 무제한(无限)구조, 전방제한(前限)구조, 쌍방제

한(双限)구조, 후방제한(后限)구조 및 점구조(点)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3-5] 郭锐(1993: 75)의 동사 분류[36]

동사 유형	~了	~时量	~着	在(正在)~	~过	예시
무제한구조 동사 (无限结构)	-	-	-	-	-	是, 等于
전방제한구조 동사 (前限结构)	I	I	-	-	-	知道, 当心
쌍방제한구조 동사 (双限结构)	I	I	-	-	+	相信, 懂, 姓
	I	I	+	-	+	有, 信任
	I, F	I	+	-	+	坐, 爱, 病
	I, F	I	+	+	+	等, 敲
	I, F	I, F	+	+	+	吃, 看
후방제한구조 동사 (后限结构)	F	F	+	+	+	产生, 消失
	F	F	-	+	+	离开, 灭亡
점구조 동사 (点结构)	F	F	-	-	+	来, 忘

郭锐(1993)는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 기점과 종점, 지속 구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였다. '病了'와 같이 '了'를 부가했을 경우 어떠한 상황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면 해당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기점이 존재하며 지속 구간을 포함한다. '到了'와 같이 '了'를 부가했을 경우 행위의 종료를 나타낸다면 해당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종점이 존재한다. 만일 '吃了'와 같이 '了'를 부가했을 경우 시작과 종료를 모두 나타낼 수 있으면 해당 동사의

36) [표 3-5]에서 'I'는 기점을, 'F'는 종점을 의미한다. 또한, '+'는 '了/着/过…'와 같은 상표지와 결합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는 결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내부구조 속에는 기점과 종점, 지속 구간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으로 동사의 뒤에 시량보어를 부가했을 경우 동작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면 해당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지속 구간이 포함된다. 반면, 시량보어를 부가했을 경우 동작이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면 해당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종점이 포함된다. 또한, '着', '在/正在'와의 결합 여부로도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 지속 구간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동사에 '着'나 '在/正在'를 부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지속 구간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뒤에 '过'를 부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종점이 존재한다.

본고는 郭锐(1993)의 분류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相信', '懂', '姓'과 같은 동사들에 대해 '过'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내부구조 속에 종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고는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 의미적으로 상태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종결]의 속성을 포함하며 내부구조 속에 종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邓守信(1985), 胡裕树 · 范晓(1995), 杨素英(1998, 2000)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도 '相信', '懂' '姓' 등과 같은 동사들을 [-종결]의 자질을 가진 정태(静态)동사로 분류했다. 둘째는 '坐', '爱', '病'과 같은 동사에 '了'를 부가했을 경우 시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종료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고는 이러한 동사의 경우 '了'를 부가하여 어떤 상황(또는 행위)의 종료를 나타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坐', '病'과 같은 동사의 뒤에 '了'를 부가할 경우 새로운 상황의 시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종료를 나타낼 수는 없다.

다음으로 胡裕树 · 范晓(1995)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동사가 내포하고 있는 동태성의 자질을 기준으로 중국어 동사를 크게 정태와 동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그들의 분류에 따르면 [-동태]의 자질을 공유하는 정태동사에는 속성 및 관계동사, 심리동사, 자세동사, 위치동사가 속하며 [+동태]의 자질을 공유하는 동태 동사에는 동작동사와 결과동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의 특징은 '住' '站' '拿' '挂' 등과 같은 자세 및 위치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동적인 행위보다는 정적인 상태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死' '醒' '爆炸'와 같은 동사들도 내부구조 속에 순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아래는 胡裕树 · 范晓(1995)가 제시한 동사 분류표이다.

[표3-6] 胡裕树 · 范晓(1995: 171)의 동사 분류

정태	속성 및 관계	是, 姓, 等于	
	심리	知道, 相信, 抱歉, 怕	
	자세	住, 站, 坐, 躺, 蹲	
	위치	拿, 挂, 吊, 戴, 抱	
동태	동작	순간	踢, 砍, 碰, 咳嗽
		지속	看, 吃, 想, 洗澡
	결과	순간	死, 醒, 见, 爆炸
		지속	变化, 长大, 走进

본고는 胡裕树 · 范晓(1995)의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첫 번째는 자세동사와 위치동사를 속성 및 관계동사, 심리동사와 함께 정태동사로 분류한 점이다. 중국어의 자세동사와 위치동사는 예문 (4)와 같이 중첩과 'V一下'의 형식에 쓰여 동작의 반복 횟수가 적거나, 지속 시간이 짧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속성 및 관계동사, 심리동사는 일반적으로 중첩이 불가능하며 'V一下'의 형식으로 쓰일 수 없다.[37] 또한, 자세동사와 위치동사는 명령문에 쓰일 수 있지만, 속성 및 관계동사, 심리동사는 일반적으로 명령문에 쓰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자세동사와 위치동사는 속성 및 관계동사, 심리동사들과 서로 다른 자질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본고는 자세동사와 위치동사를 기타 정태동사들과 따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38]

37) 심리동사 중에도 중첩과 'V一下'의 형식에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드물게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동사를 심리-활동동사로 분류하였으며, 또 일부는 동작동사로 분류하였다.

38) 자세동사와 위치동사에 대해 左思民(2009)은 강활동-상태동사로 분류하였으며 杨素英(2000)은 동작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 a. 埃玛的房间就一直空着，只是人来得太多时，偶尔住一住。（克拉林，『庭长夫人』)
엠마의 방은 계속 비어 있고, 다만 사람이 너무 많이 올 때만 가끔 사용해요.
a'. 我们的少妇人病了，想在你们这里住一下。（鬼谷子，『还原灵功』)
우리 작은 마님이 병이 나서 여기에서 좀 지내고자 해요.
b. 帮他们拿拿乐器、搬搬凳子等，忙得屁颠儿的。（『人民日报』, 2000年)
그들을 도와 악기도 나르고, 의자도 옮기느라 매우 바빠요.
b'. 帮我拿一下!
좀 들어줘요!

두 번째는 '死', '醒', '见', '爆炸'를 모두 [+동태]의 자질을 내포하는 결과-순간동사로 분류한 점이다. '见'은 나머지 동사들과는 달리,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쓰일 수 있다.[39] 또한, 의미적으로 '见'은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도 포함되지만, 나머지 동사들은 행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의 출현과 함께 즉각적으로 변화된 상태만을 나타내므로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 결과나 상태 변화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死', '醒', '爆炸'와 '见'을 따로 구분하여 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杨素英(1998)은 동태성, 시간경계성, 종결성, 결과성에 근거하여 동사를 상태(状态), 활동(动作), 시간경계-활동(有时限动作), 결과지향(结果指向) 및 결과실현(结果实现)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상태동사는 '姓', '喜欢', '有' 등과 같이 [-동태], [-시간경계],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이며 활동동사는 '跑', '看', '按' 등과 같이 [+동태], [-시간경계],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이다. 시간경계-활동동사는 '敲', '咳嗽', '跳' 등과 같이 [+동태], [±시간경계],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이며 단독으로 쓰일 경우 [-시간경계]의 자질을 갖지만, '咳嗽了一上午'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경계]를 나타내므로 [±시간경계]로 표기하였다. 결과지향동사에는 '放', '发明', '吃' 등과 같이 [+동태], [+시간경

39) '醒'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일반적으로 '醒'은 자동사로서 비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지만, 다른 사람을 깨울 때만 중첩과 'V 一下'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 [±결과]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이 속하며 이러한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어떠한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 a 这本书看了一年了，还没看完。(持续)
이 책은 1년 동안 보았지만, 아직도 다 보지 못했어요.
b. 这场戏看了一年了，还记得很清楚。(完成)
그 연극은 본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우 생생하게 기억나요.
(杨素英, 1998: 11)

예를 들어 위의 예문 (5.a)와 (5.b)에서 '看了一年了'와 같이 뒤에 수량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동사구가 나타내는 의미는 [-종결]일 수도 있고, [+종결]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실현동사에는 '毁', '死', '忘' 등과 같이 [+동태], [+시간경계], [+결과]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이 속한다.

이후 杨素英(2000)은 [+시간경계]와 [+결과]는 모두 경계(界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태성, 시간경계성, 결과실현성의 세 가지 자질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표3-7] 杨素英(2000: 95)의 동사 분류

동사 유형	동작류의 특징	예
상태동사	[-동태], [-시간경계]	爱, 相信, 像, 住, 高兴
활동동사	[+동태], [-시간경계]	跑, 笑, 按, 推, 散步
시간경계-활동동사	[+동태], [±시간경계]	敲, 闪, 眨眼, 咳嗽, 跳
결과지향동사	[+동태], [-결과실현]	修, 造, 写, 喝, 想象
결과실현동사	[+동태], [+결과실현]	死, 忘, 赢, 到, 毁

본고는 杨素英(2000)의 분류에서 다음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住'와 같은 동사를 상태동사에 포함시킨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住'는

다른 상태동사들과는 달리 중첩, 'V一下'의 형식에 모두 쓰일 수 있으므로 활동동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두 번째는 시간경계-활동동사의 자질을 [±시간경계]로 정한 점이다. 이유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논할 때 동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상적 자질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며 시량보어를 추가할 경우 당연히 동사구의 상황유형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시간경계-활동동사의 자질을 [-시간경계]로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死', '忘'과 같은 동사들도 [+동태]의 자질을 내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고는 이러한 동사들이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쓰일 수 없으므로 [-동태]의 자질을 내포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은수(2009)의 상황유형 분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Tai(1984), 邓守信(1986), 陈平(1988), 杨素英(2000) 등의 분류를 바탕으로 중국어의 동사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3-8] 이은수(2009: 19)의 동사 분류

상황유형 (situations)	Dynamic	Durative	Telic
상태 (state)	[-]	[-]	[-]
동작 (activity) (순간(semelfactive) 포함)	[+]	[+]	[-]
결과 (result)	[+]	[-]	[+]
점진적 변화 (complex change)	[+]	[+]	[+]

이은수(2009)의 연구에는 각 상황유형에 해당하는 예시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상태'와 '결과'라는 개념은 Tai(1984)의 견해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며 '점진적 변화'는 陈平(1988)의 견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수용한 Tai(1984)의 분류에서 결과 상황유형의 예로 들고 있는 '死'는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쓰일 수 없으므로 동태(dynamic)의 자질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그는 '순간'을 '동작'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杨素英(2000)의 견해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杨素英(2000)

의 분류를 보면 순간동사와 동작동사를 완전히 하나의 부류로 통합한 것은 아니며 순간동사가 '咳嗽了一上午'와 같이 쓰이는 경우 [+시간경계]를 나타내므로 동작동사와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중국어의 동사를 상적 자질에 따라 분류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3.2.2에서 중국어의 동사를 재분류하고자 한다.

3.2.2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 재분류

본 절에서는 이은경(2021)에서 검증한 분류 기준과 방식을 바탕으로 현대중국어의 동사를 동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자질로써 상태, 동작, 달성 및 성취의 네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동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세 자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동태성은 동사가 동적인지, 정적인지를 구분하는 자질이다. 이러한 자질을 공유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첩과 'V一下'의 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 중첩과 'V一下'의 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자주(自主)동사이며,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은 명령문의 형식에도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속성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순간적인지, 지속적인지를 판단하는 자질이다. 의미적으로 순간적인 행위를 나타내거나, 사건의 발생과 함께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지속]의 자질을 내포하며 그렇지 않은 동사는 [+지속]의 자질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축의 어느 시점이나, 어느 구간에서도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 상황이 계속 유지됨을 의미하는 상태동사는 모두 [+지속]의 자질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종결성은 동사의 의미 속에 행위의 결과나 상태의 변화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자질이다. 동사의 의미 속에 행위로 인한 어떤 결과나 상태의 변화가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동사는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사는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

Smith(1994: 19)는 영어의 동사 중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는 내부구조 속에 반드시 자연 종점을 포함하지만,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는 임의의 종점

을 포함함을 밝혔다. 본고는 그의 이러한 분석이 중국어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현대중국어에서 동사의 뒤에 시량보어(时量补语)가 출현하는 경우 행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等了三天了'는 행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지만, '买了三天了'는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看了三天了'는 문맥에 따라 행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 본고는 '买了三天了'가 동작이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买'의 내부구조 속에 자연 종점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等了三天了'가 동작의 지속 시간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等'의 내부구조 속에 임의의 종점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같은 맥락으로 '看了三天了'가 문맥에 따라 동작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완료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은 '看'이 쓰이는 문맥에 따라 자연 종점을 포함할 수도 있고, 임의의 종점을 포함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어의 '买'는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看'과 '等'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동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세 가지 자질에 근거하여 현대중국어의 동사를 동작, 상태, 달성, 성취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며 각 유형의 동사들이 내포하는 특징과 자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내부구조 속에 어떠한 상태의 변화나, 행위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지 않으며 시간축의 일정 구간에서 특정 상황이 계속 유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상태동사는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 상태 상황유형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대표적인 동사에는 '喜欢', '爱', '相信'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형용사도 상태 상황유형에 속한다.[40]

둘째, 동작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내부구조 속에 행위로 인한 어떠한 결과나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40) Chao(1968: 663), 马庆株(1992: 21), 陈昌来(2003: 56)를 비롯한 많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의 형용사는 술어의 중심어로 쓰일 수 있고, '不'로 부정할 수 있으므로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邓守信(1985), 杨素英(2000: 95), 左思民(2009) 등의 상적 자질에 따른 동사 분류에 따르면 중국어의 형용사는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됨을 의미하므로 상태 상황유형에 속한다.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이은경(2021)은 동작 상황유형을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강지속, 약지속, 비지속의 세 부류로 구분하였다. 우선 강지속동사에는 '等', '找' '盯' 등과 같이 지속성이 강한 동사들이 속하며 약지속동사에는 '看', '做', '写' 등과 같이 지속성이 약한 동사들이 속한다.[41] 동사가 내포하고 있는 지속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42]

(6) a. 我等她等了一年了。
저는 그녀를 1년 동안 기다렸어요.
b. 这本书看了一年了，还没看完。
이 책은 1년 동안 보았지만, 아직도 다 보지 못했어요.
c. 那场戏我已经看了一年了，还记得很清楚。
그 연극은 제가 본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해요.

위의 예문을 보면 (6.a)에서 '等'의 뒤에 시량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행위의 지속 시간만을 나타내지만 (6.b)와 (6.c)에서 '看'의 뒤에 시량보어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행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 '看了一年了'가 '等了一年了'와 달리 동작의

41) 사실상 강지속동사와 약지속동사는 모두 [+지속]의 자질을 내포하므로,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강지속동사와 약지속동사를 따로 구분한 이유는 동사의 지속성이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문 (7)을 보면 '等', '盯' 등과 같은 강지속동사는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 반면, 예문 (8)의 '看' '学' 등과 같은 약지속동사는 '是…的'의 형식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7) a. *朋友是{现在/明天…}等的。
b. *警察是上周盯的他。
(8) a. 这本书是昨天看的。
이 책은 어제 봤어요./이 책은 어제 본 것(책)이에요.
b. 这首歌是小时候学的。
이 노래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이 노래는 어렸을 때 배운 노래예요.

42) 동사의 지속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马庆株(1992: 3-7)를 참고하였다.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은 '看'이 '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구조 속에 조금 더 뚜렷한 종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看了一年了'가 행위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무언가를 보는 행위가 1년 동안 쉼 없이 일관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等了一年了'는 1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위가 일관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看'류와 '等'류는 모두 [+지속]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작동사이지만, 지속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看'류가 '等'류에 비해 [+지속]의 자질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지속동사의 경우 '是T前V完的'의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강지속동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43]

(9) a. 看了三天了 → 是三天前看完的
b. 做了三天了 → 是三天前做完的
c. 写了三天了 → 是三天前写完的
(10) a. 等了三天了 → *是三天前等完的
b. 睡了三天了 → *是三天前睡完的
c. 坚持了三天了 → *是三天前坚持完的

다음으로 비지속동사에는 '碰', '眨(眼)', '咳嗽' 등과 같이 지속의 자질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순간동사들이 속한다. 비지속동사는 의미적으로 순간적인 행위나 사건의 출현만을 나타내므로, 내부구조 속에 지속 구간과 종점이 포함되지 않으며 행위로 인한 어떠한 결과나 상태의 변화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지속동사는 시량보어와 공기할 경우 동작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 없으며 순간적인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됨을 나타낸다. 이 경우 전체 동사구는 [+지속]을 나타내는 다중-사건 동작 상황유형으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본고는 동작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고 본다.

셋째, 달성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의미적으로 사건이 종점에 도달하여 어떤 결과, 또는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며 내부구조 속에 사건의

43) 'T'는 시간 표현을 의미하며 'V'는 동사를 의미한다.

결과나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건 종료 전까지의 지속 구간도 포함한다. 따라서 달성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자연 종점이 반드시 포함되며, ‘V了+시량보어+了’에 출현할 경우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시간만을 나타낸다. 또한, 달성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달성 상황유형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모두 포함하며 대표적인 동사에는 ‘来/去’, ‘买’, ‘见’ 등이 속한다. Smith(1994: 263-296)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吃饱’, ‘写完’, ‘走进’, ‘跑出来’ 등과 같이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부가된 동사구는 동작의 과정과 결과로 구성되므로 달성 상황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성취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행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의 발생과 함께 즉각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의미하며 달성 상황유형과는 달리, 선행 단계가 비록 변화된 상황에 관련되어 있어도 사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성취동사와 비지속-동작동사는 모두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성취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행위의 결과로 인한 상태의 변화가 포함되지만, 비지속-동작동사의 내부 구조속에는 어떠한 결과나 변화도 포함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 행위로 인한 결과나 변화가 포함된다는 것은 자연 종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성취동사인 ‘丢’는 내부구조 속에 자연 종점이 존재하므로 ‘V了+시량보어+了’에 출현할 경우 변화가 발생한 이후의 지속 시간만을 나타내지만, 순간동사인 ‘咳嗽’의 경우에는 다중-사건 동작 상황유형으로 파생되어 순간적인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11) a. 我的书包丢了好几天了，还没找着。
제 책가방을 잃어버린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b. 他都咳嗽了好几天了，还没去医院看看。
그는 기침을 며칠 동안이나 했는데, 아직도 병원에 안 갔어요.

성취 상황유형과 달성 상황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내부구조 속에 자연 종점을 반드시 포함하므로 ‘V了+시량보어+了’에 출현할 경우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지

속 시간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성취동사는 순간적인 변화나 결과만을 의미하는 반면, 달성동사는 변화나 결과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성취동사는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성취 상황유형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대표적인 성취동사들은 '死', '发现', '毕业' 등이 있다.

본고의 분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9] 본고의 동사 재분류

상황유형 분류		자질	예
상태 상황유형		[-동태], [+지속], [-종결]	喜欢, 好
동작 상황유형	강지속	[+동태], [+지속], [-종결]	等, 找
	약지속	[+동태], [+지속], [-종결]	看, 做
	비지속	[+동태], [-지속], [-종결]	碰, 眨(眼)
달성 상황유형		[+동태], [+지속], [+종결]	来/去, 买
성취 상황유형		[-동태], [-지속], [+종결]	死, 发现

제4장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 및 성분 분석

본 장에서는 코퍼스 자료에 근거하여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44] 본고는 우선, 코퍼스를 통해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분열구문을 추출한 후 분열구문의 유형을 분류할 것이며 유형별로 어떠한 논항이 초점으로 자주 출현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 제시한 동사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각 유형의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분열구문에 자주 출현하는지, 또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출현할 수 없는지, 동사 출현 제약의 원인은 무엇인지, 동사의 어떠한 자질이 ‘是…的’ 분열구문의 시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4.1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BCC(北京语言大学语料库: 베이징어언대학교 코퍼스)의 ‘문학’ 영역에서 ‘是’와 ‘的’가 함께 쓰인 형식 중 ‘的’의 앞에 동사구가 출현하는 예문들을 무작위로 내려받기하였다.[45] 내려받은 예문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a. “混蛋，那凳子，你也配坐？ 那是首长坐的。”(莫言,『会唱歌的强』)
“이놈아, 그 의자, 네가 앉을 자격이 있어? 그건 부대장이 앉는 거야.”
b. “不要问我什么了，我是不会说的。”(王火,『战争和人』)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44) 본고에서 논의하는 분열구문의 유형과 상황유형에 대한 분석은 이은경(2022b)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45) BCC 코퍼스에서 ‘문학’ 영역만을 선택하여 예문을 추출한 이유는 문법적 오류가 있는 문장을 피하고, 문맥적 요소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이다.

c. "你从哪儿得来的？""我是在这儿院子里找到的。"(福克纳,『喧哗与骚动』)
"너 (이거) 어디서 났어?""저는 여기 정원에서 찾았어요."

(1.a)는 명사화구문으로서 '是'가 주요 동사이고 '的'가 중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particle)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那是首长做的凳子'와 같이 '的'의 뒤에 중심어 '凳子'를 복원할 수 있다. (1.b)는 동사에 양태표지가 부가된 경우로서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语气)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이다. (1.c)는 '是…的' 분열구문으로서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내려받은 예문 중 (1.c)와 같이 분열구문으로 쓰인 예문만을 새롭게 추출하였다. 결과, 총 5,082개의 예문을 분석하여 700개의 분열구문을 추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5,082개의 예문 중 700개의 분열구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4,382개는 명사화구문과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예문 중 분열구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46]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a. "马是谁画的?"他问，"谁画了有裂鼻的马?"(奥尔罕·帕慕克,『我的名字叫红』)
"말은 누가 그렸어요?" 그가 물었다. "누가 이렇게 코가 갈라진 말을 그렸어요?"
b. "这小姑娘是从哪儿来的?""一个孤儿。"郭祥叹口气说，"她非跟我来打美国鬼子不可。这可怎么办哪?"(魏巍,『东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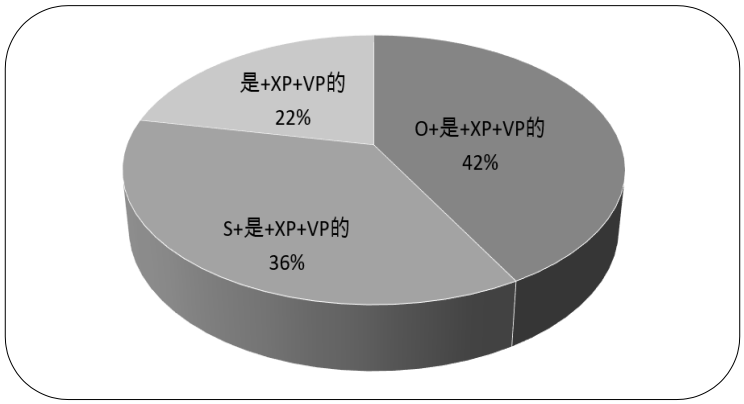
46) 李讷 외(1998)를 비롯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언급했듯이 '是…的' 분열구문은 실제로 서사문(narrative)보다는 대화문(conversation)에서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법적 오류를 피하고 문맥적 요소를 살피기 위해 '문학' 영역만을 선택하여 예문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영화 대본과 같은 대화 영역에서 추출할 경우 분열구문의 출현 빈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소녀는 어디서 왔어요?" "고아예요." 궈샹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애가 꼭 나를 따라 미국놈들을 치러 가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c. "你怎么到这儿来了?" "是妈妈带我来的。" (魏巍, 『东方』)
"네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

예문 (2.a)는 'O+是+XP+VP的'의 형식으로서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2.b)는 'S+是+XP+VP的'의 형식으로서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2.c)는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경우로서 '是+XP+VP的'의 형식이다.

각 유형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4-1]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과 출현 빈도

총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 중 'O+是+XP+VP的'의 유형은 294개로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S+是+XP+VP的'의 유형은 253개 출현하였고, '是+XP+VP的'의 유형은 153개 출현하였다.[47]

47) '是…的' 분열구문을 'S+是+XP+VP 的', 'O+是+XP+VP 的', '是+XP+VP 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문장 형식에 근거한 분류이다. 사실상 '是+XP+VP 的'의 형식으로 쓰인 153 개의 예문 중 문맥적으로 '是'의 앞에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25 개였고,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는 91 개였으며 예문 (2.c)와 같이 어떠

본고는 각 유형의 분열구문에 대해 어떤 논항이 초점으로서 '是'의 뒤에 자주 출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O+是+XP+VP的'의 경우 행위자, 시간, 방식,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다른 논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3) a. "真遗嘱找到了，全部遗产都归养女。""您说什么？ 这假遗嘱是谁造出来的呢？"(果戈里,『死魂灵』)
"진짜 유서를 찾았는데, 유산의 전부를 양녀에게 상속했어요." "뭐라고요? 이 가짜 유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b. 那就是建于唐代的凌岩寺，离我们楚王庄也就三里远，这座寺是公元七百年间修的。(周大新,『湖光山色』)
그건 당대에 세워진 능암사인데, 우리 추왕좡에서 불과 3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사찰은 700년쯤에 세워졌어요.
c. 达尔文有没有解释这种偶然的差异是如何发生的？(乔斯坦·贾德,『苏菲的世界』)
다윈은 이런 우연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d. 它的手续是合法的，公证是在法院办的。(阿瑟·高顿,『死灵魂』)
그곳의 절차는 합법적이에요. 공증은 법원에서 했어요.

예문 (3.a)는 행위자가 초점인 경우이고, (3.b)는 시간 표현이 초점인 경우이며 (3.c)와 (3.d)는 각각 방식과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O+是+XP+VP的'의 유형에 출현하는 다양한 초점 논항 중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으로, 총 294개의 예문 중 96번 출현하였으며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다음은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이 45개로서 15%

한 성분도 생략되지 않은 경우는 37 개뿐이었다.

a. 门房就直截了当地告诉他: "先生，她已经死了，而且是刚刚死的。" → 주어 생략

b. "你这箱子真好, 先生, 肯定是在莫斯科买的吧?" "是在莫斯科买的。" → 목적어 생략

(2.c)와 같이 어떠한 성분도 생략되지 않은 '是+XP+VP 的' 유형이 다른 유형과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3 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의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방식과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각각 44, 40개로서 15%, 14%의 출현 빈도를 보였다. 기타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는 각각 5% 이하로서 행위자, 시간, 방식, 장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이다.[48] 그러나 두 개 이상의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를 ‘행위자+X’, ‘시간+X’, ‘방식+X’, ‘장소+X’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이 출현하는 유형은 ‘행위자+X’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O+是+XP+VP的’의 형식으로 발화할 때 일반적으로 화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알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누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가장 많이 출현함을 알 수 있다. ‘O+是+XP+VP的’의 초점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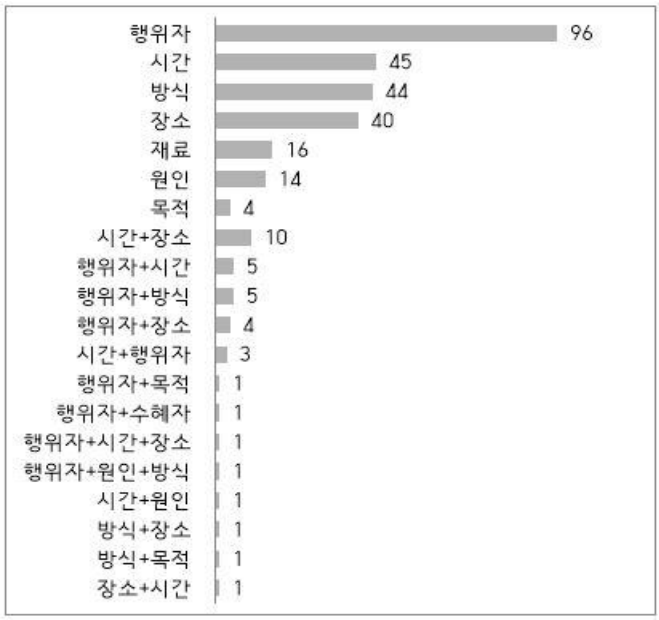
48)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와 동사 사이에 둘 이상의 논항이 출현하는 경우 초점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是’ 바로 뒤의 성분만을 초점으로 보았으며, 또 일부는 ‘是’와 동사 사이에 출현하는 성분을 모두 초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아래와 같은 대화 상황을 가정해 보자.

A: 春节期间火车票很难买，你的票是怎么买到的？
설날 연휴 기간에는 기차표를 사기 힘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샀어요?

B: 是我哥哥三个月之前在网上买的。
저의 오빠가 3 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구매했어요.

예문 (B)를 보면 ‘是’의 뒤에 행위자,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출현하며 ‘표를 샀다’는 내용은 문맥상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是’와 동사 사이에 출현하는 세 개의 논항이 모두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고는 ‘是’와 동사 사이에 둘 이상의 논항이 출현하는 경우 모두 초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2.1.2 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고의 ‘논항 초점’이라는 용어는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와 동사 사이에 출현하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과 같은 성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고는 ‘是’와 동사 사이에 둘 이상의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를 다중 논항-초점 구조로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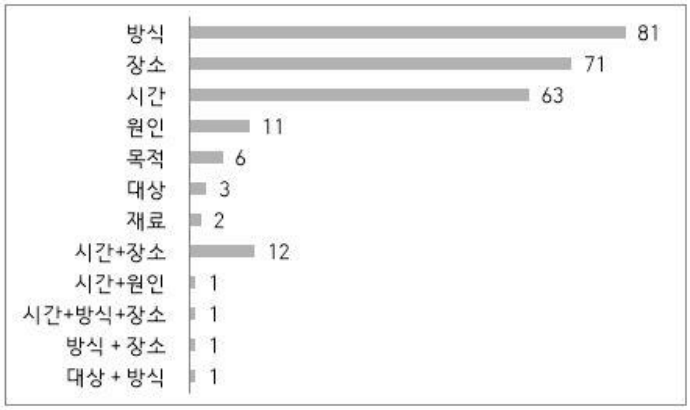
[그림4-2] 'O+是+XP+VP的'의 초점 논항

다음으로 'S+是+XP+VP的'의 경우 방식,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이 다른 논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4) a. 看见死人，却不明白他们是怎么死的。（老舍,『鼓书艺人』)
죽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b. 哎呀，先生，您后背和腰上全是泥，像个老母猪！您是从哪儿弄的？
(阿瑟·高顿,『死灵魂』)
어머, 선생님, 등과 허리에 모두 진흙이 묻었어요. 마치 늙은 암퇘지 같아요. 어디서 묻히셨어요?
c. 亨利是今天上午见到她的。（简·奥斯汀,『曼斯菲尔德庄园』)
헨리는 오늘 오전에 그녀를 보았어요.

예문 (4.a)는 방식이 초점인 경우이고, (4.b)는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인 경우이며 (4.c)는 시간 표현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초점 성분의 출현 빈도는 아래와 같다. 총 253개의 예문 중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예문은 81개로서 32%를 차지했으며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은 71개로서 28%를 차지했고,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은 63개로서 25%의 출현 빈도를 보였다. 또한, 원인, 목적, 대상 등을 비롯한 나머지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는 모두 5% 이하의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두 개 이상의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에는 시간 표현과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유형이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S+是+XP+VP的'의 형식으로 발화할 때 일반적으로 화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어떻게', '어디서', '언제'에 대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S+是+XP+VP的'의 초점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4-3] 'S+是+XP+VP的'의 초점 논항

마지막으로 '是+XP+VP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O+是+XP+VP的'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행위자, 장소, 시간,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다른 논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5) a.“那天你不是赶集去了吗?”“莫非不能同时既赶集又买地吗? 我赶集去了，是我的管家去买的。”(阿瑟·高顿,『死灵魂』)

"그날 당신은 장 보러 가지 않았나요?" "설마 동시에 장도 보고, 땅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장 보러 갔었지요. 우리 집사가 가서 샀어요."

b. 为什么这种香味使人闻了有点回肠荡气呢？ 是从哪里吹来的? (约翰·高尔斯华绥,『福尔赛世家三部曲』)
이런 향을 맡으면 왜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는지요? 어느 쪽에서 날아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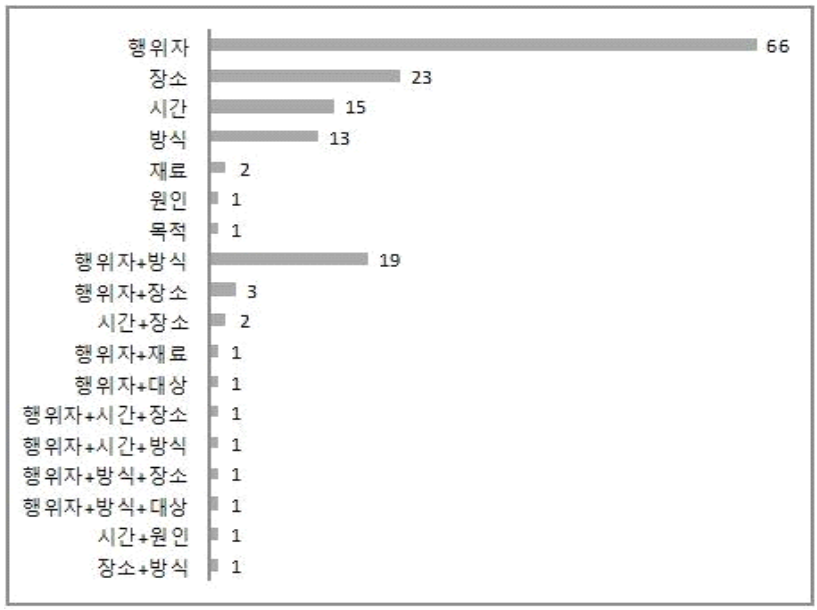
c. 那孩子跑了，是清早跑的。他不愿意在这儿待。 (帕特里克·怀特,『人树』)
그 애는 도망갔어요. 새벽에 나가 버렸어요. 그는 여기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d. 我还不大相信你真的那样傲了。是怎么干的？他们对你搞逼供信啦?(塞林格,『九故事』)
저는 아직도 당신이 그렇게 꼿꼿이 맞섰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강제로 자백을 받아냈어요?

예문 (5.a)는 행위자가 초점인 경우이고, (5.b)는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인 경우이며 (5.c)와 (5.d)는 각각 시간 표현과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是+XP+VP的'의 유형에 출현하는 초점 성분의 출현 빈도는 아래와 같다. '是+XP+VP的'의 다양한 초점 논항 중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다. 즉,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는 다른 논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153개의 예문 중 66개로서 43%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출현하는 경우가 23개로서 15%의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시간,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15개, 13개로서 각각 10%, 9%의 출현 빈도를 보였다. 그 외의 나머지 논항들은 매우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두 개 이상의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행위자와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이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를 '행위자+X', '시간+X', '장소+X'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중 '행위자+X'의 유형이 다

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XP+VP的'의 형식으로 발화할 때 일반적으로 화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是+XP+VP的'의 경우 'O+是+XP+VP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논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是+XP+VP的'의 초점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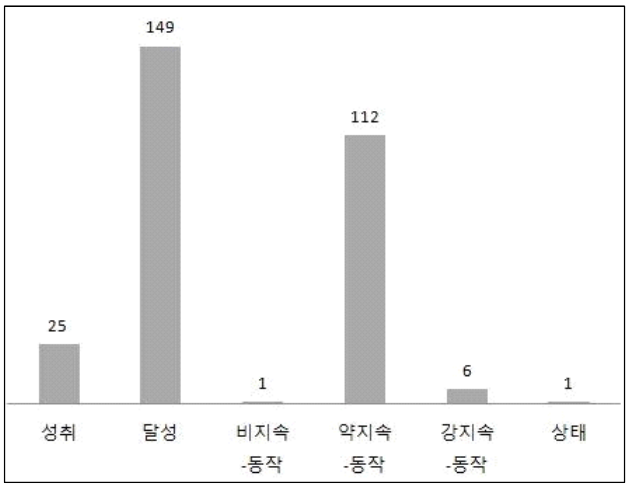
[그림4-4] '是+XP+VP的'의 초점 논항

지금까지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과 초점 논항의 유형 및 출현 빈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是…的' 분열구문은 'O+是+XP+VP的', 'S+是+XP+VP的', '是+XP+VP的'로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세 가지 유형의 분열구문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O+是+XP+VP的'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是+XP+VP的'이다. 셋째, 유형별 초점 논항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O+是+XP+VP的'의 경우 행위자, 시간, 방식,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S+是+XP+VP的'의 경우에는 방식,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의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았

다. '是+XP+VP的'의 경우에는 행위자, 장소, 시간,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다른 논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행위자와 방식을 나타내는 두 논항이 함께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또한, 'O+是+XP+VP的'와 '是+XP+VP的'의 두 경우 모두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논항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4.2 'O+是+XP+VP的'와 동사의 상황유형

이번 절에서는 분열구문의 세 가지 유형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4.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 중 'O+是+XP+VP的'의 형식으로 쓰인 예문은 총 294개이다. 그중 가장 많이 출현한 동사의 상황유형은 달성동사로서 총 149회 출현하였으며 가장 적게 출현한 유형은 상태동사와 비지속-동작동사로서 각각 1회씩 출현하였다.



[그림4-5]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분류

이은경(2021)에 따르면 『현대한어빈도사전』(『现代汉语频率词典』, 北京语言学院, 1986)에 수록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8,000개의 단어 중 100개의 타

동사를 대상으로 상황유형을 분류한 결과, 상태동사는 19개, 강지속-동작동사는 12개, 약지속-동작동사는 42개, 비지속-동작동사는 5개, 달성동사는 13개, 성취동사는 9개 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가 가장 많은 상황유형은 약지속-동작동사이며, 가장 적은 상황유형은 비지속-동작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지속-동작동사는 다른 유형의 동사에 비해 너무 적게 존재하므로, 사실상 'O+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들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상태 상황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O+是+XP+VP的' 분열구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들이 출현했는지에 대해 상황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출현하는 경우이다. 'O+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는 총 16개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4-1] 'O+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49)]

성취 상황유형	发现[3], 发生[3], 产生[3], 生(孩子)[3], 引起[2], 引发, 丢失, 丢掉(=丢失/遗失), 起(=发生), 瞎(眼睛), 崴(脚), 获得, 爆发, 完成, 创立, 开始

'O+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들은 '发现', '发生', '产生', '生(孩子)'로서 각각 3회씩 출현하였으며 '引起'는 2회 출현하였다.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 1회씩 출현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6) a. "这事是路发现的，是路。"老孟笑起来。"是我发现的，是吧老孟，是我发现的？"(史铁生,『我之舞』)
"이 일은 루가 발견했어요. 루가." 라오멍이 웃었다.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지요, 라오멍? 제가 발견했지요?"

b. "你妻子也曾经失踪过一次？"他问，"我记得那个案子是1966年发生的，对吗？"(伍绮诗,『无声告白』)

49) 본 장에서는 2 번 이상 출현하는 동사의 경우 출현 횟수를 위 첨자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당신 아내도 이전에 한 번 실종된 적이 있지요?" 그는 물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사건이 1966년에 발생했는데, 맞나요?"

c. "我不知您头脑中的这种怪念头是怎么产生的。我们已有四十年的交情了，却还不了解您。" (克拉林,『庭长夫人』)
"저는 당신 머릿속의 그런 이상한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가 40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아직도 당신을 모르겠네요."

d. "这个孩子的爸爸是谁?"娜娜感到这个问题问得突然，沉默了须臾回答道："是一位绅士" "啊! 听说这个孩子是你跟一个泥水匠生的，你还经常遭他毒打哩…" (左拉,『娜娜』)
"이 아이 아빠는 누구예요?" 나나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신사예요." "아! 제가 듣기로 이 아이는 당신과 어떤 미장이가 낳았다던데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자주 맞곤 했었다던데요."

다음으로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는 총 97개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4-2]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

달성 상황유형	造成[8], 买[7], 带来[5], 打来[5], 出版[4], 做成[3], 写成[3], 创造[3], 寄出[3], 找到[3], 来(=弄来)[3], 派来[3], 送来[3], 得来[2], 传来[2], 创造出来[2], 发出[2], 发明[2], 弄到[2], 形成[2], 掉下来[2], 提出来[2], 组成[2], 给[2], 铸造[2], 买下来, 买来, 促成, 偷去, 偷来, 养成, 册封, 写来, 凝成, (策划)出笼, 创设, 制成, 制造出来, 剪下来, 发展起来, 取出来, 叫来, 听来, 响起来, 围成, 孕育出来, 学来, 寄到, 寄回来, 寄来, 射来, 带上, 幻想出来, 度过, 开播, 弹出来, 怀下, 成立, 打败, 托生, 抓住, 抓到, 报告上来, 挣来, 掉出来, 提出, 摸出来, 撕开, 新兴起来, 显示出来, 洗干净, 生出来, 生成, 留下, 砍出来, 立(规矩), 练成, 翻过来, 获取, 解决, 讲定, 说出, 说出来, 购买, 贴出来, 蹦出来, 达成, 迎来, 运过来, 送, 送去, 选举出来, 递进来, 造出来, 锁住, 领去, 飘进来

[표4-2]를 보면 대부분이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부가된 동사구이다.[50] 또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造成’ ‘买’ ‘带来’ ‘出版’으로서 각각 4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做成’, ‘写成’, ‘创造’, ‘寄出’, ‘找到’, ‘来(=弄来)’, ‘派来’, ‘送来’는 3회씩 출현한 동사들이다. 또한, ‘得来’ ‘传来’ ‘创造出来’ ‘发出’ ‘发明’ ‘弄到’ ‘形成’ ‘掉下来’ ‘提出来’ ‘组成’ ‘给’ ‘铸造’는 각각 2회 출현하였으며 나머지 동사들은 1회씩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7) a. 这是无可争辩的事实，罪有应得的厄运，不过，这些厄运是谁造成的?
(夏多布里昂,『墓畔回忆录』)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재앙이에요. 근데, 이런 재앙은 누가 초래했지요?

b. 记得这夹克是1971年买的。1971年越南战场仍在交火，当时所有的人都留长发穿脏鞋，都听神经兮兮的流行音乐。(村上春树,『世界尽头与冷酷仙境』)
이 재킷은 1971년에 산 것으로 기억하는데, 1971년에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때라,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기르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이상한 팝송을 들었어요.

c. 这时牧羊人墨兰透斯对他们说：“我曾经见过这个乞丐，他是牧猪人带来的！”“你为什么把他带到这里来？难道我们这里流浪人还嫌不多吗？”(古斯塔夫·施瓦布,『希腊神话：奥德修斯的故事』)
이때 양치기 무란토쓰가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전에 그 걸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당신은 왜 그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설마 여기 있는 떠돌이들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d. 他说愤怒就象葡萄一样在他们的心头生长、成熟，一串串沉甸甸的，等待着收获时期的来临。这“收获时期”指的就是革命。≪愤怒的葡萄≫是1939年出版的。一出版就引起了美国各个阶层十分强烈的反响。 (约翰·斯坦贝克,『愤怒的葡萄』)

50) 본고는 3 장에서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부가된 동사구는 의미상 동작의 과정과 결과로 구성되므로 달성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분노는 포도송이처럼 마음속에서 자라고 익어가며 송이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수확할 때를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이 "수확 시기"는 혁명을 가리켜요. 『분노의 포도』는 1939년에 출판되었고, 출판되자마자 미국 여러 계층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음은 약지속-동작동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는 총 50개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4-3] 'O+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약지속-동작 상황유형	写[23], 说[13], 做[9], 画[5], 干[5], 选[3], 拍(照)[3], 宣布[3], 搞[2], 介绍[2], 作[2], 修[2], 建[2], 挖[2], 付(钱), 准备, 制造, 刻, 办, 升, 印, 印刷, 取(名字), 叮, 处理, 定做, 害, 建造, 拍摄, 捡, 掘, 撕, 收拾, 收集, 救, 整(=搞/弄), 杀, 染(颜色), 治, 洗印, 演出, 照(相), 签订, 绑, 绘制, 编, 让演, 读, 选举, 造

'O+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중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写'로서 총 23회 출현하였으며 '说', '做', '画', '干'은 5회 이상 출현하였다. 또한, '选', '拍(照)', '宣布'는 각각 3회 출현하였으며 '搞', '介绍', '作', '修', '建', '挖'는 2회씩 출현하였고 나머지 동사들은 1회씩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8) a. 抬起头来时，赫然看到对面黑板上的字。"后面黑板上的字是谁写的?"我忍不住大吼，当然没有人响应。(万城目学,『鹿男』)
머리를 들었을 때 맞은편 칠판의 글을 보고 놀랐다. "뒤쪽 칠판의 글은 누가 썼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질렀지만, 당연하게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b. "不过有人告诉我，说您趁一千多个农奴呢。"奇奇科夫谦虚地指出："这是谁说的？谁说这话，先生，您就该当面唾他一口！" (阿瑟·高顿,『死灵魂』)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천 명 넘는 농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치치코프는 겸손하게 지적했다. "누가 말했나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선생, 반드시 면전에서 반박을 해야지요."

c. "上帝给她一张脸，她能另造一张出来。" "女人是水做的，是活水，不是止水，女人善哭。" (梁实秋,『雅舍菁华』)
"하늘이 그녀에게 하나의 얼굴을 주면, 그녀는 다른 얼굴을 만들어내지요." "여자는 물로 만들었어요. 흐르는 물, 고인 물이 아니라, 여자는 잘 울지요."

d. "这花饰是谁画的？这么好！" 马尼洛夫问。"是您?" "是内子。" (阿瑟·高顿,『死灵魂』)
"이 장식은 누가 그렸어요? 너무 예쁘네요." 마닐로프가 물었다. "당신인가요?" "안사람이에요."

다음으로 'O+是+XP+VP的'에 출현하는 강지속-동작동사는 총 4개이며 아래의 표와 같다.

[표4-4] 'O+是+XP+VP的'에 출현하는 강지속-동작동사

강지속-동작 상황유형	开(会)[2], 进行[2], 找, 举行

[표4-4]를 보면 강지속-동작동사의 경우 '开(会)', '进行'은 2회씩 출현했으며 '找', '举行'은 각각 1회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9) a. "会不会他有什么事瞒着你了？" "这个汉奸们的会是八月二十八号开的。那天和以后的日子，他从来没有出去过，也没有人来找过他！" (王火,『战争和人』)
"그가 당신에게 뭔가 숨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매국노들의 회의는 8월 28일에 열렸어요. 그날부터 그는 밖에 나간 적이 없고, 그를 찾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b. 这丝毫不意味着爱·菲是一个骗子，丝毫不意味着他不诚实，他那些账

单不过是"缓期支付"而已，就像英国欠美国的债一样。他的种种计谋都是在光天化日之下进行的，都是坦坦荡荡的。（斯蒂芬·里柯克,『我的了不起的叔叔』）

이것은 앨리스가 사기꾼이 절대 아님을 의미하며 그가 솔직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계산서들은 다만 영국이 미국에 빚을 진 것처럼 "지불 유예"일 뿐이에요. 그의 각종 계략은 모두 백주 대낮에 이루어졌고, 거리낌이 없었어요.

c. 在加德满都呆上一段时间就不再想到热地方去了。这房子是狄克找的，是他朋友的别墅。（村上春树,『舞！舞！舞！』）

카트만두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나니 열대지방으로 가기 싫어졌어요. 이 집은 디크가 구했는데, 그의 친구의 별장이에요.

d. "这个花瓶是克莱姆叔叔的遗物。克莱姆的葬礼是在战争刚结束那会儿举行的，与其说是葬礼，不如说是重葬仪式。"那时的情景塞西莉娅历历在目。（伊恩·麦克尤恩,『赎罪』）

"이 화병은 크래머 삼촌의 유품이에요. 크래머의 장례식은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치러졌는데, 장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안장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때의 상황이 세실리아의 눈에 선하다.

마지막으로 비지속-동작 상황유형과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4-5]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

비지속-동작 상황유형	抓拍
상태 상황유형	知道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는 각각 1개로서 '抓拍'와 '知道'이다.[51] 아래는 두 유형의 동사가 출현하는 예문이다.

51) 본고의 동사 분류 기준에 따르면 비지속-동작동사는 순간적인 행위나 사건의 출현만을 나타내며 이러한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행위로 인한 어떠한 결과나

(10) a. 在报纸上刊登过两次广告，广告上和书的封面并排着配上她的小照片。那件眼熟的紧身夏季薄毛衣，形状美丽的胸脯大概是记者见面会时抓拍的。（村上春树,『1Q84』)
신문에 두 차례 광고가 났었고, 광고에는 책표지와 함께 그녀의 작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낯익은 몸에 붙는 여름 스웨터와 예쁜 형태의 가슴은 아마도 기자회견 때 찍은 것 같아요.

b. 菲尔比是1961年1月从贝鲁特叛逃过去的。当然，这是事后才知道的，可是在情报处内部却闹得不可开交，调动了好多人。（弗·福赛斯,『豺狼的日子』)
필비는 1961년 1월에 베이루트에서 도망갔어요. 물론, 이건 사건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정보국 내부는 난리가 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어요.

지금까지 'O+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였다. 해당 유형에 출현하는 동사는 총 169개이며 그중 성취동사는 16개, 달성동사는 97개, 강지속-동작동사는 4개, 약지속-동작동사는 50개,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는 각각 1개씩 출현하였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어의 동사 중 비지속-동작동사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상 'O+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들 중 제약이 가장 큰 유형은 상태 상황유형이며 그 다음은 강지속-동작 상황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경(2021)의 분석 결과와도 잘 부합된다. 아래는 이은경(2021: 306)에서 제시한 표이다.

변화도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구조 속에 어떠한 결과나 변화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 종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동사들이 'V了+시량보어+了'의 형식에 출현할 경우 다중-사건 동작 상황유형으로 파생되며 순간적인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음을 나타낸다. 예문 (10.a)의 '抓拍'는 '어떤 상황을 순간 포착하여 사진을 찍다'의 의미로서 비지속-동작동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량보어와 결합할 경우 '我都抓拍了好几天了，可是还没拍着。'와 같이 다중-사건 동작 상황유형으로 파생된다.

[표4-6] 동사의 상적 자질과 'O+是+S+VP的'의 시제[52)]

자질	상황유형 분류		예	'O是SV的'의 시제
[+종결]	성취 상황		丢	과거
	달성 상황		放	과거
[-종결]	동작 상황	비지속	敲	과거
		약지속	看	과거/현재
		강지속	等	현재*
	상태 상황		有	현재**

이은경(2021)에 따르면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과 비지속-동작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O+是+S+VP的'의 형식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사들이 출현하는 경우 문장의 시제는 항상 과거를 나타내므로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태동사와 강지속-동작동사들은 'O+是+S+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부 출현 가능한 동사의 경우 '这个颜色是男孩子喜欢的'와 같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를 나타내므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약지속-동작동사의 경우 'O+是+S+VP的'의 형식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는 있지만, 예문 (11)과 같이 문맥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서 분열구문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현재의 반복적인 행위로서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11) a. 这本书是我看的。
이 책은 제가 봤어요./이 책은 제가 보는 것이에요.
b. 这些中药是我吃的。
이 한약들은 제가 먹었어요./이 한약들은 제가 먹는 것들이에요.
c. 这是谁家卖的？
이것은 어느 가게에서 파는 거예요?

52) 'O+是+S+VP 的'는 '这本书是我买的。'와 같은 형식으로서 'O'는 동사(V)의 의미상 목적어를, 'S'는 의미상 주어를 가리킨다. 또한, [표 4-6]에서 '*'는 모든 강지속동사들이 'O 是 SV 的'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동사만 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는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 중 일부 동사들만 특정 조건하에서 'O 是 SV 的'에 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整个商店108万的服装销售额，有80万是她卖的。(『人民日报』, 1999)
백화점 전체의 의류 매출액은 108만 원이며 그중 80만 원은 그녀가 팔았어요.

(이은경, 2021: 296)

따라서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일수록, [+지속]의 자질이 약한 동사일수록 'O+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는 반면,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 중 [+지속]의 자질이 강한 상태동사와 강지속동사들은 'O+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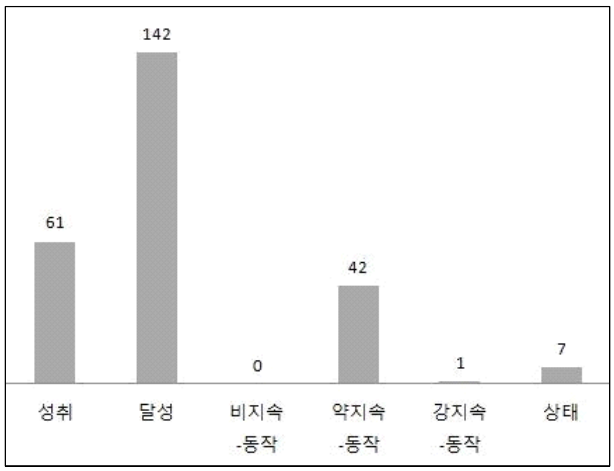
이번 절에서 분석한 294개의 'O+是+XP+VP的' 유형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초점 논항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7] 'O+是+XP+VP的'의 초점 유형과 동사의 상황유형

상황유형 / 의미역	상태	동작			달성	성취
		강지속	약지속	비지속		
행위자		1	52		41	2
시간	1	2	16	1	14	9
방식		1	17		22	6
장소		2	6		30	2
재료			7		9	
원인			2		9	3
목적			3		1	
행위자+시간			2		2	1
행위자+방식			2		3	
행위자+장소			1		3	
행위자+목적					1	
행위자+수혜자					1	
행위자+시간+장소					1	
행위자+원인+방식			1			
시간+장소			2		8	
시간+행위자					2	1
시간+원인					1	
방식+장소					1	
방식+목적			1			
장소+시간						1

4.3 'S+是+XP+VP的'와 동사의 상황유형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 이어 'S+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4.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 중 'S+是+XP+VP的'의 형식으로 쓰인 예문은 총 253개이다. 그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은 달성동사로서, 총 142회 출현하였다. 가장 적게 출현한 유형은 비지속-동작동사로 1회도 출현하지 않았으며, 그다음은 강지속-동작동사로 1회 출현하였다.



[그림4-6] 'S+是+XP+VP的'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분류

앞서 언급했듯이 비지속-동작동사는 다른 유형의 동사에 비해 너무 적게 존재하므로, 사실상 [그림4-6]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강지속-동작 상황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본고는 'S+是+XP+VP的' 분열구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들이 출현했는지를 상황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는 총 27개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4-8]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

성취 상황유형	开始[13], 出生[8], 死[7], 去世[5], 受伤[2], 得知[2], 结婚[2], 分手[2], 过世[2], 不见(=丢失), 出世, 出发, 出海, 出现, 启航, 堕落(出生), 夏员, 失踪, 得救, 抵达, 断, 死亡, 相遇, 离婚, 落地(=出生), 问世, 面世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들은 '开始', '出生', '死', '去世'로서 각각 5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得知', '结婚', '分手', '过世'는 각각 2회 출현하였다.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 1회씩 출현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2) a. 战前伊莲和他曾多次上法国去旅行，那时候佐恩正在私立学校读书。他和伊莲的那段姻缘也是从巴黎开始的。(约翰·高尔斯华绥,『福尔赛世家三部曲』)
전쟁 전 이렌과 그는 여러 차례 프랑스로 여행을 갔었고, 그때 초른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와 이렌의 인연도 파리에서 시작됐어요.

b. "汉斯·汤玛士，你是什么时候出生的?"他忽然问我。我不太明白爸爸的意思。"1972年2月29日。"我回答说。(乔斯坦·贾德,『纸牌的秘密』)
"한스 토마스, 너는 언제 태어났어?"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아빠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1972년 2월 29일이요."라고 대답했다.

c. "那个名字古怪的外国人，他是怎么死的?""他被抓住后自杀的。"(海明威,『丧钟为谁而鸣』)
"그 이름이 이상한 외국인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 죽었어요?" "그는 붙잡히자 자살했어요."

d. 从圣米歇尔女修院出来之后，她是在哪座房子里去世的? (夏多布里昂,『墓畔回忆录』)
생미셸 수녀원에서 나온 이후 그녀는 어느 집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다음으로 달성동사의 경우이다. 'S+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는 총 70개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4-9] 'S+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

달성 상황유형	来[33], 去[11], 回来[7], 到[5], 进来[5], 看到[3], 学来[3], 听来[3], 买[2], 买来[2], 办到[2], 度过[2], 弄来[2], 得来[2], 想出来[2], 见到[2], 走(=离开)[2], 淹死[2], 买到, 离开, 借, 做到, 入党, 冒出来, 出去, 出来, 前去, 加入, 变疯, 叛逃过去, 听到, 听说(=听别人说), 吹回来, 告别, 嫁过来, 射进来, 弄到, 扔下去, 找到, 抓住, 抽掉, 拉上, 掉下来, 摆脱出来, 来到, 死去, 派来, 爬上来, 留下来, 登出, 砍下来, 翻译过来, 自杀, 走去, 赶到, 起床, 起来, 跑出来, 跑去, 跑回来, 转出来, 迁去, 过来, 返回去, 进化来, 进去, 逃去, 逃来, 飞过来, 沉没

[표4-9]를 보면 'O+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부가된 동사구이다. 또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来', '去', '回来', '到', '进来'로서 각각 5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看到', '学来', '听来'는 3회씩 출현하였고 '买', '买来', '办到', '度过', '弄来', '得来', '想出来', '见到', '走(=离开)'는 2회씩 출현한 동사들이다. 나머지 동사들은 1회씩 출현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3) a. "大妈，你是从天上掉下来的，还是从地下钻出来的?""我是叫人家背了来的!"大妈指指小契的破车子，微微一笑。(魏巍,『东方』)
"아주머니,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땅속에서 나오셨나요?" "나는 남의 등에 업혀 왔네" 아주머니는 샤오치의 낡은 차를 가리키며 빙그레 웃었다.

b. "我乘过几回船。"比拉尔说。"去墨西哥和委内瑞拉，我都是乘船去的。""还有呢？"(海明威,『丧钟为谁而鸣』)

"저는 배를 몇 번 타 보았어요." 빌랄이 말했다. "멕시코와 베네수웰라에 갈 때 저는 모두 배를 타고 갔었어요." "그리고요?"

c. "现在正流行病毒性感冒，公交车上最容易传染病毒，你快去洗手，要用肥皂。" "我不用洗手。"他们的儿子将耳机塞到耳朵里，然后说，"我是坐出租车回来的。" (余华,『他们的儿子』)
"지금 바이러스성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버스에서 가장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얼른 손을 씻어, 비누로." "저는 손 안 씻어도 돼요." 아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말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왔어요."

d. 郭祥点点头，满口称赞说："同志，你们这个仗，打得实在太干脆了!" "那是我们离得比较近。"金连长谦逊地说。"你们是什么时候到的?" "今天拂晓，…" (魏巍,『东方』)
궈샹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동지, 이번 싸움을 정말 시원하게 치르셨네요!" "그건 우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 씨 중대장은 겸손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언제 도착하셨어요?" "오늘 새벽에요."

다음은 약지속-동작동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는 총 24개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4-10]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약지속-동작 상황유형	说[11], 搞[4], 写[2], 准备[2], 吃[2], 干[2], 讲[2], 作, 写作, 回应, 回答, 开(车), 弄, 想(问题), 拍(照), 歌颂, 烧, 登陆, 致谢, 花(钱), 表达, 设置, 走(路), 进行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중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说'로서 총 11회 출현하였으며 그다음은 '搞'로서 4회 출현하였다. 또한, '写', '准备', '吃', '干', '讲'은 2회씩 출현하였고 나머지 동사들은 1회씩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4) a. "戎野老师是怎么说的?" "他说明天就去向警察报案，请警方帮忙寻找。" (村上春树,『1Q84』)
"룽예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b. 他对那个标题就有意见，有一次找着我偷偷地说："连长，这个记者是怎么搞的? 来凤是我的未婚妻，怎么倒成了≪志愿军的未婚妻≫啦!" (魏巍,『东方』)
그는 제목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 한 번은 나를 찾아와 몰래 이렇게 얘기했다. "중대장님, 이 기자가 어떻게 했기에 라이펑은 제 약혼녀인데, 어떻게 ≪지원군의 약혼녀≫가 될 수 있는지요?"

c. "我写过信的。"她回说。"写到什么地方？""到你给我的地址。我是三天前写的。" (西奥多·德莱塞,『珍妮姑娘』)
"저는 편지를 썼었어요." 그가 대답했다. "어디로 썼나요?" "당신이 준 주소로요. (저는) 3일 전에 썼어요."

d. "请允许我坐到普通椅子上吧。""请不要推辞。"马尼洛夫微笑着说。"这把圈椅，我是特意为客人准备的。愿意不愿意，您得坐在这里。" (阿瑟·高顿,『死灵魂』)
"제가 보통 의자에 앉게 허락해 주세요."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닐로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안락의자는 제가 특별히 손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당신은 여기에 앉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是+XP+VP的'에 출현하는 강지속-동작 상황유형의 동사는 1개이며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는 총 3개이다.

[표4-11] 'S+是+XP+VP的'에 출현하는 상태동사와 강지속-동작동사

강지속-동작 상황유형	等
상태 상황유형	认识[4], 知道[2], 相识

아래는 강지속-동작동사가 출현하는 예문이다.

(15) "我以为等不到你了。"他说。"我是在那边等的。"休指了指剧院入口。我明白了，还有另外一个入口。(约翰·丹顿,『达尔文的阴谋』)
"저는 당신을 못 보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저는 저기서 기다렸어요." 휴는 극장 입구를 가리켰다. 나는 또 다른 입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태동사의 경우 '认识'는 4회, '知道'는 2회 출현했으며 '相识'는 1회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6) a. 你们是在非洲认识的吗？"“不是的，先生，我们是3个月前在巴黎参加这次任务的集训时认识的。"(埃里奇·西格尔,『唯一的爱』)
"당신들은 아프리카에서 알게 되었나요?" "아니요. 선생님, 저희는 3개월 전 파리에서 이번 임무 관련 합동 훈련 때 만났어요."
b. "喂，你是怎么知道的?"“也没什么，只是凭感觉。"(渡边淳一,『失乐园』)
"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안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됐죠."
c. 记者招待会持续了两小时。"你们是在什么地方相识的？"“你们认识多久了？"“你们打算住在纽约吗？"(西德尼·谢尔顿,『命运之星』)
기자회견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만났나요?" "당신들은 얼마나 만났나요?" "당신들은 뉴욕에 살 예정이신가요?"

지금까지 'S+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였다. 해당 유형에 출현하는 동사는 총 125개이며 그중 성취동사는 27개, 달성동사는 70개, 강지속-동작동사는 1개, 약지속-동작동사는 24개, 상태동사는 3개 출현하였다. 이번 절의 분석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가장 큰 제약을 받는 상태동사들이 3개나 'S+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분석 과정에는 출현하지 않았지만 '认识', '知道', '相识'뿐만 아니라, '明白', '懂' 등도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있다.

(17) 这些道理，我是昨天才明白(懂)的。
이런 이치를 저는 어제서야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认识', '知道', '相识', '明白', '懂' 등과 같은 '알다'류의 동사들은 알고 있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됨을 나타낸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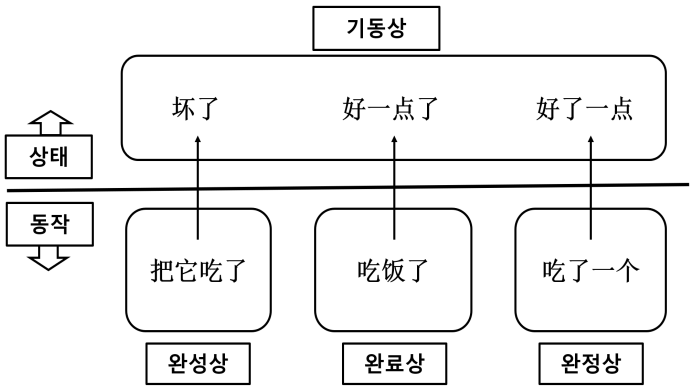
(18) a. 我跟那个人认识。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b. 我知道这件事情。
저는 이 일을 알고 있어요.
c. 我跟他家老板相识。
저는 그 가게 사장님을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은 예문 (19)의 경우에는 '~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19) a. 我在北京认识了一位新的朋友。
저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친구 한 명을 알게 되었어요.
b. 我今天知道了一件事情，这件事情和你有关系。
저는 오늘 어떤 일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은 당신과 관련이 있어요.
c. 我们赴港参加一个文学研讨会，会见相识了不少旧友新朋。 (『人民日报(海外版)』, 2014年01月17日)
우리는 문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에 갔고, 많은 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53) 본고는 '认识', '知道', '相识', '明白', '懂' 등과 같은 동사들을 '알다'류 동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박정구(2016), 박정구 외(2020)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의 뒤에 ‘了$_1$’이나 ‘了$_2$’가 부가되는 경우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을 나타내기 쉬우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了$_1$’과 ‘了$_2$’는 모두 기동상(inchoativ)의 의미를 나타낸다.[54]



[그림4-7] 박정구 외(2020: 251)에서 제시한 ‘了$_1$’, ‘了$_2$’의 상적 의미

본고는 예문 (19)와 같이 ‘알다’류의 상태동사에 ‘了$_1$’이 부가되는 경우 ‘好了一点’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을 나타내므로, 이 경우의 ‘了$_1$’ 역시 기동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또한, ‘알다’류 동사들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계속 유지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알다’류의 상태동사들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경우 ‘的’는 예문 (19)의 ‘了$_1$’과 마찬가지로 기동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55]

---

54) 박정구 외(2020)는 ‘坏了’의 ‘了’는 완성상(completiv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好一点了’의 ‘了’는 완료상(perfect)으로, ‘好了一点’의 ‘了’는 완정상(perfective)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 세 유형의 문법화의 정도는 ‘완성상 < 완료상 < 완정상’의 위계로서, 문법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완성상이며 문법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완정상(了$_1$)이라고 주장하였다.

55)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현재 ‘了$_1$’과 마찬가지로 완정상(perfective)의 기능을 획득하는 문법화의 단계에 있다고 본다. ‘的’의 기능에 대해서는 6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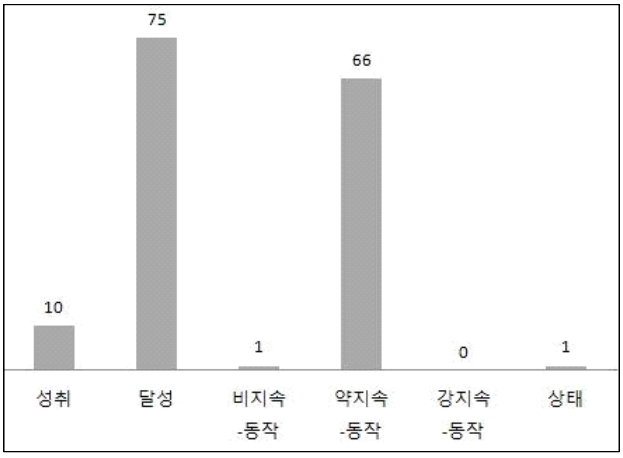
이번 절에서 분석한 253개의 'S+是+XP+VP的' 유형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초점 논항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12] 'S+是+XP+VP的'의 초점 유형과 동사의 상황유형

상황유형 / 의미역	상태	동작			달성	성취
		강지속	약지속	비지속		
방식	1		29		37	14
장소	2	1	2		55	11
시간	2		2		31	29
원인			1		8	2
목적			3		2	1
대상			2		1	
재료			1		1	
시간+장소	2		1		5	4
방식+장소			1			
대상+방식					1	
시간+방식+장소					1	

4.4 '是+XP+VP的'와 동사의 상황유형

이번 절에서는 '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4.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 중 '是+XP+VP的'의 형식으로 쓰인 예문은 총 153개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은 달성동사로서 75회 출현하였으며 가장 적게 출현하는 유형은 강지속-동작동사로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



[그림4-8] '是+XP+VP的'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분류

본고는 '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들이 출현했는지를 상황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는 총 6개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4-13] '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

성취 상황유형	发现[3], 开始[2], 消失[2], 死, 得知, 瞎

'是+XP+VP的'에 출현하는 성취동사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들은 '发现', '开始', '消失'로서 2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 1회씩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20) a. 然而牡蛎怎么样呢？难看得像一口痰，外壳儿也肮里肮脏。要费九牛二虎之力才撬得开。是谁发现的？它们就靠从丢弃的残羹剩饭和下水道的污物长肥的。（詹姆斯·乔伊斯,『尤利西斯』)
그런데 굴은 어떤지 알아요? 가래 덩어리처럼 볼품없고 껍질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세게 힘을 줘야 열려요. 누가 발견했나요? 그것들

은 음식물 찌꺼기와 하수도 오물로 살찐 거예요.

b. 他认准了他的"晴天霹雳"的背后隐藏着一种动人的东西，那东西就叫做"主流社会"。是从什么时候开始的？盲人们一直拥有一个顽固的认识，他们把有眼睛的地方习惯性地叫做"主流社会"。 (毕飞宇,『推拿』)
그들은 "청천벽력" 같은 그의 배경에 무언가 감동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주류 사회"예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맹인들은 항상 완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눈이 있는 곳을 습관적으로 "주류 사회"라고 불렀어요.

c. 因为他寻不到部队指挥官，而他的部队呢，亦无影无踪，天知道是如何消失的! (拜伦,『唐璜』)
그는 부대 지휘관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부대 역시 종적을 감추었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하늘이나 알겠지요!

d. 门房就直截了当地告诉他："先生，她已经死了，而且是刚刚死的。" (左拉,『娜娜』)
경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녀는 이미 죽었어요. 게다가 방금 전에 죽었어요."

다음으로 달성 상황유형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총 54개의 달성동사들이 '是+XP+VP的'에 출현하였다.

[표4-14] '是+XP+VP的'에 출현하는 달성동사

달성 상황유형	来[10], 去[6], 带来[3], 送来[3], 买[2], 寄来[2], 打来[2], 逃跑, 买下来, 买来, 冒出来, 写来, 决定, 创造, 到达, 制造出来, 叫来, 听到, 吹来, 喷射出来, 围上, 培训出来, 引进, 想出来, 想起来, 打开, 找到, 抓到, 抛下, 拆散, 拖去, 招募来, 拿去, 拿来, 捉到, 捡, 掏出来, 撕破, 救出来, 昏倒, 派下来, 派来, 派生出来, 破坏, 脱光, 见到, 解开, 赶出, 跑(=逃跑), 运来, 进入, 送去, 选定, 造成

[표4-14]를 보면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来'로서 10회 출현하였으며 그 다음은 '去'로서 6회 출현하였다. '带来', '送来'는 각각 3회 출현하였으며 '买' '寄来' '打来'는 2회씩 출현하였고 나머지 동사들은 1회씩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21) a. "祖国人民慰问团已经到啦！杨大妈和来凤也来啦！是师长陪着他们来的！"(魏巍,『东方』)
"조국인민위문단이 이미 도착했어요. 양 씨 아주머니랑 라이펑도 왔어요! 사단장님이 그들과 함께 오셨어요!"
b. "是她一个人去的，还是你陪她一块去的？""是我陪她一块去的。"(西奥多·德莱塞,『美国的悲剧』)
"그녀 혼자 갔어요? 아니면 당신이 함께 갔었어요?" "제가 그녀와 함께 갔었어요."
c. "您有裁衣服的样子?""是的，是妹妹带来的。""亲爱的，看在上帝面上，给我看看吧。"(阿瑟·高顿,『死灵魂』)
"당신에게 옷본이 있나요?" "네, 동생이 가져온 게 있어요." "자기야, 하나님을 봐서래도 저한테 좀 보여줘요."
d. 我大概是被拉进了由深绘里和天吾建立的"反小小人运动"的通道里了。是这个运动把我送到这一侧来的。(村上春树,『1Q84』)
저는 아마도 선후이리와 톈우가 설립한 "반소인 운동"의 길에 끌려든 것 같아요. 이 운동이 저를 이쪽으로 오게 하였어요.

다음은 약지속-동작동사의 경우이다. '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는 총 29개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4-15] '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약지속-동작 상황유형	说[12], 写[11], 干[9], 做[4], 照(相)[3], 看[2], 造[2], 害[2], 介绍, 制作, 制造, 剥, 告诉, 奔走, 安排, 庇护, 开(车), 拍(照片), 接(电话), 提, 收拾, 教, 教唆, 杀, 汇报, 绣, 讲, 起(早), 颁布

'是+XP+VP的'에 출현하는 약지속-동작동사 중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说'로서 12회 출현하였으며 그다음은 '写'와 '干'으로서 각각 11회, 9회 출현하였다. 또한, '做', '照(相)'는 각각 4회, 3회 출현하였으며 '看', '造', '害'는 2회씩 출현하였고 나머지 동사들은 1회씩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22) a. ≪福音≫里讲得很清楚。也许是≪圣经≫里说的？ 不，是圣保罗说的。是圣保罗或是圣阿古斯丁纽说的？ (埃萨·德·凯依洛斯, 『马亚一家』)
복음에 명확히 적혀 있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 성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바울, 혹은 성아구스티노가 말한 건가요?

b. "后面黑板上的字是谁写的?"我的视线与坐在我前方的堀田交接。"是你写的?""不是。""那么是谁写的?""不知道。" (万城目学, 『鹿男』)
"뒤쪽 칠판의 글은 누가 썼어?" 나의 시선은 앞에 앉아 있는 호리타와 마주쳤다. "네가 쓴 거야?" "아니요." "그럼 누가 쓴 거야?" "모르겠어요."

c. 金龙训斥莫言："是谁让你这样干的?""是我自己" (莫言, 『生死疲劳』)
진룽은 모옌을 꾸짖었다.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저 스스로 한 거예요."

d. "尝尝!""啥?"丹根有些惊奇。"北京那个老爷爷给的，是用肉做的，香得厉害。" (周大新, 『湖光山色』)
"먹어 봐요!" "뭔데?" 단건은 조금 놀랐다. "베이징의 그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고기로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4-16] '是+XP+VP的'에 출현하는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

비지속-동작 상황유형	撞
상태 상황유형	知道

[표4-16]을 보면 ‘是+XP+VP的’에 출현하는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는 각각 1개로서 ‘撞’과 ‘知道’이다. 아래는 두 유형의 동사가 출현하는 예문이다.

(23) a. “你就是撞车人?”直江问他时，青年像受惊了似的抬起头。“住在哪里?”“是你的车撞的?”(渡边淳一,『无影灯』)
“당신이 사고 낸 사람인가요?” 즈쟝이 질문했을 때 그 청년은 놀란 듯 머리를 들었다. “어디 사세요?” “당신 차가 들이받았나요?”
b. “您错了。我对美国部落情况的了解要比您所想象的了解得多。”“是从其他地方知道的吧，是从报纸和书里知道的吧。”(卡尔·麦,『藏金潭夺宝』)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저는 미국 부족 상황에 대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알게 되었지요? 신문이나 책에서 알게 된 거지요?”

지금까지 ‘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였다. 해당 유형에 출현하는 동사는 총 91개이며 그중 성취동사는 6개, 달성동사는 54개, 약지속-동작동사는 29개, 비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는 각각 1개씩 출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4.2와 4.3의 결과와 동일하다. 즉, ‘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들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달성 상황유형이다. 또한, 비지속-동작동사의 수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하면 ‘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제약을 받는 동사들은 강지속-동작 상황유형과 상태 상황유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종결]의 자질을 갖는 성취 및 달성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자유롭게 ‘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 중 [-지속]의 자질을 갖는 비지속-동작동사와 [+지속]의 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약지속-동작동사들도 ‘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속]의 속성이 강한 강지속-동작동사들은 ‘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으며 상태동사의 경우에도 ‘알다’류 동사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이번 절에서 분석한 153개의 '是+XP+VP的' 유형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초점 논항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17] '是+XP+VP的'의 초점 유형과 동사의 상황유형

상황유형 / 의미역	상태	동작			달성	성취
		강지속	약지속	비지속		
행위자			39	1	24	2
장소	1		6		15	1
시간			5		7	3
방식			4		7	2
재료			2			
원인					1	
목적						1
행위자+방식			6		13	
행위자+장소					3	
행위자+재료					1	
행위자+대상			1			
시간+장소					1	1
시간+원인					1	
장소+방식			1			
행위자+시간+장소					1	
행위자+시간+방식			1			
행위자+방식+장소					1	
행위자+방식+대상			1			

4.5 소결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분열구문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코퍼스 자료를 통해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700개의 분열구문을 추출한 후 분열구문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유형별로 어떠한 논항이 초점으로 자주 출현하는지를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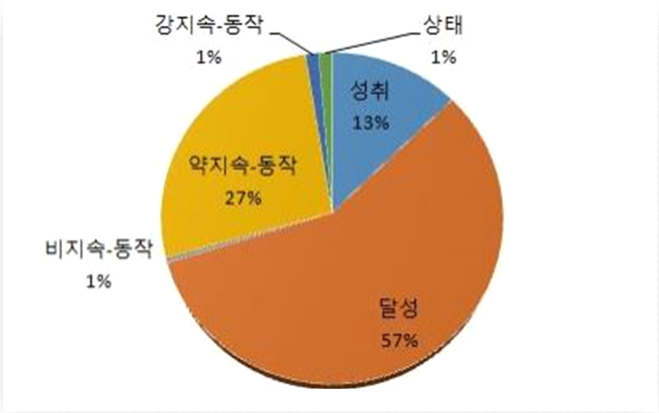
석하였다. 또한, 3장에서 제시한 현대중국어 동사의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분석하였다.[56]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700개의 분열구문을 분석한 결과 ‘是…的’ 분열구문은 크게 ‘O+是+XP+VP的’, ‘S+是+XP+VP的’, ‘是+XP+VP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중 ‘O+是+XP+VP的’의 유형은 294개 출현하였으며 ‘S+是+XP+VP的’의 유형은 253개 출현하였고, ‘是+XP+VP的’의 유형은 153개 출현하였다. 따라서 세 유형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O+是+XP+VP的’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是+XP+VP的’임을 알 수 있었다. ‘O+是+XP+VP的’의 경우 행위자, 시간, 방식,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S+是+XP+VP的’의 경우에는 방식,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의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 ‘是+XP+VP的’의 경우에는 행위자, 장소, 시간,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다른 논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행위자와 방식을 나타내는 두 논항이 함께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또한, ‘O+是+XP+VP的’와 ‘是+XP+VP的’의 두 경우 모두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논항에 비해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들을 분석한 결과 총 385개의 동사가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그중 성취동사는 49개, 달성동사는 221개 출현하였으며 비지속-동작동사는 2개, 약지속-동작동사는 103개 출현하였고 강지속-동작동사와 상태동사는 각각 5개씩 출현하였다. 비지속-동작동사의 수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하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상태 상황유형과 강지속-동작 상황유형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달성 상황유형이다.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별 출현 빈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56) 4.1 에서도 언급했듯이 본고는 문법적 오류가 있는 문장을 피하고, 문맥적 요소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 문학작품에 출현하는 ‘是…的’ 분열구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영화 대본과 같이 구어 성격이 강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4-9]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별 출현 빈도

본고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사의 자질은 종결성과 지속성이라고 판단한다. 즉,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일수록, 지속의 자질이 약한 동사일수록 '是…的' 분열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반면,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 중 지속의 자질이 강한 상태동사들과 강지속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는 것은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 반드시 자연 종점이 포함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달성 및 성취 동사들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쉽게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서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자연 종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속의 자질이 전혀 없는 비지속-동작동사를 제외하면 모두 일정한 지속 구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의 속성이 강한 상태동사와 강지속-동작동사들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제5장 ‘是…的’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

현대중국어에서 ‘是…的’의 형식은 과거뿐만 아니라, 비과거의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1) a. 面包是我吃的，明天我赔你。
빵은 제가 먹었어요. 내일 제가 갚을게요!
b. 面包是我吃的，你别吃！
빵은 제가 먹는 거예요. 먹지 마세요!
(史有为，1984: 253)

예문 (1)에서 ‘面包是我吃的’는 (1.a)의 경우 과거에 이미 실현된 사건을 나타내지만, (1.b)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吕必松(1982), 史有为(1984), 张宝林(1994) 등의 주장에 따르면 예문 (1)과 같은 ‘是…的’의 형식은 상황에 따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다.

본 장에서는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이 어떠한 차이점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은 반드시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므로 시간 표현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과거 시점 표현은 출현할 수 있지만, 비과거 시점 표현은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명사화구문의 경우에는 비과거 시점 표현도 출현이 가능하다. 본고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시점 표현(T)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분열구문으로 해석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57] 분석 과정에서 각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어떠한 시간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S+是+T+VP的’와 ‘O+是+T+VP的’의 형식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58]

57) 본고의 상황유형에 따른 동사와 시간 표현의 공기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은경(2022a)를 기반으로 그 논지를 발전시킨 것이다.

5.1 상태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본 절에서는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시간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상태 상황유형의 자질은 [-동태], [+지속], [-종결]이며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없다. 또한, 상태 상황유형은 시간축의 어느 시점이나, 어느 구간에서도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계동사, 심리동사, 형용사가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며 대표적인 상태동사에는 ‘叫’[59], ‘等于’, ‘像’, ‘有’, ‘喜欢’, ‘爱’, ‘相信’, ‘恨’, ‘担心’, ‘怕’ 등이 있다.

우선,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는 상태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2) a. *她是上大学的时候喜欢李四的。 / *她是上大学的时候喜欢的李四。
b. *他是以前恨这个人的。 / *他是以前恨的这个人。
c. *老李是年轻时爱她的。 / *老李是年轻时爱的她。
d. *我是以前相信爱情的。 / *我是以前相信的爱情。

예문 (2)를 통해 일반적으로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만일 예문 (2)를 수용 가능한 문장으로 전환하려면 ‘是…的’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

58) 4 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XP+VP 的’ 형식의 경우 대부분이 ‘是’ 앞의 위치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이다. 또한, 어떠한 성분도 생략되지 않은 37 개의 ‘是+XP+VP 的’ 분열구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며 시간 표현이 단독으로 초점이 되는 예문은 출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간 표현이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 ‘S+是+T+VP 的’와 ‘O+是+T+VP 的’의 유형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59) ‘叫’의 의미는 ‘我叫张亮’에서와 같이 ‘～라고 부르다’를 나타낸다.

반적이다.

(2') a. 她上大学的时候喜欢过李四。
그녀는 대학교 때 리쓰를 좋아했었어요.
b. 他以前恨过这个人。
그는 이전에 이 사람을 원망했었어요.
c. 老李年轻时爱过她。
라오리는 젊었을 때 그녀를 사랑했었어요.
d. 我以前相信过爱情。
저는 이전에 사랑을 믿었었어요.

그러나 '认识', '知道', '相识', '明白', '懂' 등 '알다'류에 속하는 상태동사들은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4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동사들이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할 경우 어떤 상황이 계속 유지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태의 변화가 발행하였으므로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되며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3) a. 我是去年认识他的。/ 我是去年认识的他。
저는 작년에 그를 알게 되었어요.
b. 我是昨天知道这件事情的。/ 我是昨天知道的这件事情。
저는 어제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c. 我是最近明白这些道理的。/ 我是最近明白的这些道理。
저는 최근에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문 (3)을 통해 '알다'류에 속하는 상태동사가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是'는 휴지 없이 생략될 수 있으며 동사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4) a. 我去年认识的他。
b. 我昨天知道的这件事情。
c. 我最近明白的这些道理。
(5) a. *我是去年认识过(了)的他。
b. *我是昨天知道过(了)的这件事情。
c. *我是最近明白过(了)的这些道理。

또한, 아래의 예문을 보면 '알다'류에 속하는 상태동사가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시간 표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6) a. 你是什么时候认识的他。- 我是去年认识的他。
당신은 그를 언제 알게 되었어요? - 저는 그를 작년에 알게 되었어요.
b. 你是什么时候知道的这件事情。- 我是昨天知道的这件事情。
당신은 이 일을 언제 알게 되었어요? - 저는 이 일을 어제 알게 되었어요.
c. 你是什么时候明白的这些道理。- 我是最近明白的这些道理。
당신은 이런 이치를 언제 깨닫게 되었어요? - 저는 이런 이치를 최근에 깨닫게 되었어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상태동사는 일반적으로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지만, '认识', '知道', '相识', '明白', '懂' 등 '알다'류에 속하는 일부 상태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분열구문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상태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7) a. *鬼魂的存在是小时候相信的。
b. *这个人是三年前恨的。

c. *爸爸是小时候像的。
d. *哥哥是以前有的。

예문 (7)을 통해 일반적으로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T가 과거인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문 (8)과 같은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 일부 상태동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8) a. 你原来喜欢这样的风格! - 这是上大学的时候喜欢的。
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 이건 대학교 때 좋아했던 거예요.
b. 屋顶漏水的问题是新型防水材料出现以前担心的, 以后就不用担心这个问题了。
지붕의 누수 문제는 새로운 방수 재료가 나오기 이전에나 우려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예문 (8)의 밑줄 친 문장들을 보면 (8.a)의 경우 지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때만 좋아했음을 대조하고 있으며 (8.b)의 경우에는 새로운 방수 재료의 출현 이전과 이후라는 대조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예문 (8)에서 시간 표현을 논항 초점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대조의 문맥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대조 초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喜欢', '担心'과 같은 동사들이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경우에 시간 표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본다.

(9) a. *这是什么时候喜欢的？ - 这是上大学的时候喜欢的。
b. *屋顶漏水的问题是什么时候担心的？ - 屋顶漏水的问题是新型防水材料出现以前担心的,

또한, 예문 (8)의 밑줄 친 문장들은 일반 분열구문과는 달리 동사의 뒤에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

(10) a. 这是上大学的时候喜欢过的。
b. 屋顶漏水的问题是新型防水材料出现以前担心过的。

예문 (8) ~ (10)에 대한 분석을 통해 '喜欢', '担心'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근거하면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와 동사 사이의 성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며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따라서 '喜欢', '担心'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관계절화된 명사성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으며 일부 출현이 가능한 동사의 경우에는 분열구문이 아니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알다'류에 속하는 상태동사들은 'O+是+T+VP的' 형식의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1) a. 张三是三年前认识的。
장싼은 3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b. 这件事情是上个月(才)知道的。
이 일은 지난달에 알게 되었어요.
c. 这些道理是昨天(才)明白的。
이런 이치는 어제 알게 되었어요.

예문 (11)은 '알다'류의 상태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12) a. *张三是三年前认识过(了)的。
b. *这件事情是上个月(才)知道过(了)的。
c. *这些道理是昨天(才)明白过(了)的。

또한, 예문 (11)에서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알다'류의 상태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13) a. 张三是什么时候认识的？ - 三年前。
장싼은 어제 알게 되었어요? - 3년 전에요.
b. 这件事情是什么时候知道的？ - 上个月。
이 일은 언제 알게 되었어요? - 지난달에요.
c. 这些道理是什么时候明白的？ - 昨天。
이런 이치는 언제 알게(깨닫게) 되었어요? - 어제요.

다음으로 상태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4) a. *他是{现在/以后…}喜欢李四的。/ *他是{现在/以后…}喜欢的李四。
b. *她是{现在/以后…}恨这个人的。/ *她是{现在/以后…}恨的这个人。
c. *老李是{现在/以后…}爱她的。/ *老李是{现在/以后…}爱的她。
d. *他是{现在/以后…}相信小张的。/ 他是{现在/以后…}相信的小张。

예문 (14)는 상태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예문을 통해 이 경우에는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알다'류에 속하는 상태동사들이 출현하는 경우이다.

(15) a. *小张是{现在/以后…}认识他的。/ *小张是{现在/以后…}认识的他。
b. *他是{现在/以后…}知道这件事情的。/ *他是{现在/以后…}知道的这件事情。
c. *我是{现在/以后…}明白这些道理的。/ *我是{现在/以后…}明白的这些道理。

위의 예문을 통해 '알다'류 동사들도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태동사는 일반적으로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래의 예문을 보면 상태동사는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도 출현할 수 없다.

(16) a. *小李是{现在/以后…}怀疑的。
b. *狗是{现在/以后…}怕的。
c. *鬼魂的存在是{现在/以后…}相信的。
d. *这个人是{现在/以后…}恨的。

그러나 예문 (17)과 같이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 '喜欢', '担心'과 같은 소수의 상태동사는 현재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17) a. 那是以前喜欢的，这是现在喜欢的。
그건 이전에 좋아했던 거고, 이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b. 怎么创业是现在担心的，怎么把事业做大做好是以后要担心的。
어떻게 창업할지는 지금 걱정하는 문제이고,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잘 운영할지는 앞으로 걱정해야 할 문제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喜欢', '担心'과 같은 동사들이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시간 표현은 대조 초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태동사가 현재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동사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

(18) a. 那是以前喜欢的，这是现在正喜欢着的。
b. 怎么创业是现在正担心着的，怎么把事业做大做好是以后要担心的。

'喜欢', '担心'이 현재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이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동사의 뒤에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경우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喜欢', '担心'과 같은 소수의 상태동사가 현재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과거 시점 표현이 출현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절화된 명사성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간 표현은 대조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다'류 상태동사가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19) a. *他是{现在/以后…}认识的。
b. *这件事情是{现在/以后…}知道的。
c. *这些道理是{现在/以后…}明白的。

예문 (19)를 통해 '알다'류의 상태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는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으며, 일부 출현이 가능한 동사의 경우에는 분열구문이 아니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시간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비(非)알다'류 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S+是+T+VP的'의 형식에는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O+是+T+VP的'의 형식에는 과거나, 현재 시점 표현과 함께 제한적으로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고, 시점 표현은 대조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열구문이 아니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비'알다'류 동사는 미래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 둘째, '알다'류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와 'O+是+T+VP的'의 두 형식에 모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고, 시간 표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알다'류 동사들은 비과거 시점 표현과는 '是…的'의 형식에 함께 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认识', '知道', '相识', '明白', '懂' 등 '알다'류에 속

하는 동사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시간 표현과 함께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5-1] 상태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60]

동사 분류	구문 유형		수용성	상표지/양태표지	초점 유형
비'알다'류 동사의 경우	S+是+XP+VP的	T=과거	×	-	-
		T=현재	×	-	-
		T=미래	×	-	-
	O+是+XP+VP的	T=과거	△	○	대조 초점
		T=현재	△	○	대조 초점
		T=미래	×	-	-
'알다'류 동사의 경우	S+是+XP+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
		T=미래	×	-	-
	O+是+XP+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
		T=미래	×	-	-

5.2 동작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본 절에서는 동작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시간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동작 상황유형의 자질은 [+동태], [±지속], [-종결]이며 이러한 자질을 공유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3장에서 동작 상황유형

60) [표 5-1]에서 '△'은 비'알다'류 동사들 중 '喜欢' '担心'과 같은 일부 동사들만 제한적으로 'O+是+T+VP 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을 강지속, 약지속, 비지속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61] 대표적인 강지속동사에는 '等', '找', '猜', '养', '住', '用', '盯', '站', '玩儿', '躺' 등이 있으며 약지속동사에는 '看', '吃', '学', '做', '喝', '说', '问', '写', '画', '介绍' 등이 속한다. 또한, 대표적인 비지속동사에는 '眨', '撞', '碰'', '剁', '砍', '踢', '敲', '闪', '跳', '咳嗽' 등이 있다.

5.2.1 강지속동사가 쓰인 경우

우선, 강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는 강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20) a. *他是昨天等朋友的。/ *他是昨天等的朋友。
b. *小李是下午猜这个谜语的。/ *小李是下午猜的这个谜语。
c. *我是小时候养狗的。/ *我是小时候养的狗。
d. *李四是上个月找词典的。/ *李四是上个月找的词典。

예문 (20)을 통해 강지속동사는 일반적으로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을 보면 '用', '住'와 같은 일부 강지속동사들은 출현이 가능하다.

(21) a. 他是昨天用这套工具的。/ 他是昨天用的这套工具。
그는 어제 이 도구를 썼어요.
b. 我是上个月去北京出差时住如家宾馆的。/ 我是上个月去北京出差时住的如家宾馆。
저는 지난달 베이징으로 출장 갔을 때 여가 호텔에 묵었어요.

61) 이러한 구분은 동작 상황유형을 동사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삼분한 것이다. 동사를 지속성에 따라 분류한 이유는 동사의 지속성이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用', '住'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으며 휴지 없이 '是'를 생략할 수 있고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22) a. 他昨天用的这套工具。
b. 我上个月去北京出差时住的如家宾馆。
(23) a. *他是昨天用过的这套工具。
b. *我是上个月去北京出差时住过的如家宾馆。

또한, 강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며 논항 초점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4) a. 他是什么时候用的这套工具？ - 昨天。
그는 언제 이 도구를 썼어요? - 어제요.
b. 你是什么时候住的如家宾馆？ - 上个月去北京出差时。
당신은 언제 여가 호텔에 묵었어요? - 지난달 베이징으로 출장 갔을 때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用', '住'와 같은 일부 강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분열구문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강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25) a. *朋友是昨天等的。
b. *这个谜语是下午猜的。
c. *狗是小时候养的。
d. *词典是上个月找的。

위의 예문을 통해 강지속동사는 일반적으로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

+T+VP的'에 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을 보면 '用', '住'를 비롯한 일부 강지속동사들은 해당 형식에 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6) a. 那套工具是以前用的。
그 도구는 이전에 쓰던 거예요.
b. 那家宾馆是昨晚住的。
그 호텔은 어제 묵었던 곳이에요.

또한,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도 있다.

(27) a. 这是以前用过的。
b. 那家宾馆是昨晚住过的。

예문 (27)에서 동사의 뒤에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문장들이 관계절화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을 보자.

(28) a. 这些纱布是什么时候用的？
이 거즈들은 언제 썼어요/쓴 거예요?
b. 这些都是昨天用的。
이것들은 어제 썼어요/쓴 거예요.
(29) a. 那家宾馆是什么时候住的？
그 호텔은 언제 묵었어요/묵었던 곳이에요?
b. 那家宾馆是昨晚住的。
그 호텔은 어제 저녁에 묵었어요/묵었던 곳이에요.

예문 (28), (29)와 같은 상황에서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논항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고는 일부 강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강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0) a. *他是{现在/明天…}等朋友的。/ *他是{现在/明天…}等的朋友。
b. *小李是{现在/明天…}猜这个谜语的。/ *小李是{现在/明天…}猜的这个谜语。
c. *我是{现在/明天…}养狗的。/ *我是{现在/明天…}养的狗。
d. *李四是{现在/明天…}找词典的。/ *李四是{现在/明天…}找的词典。

예문 (30)을 통해 강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는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지속동사는 일반적으로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도 출현이 불가능하다.

(31) a. *朋友是{现在/明天…}等的。
b. *这个谜语是{现在/明天…}猜的。
c. *狗是{现在/明天…}养的。
d. *词典是{现在/明天…}找的。

그러나 '用', '住'와 같은 일부 강지속동사는 아래와 같이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 현재 및 미래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표현은 대조 초점으로 기능한다.

(32) a. 那是以前用的，这是现在用的。
그건 이전에 쓰던 거고, 이건 지금 쓰는 거예요.
b. 现在用这套工具，那套是明天用的。
지금은 이걸 쓰고, 그건 내일 쓰는 거예요.
(33) a. 这套房子是现在住的，原来那套早就卖了。
이 집은 지금 사는 곳이에요. 원래 살던 집은 오래전에 팔았어요.

b. 那家宾馆是明晚住的，今天我们不住那里。
그 호텔은 내일 묵을 곳이고, 오늘은 거기 안 묵어요.

'用', '住'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동사에는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도 있다.

(34) a. 那是以前用的，这是现在正用着的。
b. 现在用这套工具，那套是明天要用的。
(35) a. 这套房子是现在正住着的，原来那套早就卖了。
b. 那家宾馆是明晚要住的，今天我们不住那里。

또한, '用', '住'와 같은 일부 강지속동사가 현재 및 미래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없으며 BCC(베이징어언대학교 코퍼스)에서 예문을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간 표현이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현할 수 있었다.

(36) 大剧场为最，能容两万人，大约不常用，现在还算完好。常用的两个比较小些，已颓毁不堪；一个据说有顶，是夜晚用的，一个无顶，是白天用的。(朱自清/欧游杂记)
대극장이 제일 커요. 2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도 상태는 괜찮아요. 자주 사용하는 두 개는 좀 작은 편인데, 이미 너무 낡았어요. 하나는 지붕이 있는데 저녁에 사용하고, 하나는 지붕이 없는데 낮에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일부 강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분열구문이 아니라, 관계절화된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출현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과 비분열구문의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강지속동사들이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강지속

동사는 시간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用', '住'와 같은 소수의 강지속동사는 T가 과거인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여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둘째, 강지속동사는 'O+是+T+VP的'의 형식에도 일반적으로 출현이 불가능하지만 '用', '住'를 비롯한 소수의 강지속동사는 출현할 수 있다. 또한, T가 과거 시점 표현인 경우 상황에 따라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관계절화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T가 현재 및 미래 시점 표현인 경우 T는 대조 초점으로 기능하며 동사에는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된다.

5.2.2 약지속동사가 쓰인 경우

우선, 약지속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는 약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37) a. 她是昨天看这本书的。/ 她是昨天看的这本书。
그녀는 어제 이 책을 보았어요.
b. 我是上小学的时候学汉语的。/ 我是上小学的时候学的汉语。
저는 초등학교 때 중국어를 배웠어요.
c. 小张是上午开会时说这句话的。/ 小张是上午开会时说的这句话。
샤오장은 오전 회의 때 이 말을 했어요.
d. 他们是上个月修这个门的。/ 他们是上个月修的这个门。
그들은 이 문을 지난달에 고쳤어요.

위의 예문들을 통해 약지속동사는 일반적으로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是'는 휴지 없이 생략할 수 있으며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38) a. 她昨天看的这本书。
b. 我上小学的时候学的汉语。
c. 小张上午开会时说的这句话。
d. 他们上个月修的这个门。

(39) a. *她是昨天看过(了)的这本书。
b. *我是上小学的时候学过(了)的汉语。
c. *小张是上午开会时说过(了)的这句话。
d. *他们是上个月修过(了)的这个门。

또한, 예문 (40)을 통해 약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며 논항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40) a. 她是什么时候看的这本书？ - 昨天。
그녀는 언제 이 책을 봤어요? - 어제요.
b. 你是什么时候学的汉语？ - 上小学的时候。
당신은 언제 중국어를 배웠어요? - 초등학교 때요.
c. 小张是什么时候说的这句话？ - 上午开会时。
샤오장은 언제 이 말을 했어요? - 오전 회의 때요.
d. 他们是什么时候修的这个门？ - 上个月。
그들은 언제 이 문을 고쳤어요? - 지난달에요.

본고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약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분열구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음은 약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41) a. 这本书是昨天看的。
이 책은 어제 봤어요.

b. 这首歌是小时候学的。
이 노래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c. 这句话是上午开会时说的。
이 말은 오전 회의 때 했어요.
d. 这个门是上个月修的。
이 문은 지난달에 고쳤어요.

예문 (41)을 통해 약지속동사의 경우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에 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S+是+T+VP的'에서와는 달리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문장들이 관계절화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 a. 这本书是昨天看过的。
b. 这首歌是小时候学过的。
c. 这句话是上午开会时说过的。
d. 这个门是上个月修过的。

그러나 아래의 예문을 보면 이 경우에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논항 초점으로 기능한다.

(43) a. 这本书是什么时候看的？ - 昨天。
이 책은 언제 봤어요? - 어제요.
b. 这首歌是什么时候学的？ - 小时候。
이 노래는 언제 배웠어요? - 어렸을 때요.
c. 这句话是什么时候说的？ - 上午开会时。
이 말은 언제 했어요? - 오전 회의 때요.
d. 这个门是什么时候修的？ - 上个月。
이 문은 언제 고쳤어요? - 지난달에요.

따라서 본고는 약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에 출현

하는 경우 강지속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약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자. 아래의 예문은 약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예문 (44)를 통해 이 경우에는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44) a. *她是{现在/明天…}看这本书的。/ *她是{现在/明天…}看的这本书。
b. *我是{现在/明天…}学汉语的。/ *我是{现在/明天…}学的汉语。
c. *小张是{现在/明天…}说这句话的。/ *小张是{现在/明天…}说的这句话。
d. *他们是{现在/明天…}修这个门的。/ *他们是{现在/明天…}修的这个门。

그러나 'O+是+T+VP的'의 형식에는 아래와 같은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에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표현은 대조 초점으로 기능한다.

(45) a. 这是现在看的，那是明天看的。
이건 지금 보는 거고, 이건 내일 볼 거예요.
b. 这是现在吃的，那是明天吃的。
이건 지금 먹는 거고, 저건 내일 먹을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동사에는 양태표지나, 상표지를 부가할 수도 있다.

(46) a. 这是现在看的，那是明天要看的。
이건 지금 보는 거고, 이건 내일 볼 거예요.
b. 这是现在吃的，那是明天要吃的。
이건 지금 먹는 거고, 저건 내일 먹을 거예요.

(47) a. 这三本书都是最近在看的，很不错。 (BCC: 微博)
이 책 세 권은 모두 최근에 읽고 있는 것들인데, 괜찮아요.
b. 这些保健品都是(我)最近在吃的，你要不要尝尝？
이 영양제들은 모두 최근에 먹고 있는 것들이에요. 당신도 한번 먹어 볼래요?

예문 (46), (47)에서 동사에 양태표지나,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문장들이 관계절화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약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초점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약지속동사가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什么时候'로 질문한다면 일반적으로 과거 시점으로 인식된다. 만일 습관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현재 시점으로 대답하려면 예문 (48), (49)와 같이 대조의 문맥이 있거나, 또는 '是…的'의 형식이 아닌 '这本书什么时候看？', '这些药什么时候吃？'로 질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래 시점 표현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도 '这本书是什么时候看的？'나 '这些药是什么时候吃的？'로 질문할 수 없다.

(48) A: 你常常看这本书吗？/ *这本书是什么时候看的？
당신은 이 책을 자주 보나요?/ 이 책은 언제 봤어요?
B: 这是我心情不好的时候看的。
이건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보는 거예요.
(49) A: 这些药是早上吃的吗？/ *这些药是什么时候吃的？
이 약들은 아침에 먹는 거예요?/ 이 약은 언제 먹었어요?
B: 这是晚上饭后吃的。
이건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거예요.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약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는 분열구문이 아니라, 관계절화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지속동사는 'S+是

+T+VP的'의 형식에서 과거 시점 표현과만 공기할 수 있으며 이때 분열구문의 기능을 갖는다. 둘째, 약지속동사는 'O+是+T+VP的'의 형식에서 어떠한 시점 표현과도 공기할 수 있다. 'O+是+T+VP的'의 T가 과거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T가 현재이거나 미래인 경우 T는 대조 초점으로 기능하며 동사에는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있으므로 관계절화된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된다.

5.2.3 비지속동사가 쓰인 경우

우선, 비지속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의 대화문을 보자.

(50) A: 你怎么知道老王今天不来喝酒？他昨天没说呀。
당신은 라오왕이 오늘 술 마시러 안 올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아무 얘기 없었는데요.
B: 他昨天向我眨了个眼，我就知道他今天不来了。
그가 어제 저에게 눈을 찡긋했는데, 저는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A: (他是)什么时候眨的眼? 我怎么不知道？
언제 찡긋했어요? 난 왜 못 봤을까요?
B: (他是)昨天聊天儿的时候向我眨的眼。
어제 얘기 나눌 때 저에게 찡긋했어요.

(51) A: 你带球撞人犯规了。
공을 갖고 사람과 충돌했으니 반칙이에요.
B: 我(是)什么时候撞的人？ 我离他有两米远呢。
제가 언제 사람과 충돌했어요? 2미터나 떨어져 있었어요.

예문(50)과 (51)에서 밑줄 친 문장들은 비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논항 초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아래의 예문을 통해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으며 휴지 없이 '是'

를 생략할 수 있고,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2) a. 他昨天聊天儿的时候向我眨的眼。/ 他昨天聊天儿的时候向我眨眼的。
b. 我什么时候撞的人？/ 我什么时候撞人的?
(53) a. *他是昨天聊天儿的时候向我眨过(了)的眼。
b. *我是什么时候撞过(了)的人？

이상의 분석을 통해 비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려고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54) a. 肉是早上剁的。
고기는 아침에 다졌어요.
b. 这棵树是昨天砍的。
이 나무는 어제 베었어요.

예문 (54)에서 '剁'와 '砍'은 고기를 다지거나, 나무를 베는 순간적인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됨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동작 상황으로 이미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6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예문 (55)의 '碰'은 부딪치는 행위가 순간적으로 한 번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55) A: 你的头怎么了？
너 머리가 왜 그래?

62) Smith(1991: 50)는 비지속동사를 순간 상황유형으로 따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또한, 그에 따르면 순간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지속]의 자질을 내포하지만, 지속을 나타내는 형태 표지와 결합할 경우 다중 사건 동작(multiple-event activities)으로 파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의 순간동사들은 지속을 나타내는 '着(또는 正/正在)'와 같은 형태 표지와 결합하지 않아도 쉽게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작 상황으로 파생될 수 있다.

B: 碰门上了。
문에 부딪쳤어요.
A: (你的头)是什么时候碰的？
언제 부딪쳤어?
B: (这是)昨天晚上碰的。
어제 저녁에 부딪쳤어요.

예문 (55)의 밑줄 친 문장을 통해 비지속동사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며 논항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56) a. *你的头是什么时候碰过(了)的？
b. *这是昨天晚上碰过(了)的。

이상의 분석을 통해 비지속동사는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S+是+T+VP的'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열구문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57) a. *他是{现在/明天…}向我眨的眼。
b. *我是{现在/明天…}撞的人。
c. *我是{现在/明天…}碰的头。

예문 (57)은 비지속동사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또한, 아래의 예문을 통해 비지속동사들은 'O+是+T+VP的'의 형식에도 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8) a. *肉是{现在/明天…}剁的。
b. *这棵树是{现在/明天…}砍的。
c. *我的头是{现在/明天…}碰的。

이상의 분석 결과는 비지속동사의 경우 과거 시점 표현과만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동작 상황유형에 속하는 세 가지 유형의 동사들이 시간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강지속동사는 일반적으로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지만, 소수의 동사들은 T가 과거인 'S+是+T+VP的'에 출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O+是+T+VP的'의 형식에도 소수의 강지속동사들만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O+是+T+VP的'의 T가 과거인 경우 시간 표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며 동사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T가 현재이거나 미래인 경우 시간 표현은 대조 초점으로 기능하고 동사에는 상표지나, 양태표지를 부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약지속동사는 T가 비과거인 'S+是+T+VP的'의 형식에는 출현할 수 없지만, T가 과거인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여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약지속동사는 'O+是+T+VP的'의 형식에서 어떠한 시점 표현과도 공기할 수 있다. 'O+是+T+VP的'의 T가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T가 논항 초점의 기능을 하는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T가 현재이거나, 미래인 경우에는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된다. 셋째, 비지속동사는 T가 비과거 시점 표현인 경우 'S+是+T+VP的'와 'O+是+T+VP的'의 두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T가 과거 시점 표현인 경우에는 'S+是+T+VP的'와 'O+是+T+VP的'의 두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있으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동사의 지속성이 강할수록 '是…的'의 형식에 출현

하는 데 더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 표현이 대조 초점으로 기능하는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또한,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동사가 [+지속]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 과거 시점 표현뿐만 아니라, 비과거 시점 표현과도 공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동사가 [-지속]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 과거 시점 표현과만 공기하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사의 지속성은 '是…的' 형식이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5-2] 동작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63]

동사 분류	구문 유형		수용성	상표지/ 양태표지	초점 유형
강지속	S+是+T+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
		T=미래	×	×	-
	O+是+T+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대조 초점
		T=미래	△	○	대조 초점
약지속	S+是+T+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
		T=미래	×	×	-
	O+是+T+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대조 초점
		T=미래	○	○	대조 초점
비지속	S+是+T+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
		T=미래	×	×	-
	O+是+T+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
		T=미래	×	×	-

63)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모든 논항 초점은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 대조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모든 대조 초점이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대조 초점의 경우 '什么时候'와 같은 의문사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표 5-2]에서 '△'은 강지속동사들 중 '用' '住'와 같은 일부 동사들만 제한적으로 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3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본 절에서는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시간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달성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의미적으로 사건이 종점에 도달하여 어떤 결과, 또는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며 내부구조 속에 사건의 결과나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건 종료 전까지의 지속 구간도 포함한다. 또한, 달성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으며 '吃饱', '写完', '走进', '跑出来' 등과 같이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부가된 동사구는 동작의 과정과 결과로 구성되므로 달성 상황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달성 상황유형의 자질은 [+동태], [+지속], [+종결]이며 대표적인 달성동사에는 '来', '去', '见', '买', '寄', '给', '开', '放', '解决', '决定' 등이 있다.

성취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행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의 발생과 함께 즉각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의미하며 달성 상황유형과는 달리 선행 단계가 비록 변화된 상황과 관련되어도 사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취동사들은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없다. 본고에서 제시한 성취 상황유형의 자질은 [-동태], [-지속], [+종결]이며 대표적인 성취동사에는 '死', '丢', '到', '忘', '毕业', '发现', '看见', '遇到', '获得', '失去' 등이 있다.

우선,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는 두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59) a. 我是今天上午见他的。/ 我是今天上午见的他。
저는 오늘 오전에 그를 만났어요.
b. 他是上个月去北京的。/ 他是上个月去的北京。
그는 지난달에 베이징에 갔어요.

(60) a. 我是去年毕业的。/ 我是去年毕的业。
저는 작년에 졸업했어요.

b. 我是上周发现这个问题的。/ 我是上周发现的这个问题。
저는 지난주에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예문 (59)의 '见'과 '去'는 달성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로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있으며 (60)의 '毕业'와 '发现'는 성취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로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고 예문 (61), (62)와 같이 휴지 없이 '是'를 생략할 수도 있다.

(61) a. 我今天上午见的他。
b. 他上个月去的北京。
(62) a 我去年毕的业。
b. 我上周发现的这个问题。

또한, 예문 (63)과 (64)를 통해 달성 및 성취동사들이 출현하는 경우 동사의 뒤에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63) a. *我是今天上午见过(了)的他。
b. *他是上个月去过(了)的北京。
(64) a. *我是去年毕过(了)的业。
b. *我是上周发现过(了)的这个问题。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에 출현하는 경우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며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65) a. 你是什么时候见的他？ - 今天上午。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났어요? - 오늘 오전에요.

b. 他是什么时候去的北京？ - 上个月。
그는 언제 베이징에 갔어요? - 지난달에요.

(66) a. 你是什么时候毕的业？ - 去年。
당신은 언제 졸업했어요? - 작년에요.
b. 你是什么时候发现的这个问题？ - 上周。
당신은 언제 이 문제를 발견했어? - 지난주에요.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의 형식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67) a. 他是今天上午见的。
그는 오늘 오전에 만났어요.
b. 北京是上个月去的。
베이징은 지난달에 갔어요.

(68) a. 手表是三天前丢的。
시계는 3일 전에 잃어버렸어요.
b. 这个问题是上周发现的。
이 문제는 지난주에 발견했어요.

예문 (67)과 (68)을 통해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O+是+T+VP的'의 형식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69) a. *他是今天上午见过的。
b. *北京是上个月去过的。

(70) a. *手表是三天前丢过的。
b. *这个问题是上周发现过的。

또한,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며 논항 초점으로 기능한다.

(71) a. 他是什么时候见的？ - 今天上午。
그는 언제 만났어요? - 오늘 아침에요.
b. 北京是什么时候去的？ - 上个月。
베이징은 언제 갔어요? - 지난달에요.
(72) a. 手表是什么时候丢的？ - 三天前。
시계는 언제 잃어버렸어요? - 3일 전에요.
b. 这个问题是什么时候发现的？ - 上周。
이 문제는 언제 발견했어요? - 지난주에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와 'O+是+T+VP的'의 형식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달성 및 성취동사들이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려고 한다. 아래의 예문은 'S+是+T+VP的'의 경우이며, 예문을 통해 달성 및 성취동사들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해당 구문에 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73) a. *我是{现在/明天…}见的他。
b. *他是{现在/明天…}去的北京。
(74) a. *我是{现在/明天…}毕的业。
b. *我是{现在/明天…}发现的这个问题。

또한, 'O+是+T+VP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비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출현할 수 없다.

(75) a. *他是{现在/明天…}见的。
b. *北京是{现在/明天…}去的。

(76) a. *手表是{现在/明天…}丢的。
b. *这个问题是{现在/明天…}发现的。

지금까지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해당 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S+是+T+VP的'와 'O+是+T+VP的'의 두 형식에 모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고, 시간 표현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과거 시점 표현과는 '是…的'의 형식에 함께 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으며 쉽게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반면, 이러한 동사들은 '是…的' 형식에서 비과거 시점 표현과는 공기할 수 없다. 4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달성 및 성취동사들은 모두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므로 내부구조 속에 반드시 자연 종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하나의 완결된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반면,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자연 종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속성이 전혀 없는 비지속동사를 제외하면 모두 일정한 지속 구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는 동사의 종결성과 지속성이 분열구문의 기능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5-3]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

구문 유형		수용성	상표지/양태표지	초점 유형
S+是+T+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
	T=미래	×	×	-
O+是+T+VP的	T=과거	○	×	논항 초점
	T=현재	×	×	-
	T=미래	×	×	-

5.4 소결

본 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시간 표현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각 상황유형의 동사들이 어떠한 시간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S+是+T+VP的’와 ‘O+是+T+VP的’의 형식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认识’, ‘知道’, ‘相识’, ‘明白’, ‘懂’ 등 ‘알다’류에 속하는 상태동사는 과거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喜欢’, ‘担心’과 같은 소수의 상태동사는 T가 과거이거나, 현재를 나타내는 ‘O+是+T+VP的’의 형식에 제한적으로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T는 대조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고,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열구문이 아니라,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동작 상황유형의 동사는 지속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강지속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점 표현과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지만, ‘用’, ‘住’와 같은 소수의 강지속동사는 T가 과거인 ‘S+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여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O+是+T+VP的’의 형식에도 소수의 강지속동사들만 출현할 수 있으며 T가 과거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O+是+T+VP的’의 T가 현재이거나 미래인 경우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된다. 비지속동사의 경우에는 ‘S+是+T+VP的’와 ‘O+是+T+VP的’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있지만, T가 과거 시점 표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T는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며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약지속동사의 경우에는 강지속과 비지속의 중간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약지속동사는 ‘S+是+T+VP的’의 형식에 T가 과거 시점인 경우에만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O+是+T+VP的’의 형식에서는 어떠한 시점 표현과도 공기할 수 있다. 즉, ‘O+是+T+VP的’의 T가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러나 'O+是+T+VP的'의 T가 현재이거나 미래인 경우에는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만 인식된다.

셋째, 성취 및 달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동작 상황유형의 비지속동사와 마찬가지로 T가 과거인 'S+是+T+VP的'와 'O+是+T+VP的'의 형식에 출현하여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은 비과거 시점 표현과는 함께 '是…的'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

5장의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5-4] 동사의 상황유형과 '是…的' 형식[64]

구문 유형		상태	동작			달성\성취
			강지속	약지속	비지속	
분열구문	S+是+T+VP的	×	△	○	○	○
	O+是+T+VP的	×	△	○	○	○
명사화구문	S+是+T+VP的	×	×	×	×	×
	O+是+T+VP的	△	△	○	×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시간 표현이 출현하는 '是…的'의 형식이 분열구문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동사의 상적 자질 중 종결성과 지속성의 두 자질이 크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은 과거 시점 표현과만 공기하며, 이 경우 '是…的' 형식은 분열구문으로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지속성이 약할수록 공기하는 시점 표현의 제약이 커지며 이 경우에도 '是…的' 형식은 분열구문으로 인식되기 쉽다. 반면, 지속성이 강할수록 다양한 시간 표현과 공기할 수는 있지만, 분열구문으로 인식되기 어려우며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이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사의 상적 자질에 따라 분열구문으로 해석되거나,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정한 경향성을 갖

64) [표 5-4]는 상태 상황유형에서 '알다'류 동사를 제외한 결과이다. 또한, '△'은 상태동사나, 강지속동사의 경우 소수의 동사들만 제한적으로 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는 연속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고는 시점 표현이 출현하는 '是…的'의 형식이 분열구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상적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구문에 출현하는 시간 표현이 논항 초점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是…的' 분열구문의 특성은 대조가 아닌 논항 초점을 갖는 것이며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서 초점 외의 다른 성분은 모두 전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시간 표현과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전제와 논항 초점의 정보구조로 파악되는 경우는 모두 과거 시점 표현과 공기하는 경우이며 비과거 시점과 공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명제가 전제와 초점의 구조를 나타내기 더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과거 사건은 이미 발생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 중의 어느 한 논항이 초점이 되고 사건의 전체 내용은 전제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와 미래 시점은 아직 완결된 사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하고 소수의 대안 요소와의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한다.

제6장 ‘的’의 상적 기능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일종의 명사화표지(nominalizer)로 분류하였으며 일부는 어기조사(sentence-final particle)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시제(tense)나, 상표지(aspect marker)로 보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문법화의 속도가 차이를 보이는 남방 지역에서의 ‘的’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的’가 점차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의 단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65]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화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6.1 ‘的’의 문법적 기능

6.1.1 명사화표지로 보는 관점

Chao(1968), 朱德熙(1982, 1993), Li & Thompson(1981), 袁毓林(2003), 完权(2013), 吴福祥 · 邢向东(2013: 308-328) 등은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명사화표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X的Y]와 같은 구조에 쓰인 중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结构助词)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깔려있다. 특히, Chao(1968: 294-295)는 ‘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65) 본고에서 논의하는 ‘的’의 문법적 기능과 문법화에 대한 분석은 이은경(2022c)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X的Y]의 구조에서 Y가 삭제될 경우 [X的]는 명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的'가 명사화표지(nominalizer)의 지위를 획득하고 난 후에는 특정한 명사 표현이 생략되었거나 이해되었다고 명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66]

즉, Chao(1968)의 견해에 따르면 예문 (1.a)의 '从中国来的'는 '从中国来的人'에서 중심어 '人'이 생략된 구조이며 예문 (1.a)와 (1.b)가 나타내는 의미는 동일하다.

(1) a. 他是从中国来的。
b. 他是从中国来的人。
그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Chao, 1968: 295)

Li & Thompson(1981)도 Chao(1968)과 마찬가지로 '的'를 명사화표지로 분류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명사화는 동사구나, 동사가 포함된 절 또는 문장에 '的'를 부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a. 这种植物可以当做吃的。
이런 식물은 식용으로 삼을 수 있어요.
b. 种水果的很难过活。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c. 我们合作的问题很简单。
우리가 협력하는 문제는 간단해요.
(Li & Thompson, 1981: 575)

66) This form X *de* acquires a nominal status when Y is omitted from X *de* Y. But once *de* acquires the status of a nominalizer, it can be so used even though no particular nominal expression can be specified as having been omitted or understood.

Li & Thompson(1981: 587)은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도 명사화구문이 쓰인 특수한 문형으로 보았으며 '주어+是+명사화구문'의 구조로 분석하였다.

(3) a. 他　　是　　从中国来的。
　　b. 주어 + 是 +　　명사화구문(…的)。
　　그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朱德熙(1982)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은 판단문으로서 '是'는 주요 동사이며 'V的O'는 수식구조로 쓰인 명사성 성분이다. 따라서 중심어 'O'가 '是'의 앞으로 이동할 경우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4) a. 是我开的灯。
　　b. 灯是我开的。
　　등은 제가 켠 거예요.

(朱德熙, 1982: 109)

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5) a. 这个游戏是我小时候喜欢的。
　　이 게임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예요.
　　b. 这个游戏是我小时候喜欢的游戏。
　　이 게임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이에요.
　　c. 我小时候喜欢的是这个游戏。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이 게임이에요.
(6) a. 他是昨天去的(*人)。
　　그는 어제 갔어요.
　　b. 他是昨天去的北京。
　　그는 어제 베이징에 갔어요.
　　c. 昨天去的是他。
　　어제 간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예문 (5)는 명사화구문이 쓰인 문장으로서 (5.a)의 경우 '我小时候喜欢的'는 중심어가 생략된 명사화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5.b)와 같이 중심어를 복원할 경우 문장의 주어인 '这个游戏'와 명사구의 중심어 '游戏'의 관계는 대등하다. 또한, (5.c)와 같이 '我小时候喜欢的'가 문두로 이동할 경우 명제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6.a), (6.b)와 같은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6.a)의 문말에는 중심어를 복원할 수 없으며 (6.b)의 주어인 '他'는 문말의 '北京'과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6.a)의 '昨天去的'를 문두의 위치로 이동시킬 경우 (6.c)와 같이 명제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은 서로 다른 구문이며 두 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기능도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명사화구문의 경우 동사의 뒤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있지만,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에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7) a. 这是我小时候喜欢过的游戏。
b. *我是昨天见过的他。

'是…的' 분열구문은 정보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명사화구문과 다르게 해석된다. 아래의 대화문을 보자. 예문 (8.B)의 명사화구문에서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없으며 '어렸을 때'와 '현재'가 대조를 이루는 문맥에서만 사용되므로 '小时候'는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9.B)의 분열구문에서 시간 표현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논항 초점(argument focus)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67]

67) 方梅(1995), 刘月华 외(2001), 袁毓林(2003)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예문 (9.B)의 '昨天'을 대조 초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Lambrecht(1994: 286-291)는 대조를 이룰 수 있는 대안(alternative) 집합이 많은 경우에도 대조 초점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표적인 논항 초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즉, 그의 정의에 따르면 대조 초점은 대조를 이룰 수 있는 대안 집합이 적을 때만 성립한다. 따라서 예문 (9.B)의 '昨天'은 '什么时候'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으며 적은 대안 집합과의 대조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논항 초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8) A. 你喜欢玩儿这样的游戏呀？/ *这是什么时候喜欢的游戏？
당신은 이런 게임을 좋아해요?
B. 这是小时候喜欢的游戏。
이것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이에요.

(9) A. 你是什么时候见的他？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났어요?
B. 我是昨天见的他。
저는 어제 그를 만났어요.

또한,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의 뒤에 출현하는 명사구는 반드시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이지만, 명사화구문의 경우에는 (10.a)와 같이 '的'의 뒤에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분열구문에서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지만, 명사화구문의 경우에는 예문 (10.b)와 같이 중심어의 뒤에 '的'가 출현할 수 없다.

(10) a. 他是昨天来的客人。
그는 어제 온 손님이에요.
b. 这是爸爸送给我的生日礼物。/ *这是爸爸送给我生日礼物的。
이것은 아빠가 저에게 선물한 생일선물이에요.

본고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명사화구문의 '的'와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명사화표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6.1.2 어기조사로 보는 관점

이번 절에서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어기조사로 분류하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에는 吕叔湘(1942), 宋玉柱(1978), 冯志纯(1989), 王爱军(1998), 李讷 외(1998), 杨一姝(2018) 등이 있다.

특히, 吕叔湘(1942: 366-368)은 중국어의 어기를 [표6-1]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직접진술(直陈)의 어기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직접진술(直陈)의 어기는 의문, 명령, 감탄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了$_2$', '的', '呢', '么', '啊', '罢了'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직접진술 어기는 '今天凉快得多', '我写完信就去'와 같이 어기조사를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고 '今天凉快多了', '我写着信呢, 写完信就要去的'와 같이 어기조사를 수반할 수도 있다.

[표6-1] 吕叔湘(1942: 361)의 어기 분류

<table>
<tr><td rowspan="12">语气
(广义)</td><td rowspan="5">语意</td><td rowspan="3">正与反</td><td colspan="3">肯定</td></tr>
<tr><td colspan="3">不定(是非问句)</td></tr>
<tr><td colspan="3">否定</td></tr>
<tr><td rowspan="3">虚与实</td><td colspan="3">实说</td></tr>
<tr><td rowspan="2">虚说</td><td colspan="2">可能, 必要等</td></tr>
<tr><td colspan="2">设想 (假设句)</td></tr>
<tr><td rowspan="6">语气
(狭义)</td><td rowspan="3" colspan="2">与认识有关</td><td colspan="2">直陈 (强调则为确认)</td></tr>
<tr><td rowspan="3">疑问</td><td>肯定性: 测度</td></tr>
<tr><td>中性: 询问</td></tr>
<tr><td>否定性: 反诘</td></tr>
<tr><td rowspan="3" colspan="2">与行为有关</td><td colspan="2">商量 (建议, 赞同)</td></tr>
<tr><td rowspan="2">祈使</td><td>肯定性: 命令</td></tr>
<tr><td>否定性: 禁止</td></tr>
<tr><td colspan="3">与感情有关: 感叹, 惊讶等</td></tr>
<tr><td rowspan="2">语势</td><td colspan="3">轻与重</td></tr>
<tr><td colspan="3">缓与急 (缓: 提顿)</td></tr>
</table>

吕叔湘(1942)의 견해에 따르면 예문 (11)에 출현하는 '的'는 모두 확인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서 어떠한 행위가 확실하게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11) a. 你不必多嘱咐，我知道的。
더 이상 당부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알고 있어요.
b. 所以好、歹、真、假，我都认得的。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진짜, 가짜를 저는 다 알아요.

c. 我是在上海见他的。
저는 상하이에서 그를 만났어요.

(吕叔湘, 1942: 366-368)

다음으로 李讷 외(1998)의 분석에 따르면 ‘的’가 어기조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서 ‘的’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2) a. (是)我去跟他谈的。
제가 가서 그들과 얘기했어요.
b. 我是在路上遇见他们的。
저는 길에서 그들을 마주쳤어요.
c. 韩劲是一定会对你好一辈子的。
한진은 꼭 당신에게 평생 잘해 줄 거예요.

(李讷 외, 1998: 94)

‘的’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실현된 사건의 행위자를 확인하는 어기를 나타내며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실현된 사건의 조건을 강조하는 어기를 나타내고 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미실현된 사건에 대한 화자의 긍정의 어기를 나타낸다.

즉, 吕叔湘(2014)과 李讷 외(1998)는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의 ‘的’와 분열구문의 ‘的’를 모두 어기조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宋玉柱(1978), 冯志纯(1989), 王爱军(1998), 杨一姝(2018)을 비롯한 학자들도 吕叔湘(1942), 李讷 외(1998)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의 ‘的’와 분열구문의 ‘的’를 모두 어기조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어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是…的’ 분열구문과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을 서로 다른 구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두 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기능도 다르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吕必松(1982), 张宝林(1994), 田泉(1996), 刘月华 외(2001)를 비롯한 학자들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도구, 방식, 목적, 원인, 행위자, 대상 등을 강조하는 경

우를 ‘是…的’(1) 구문으로,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를 ‘是…的’(2) 구문으로 구분하였으며 ‘是…的’(2) 구문의 경우에만 ‘的’가 어기조사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u(1998: 204-240)에 따르면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은 아래의 예문과 같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13) a. 他是知道这件事的。
그는 이 일을 알고 있어요.
b. 他是会来的。
그는 올 거예요.

Wu(1998)는 예문 (13.a)의 경우 주어의 상태나 습관을 묘사함으로써 상태의 존재나 비존재를 초점화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문장의 시제는 일반적으로 현재를 나타내며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是’의 앞에 출현한다. (13.b)의 경우에는 미실현된 사건이 발생할지, 또는 발생하지 않을지를 초점화하며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양태표지가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문장의 시제는 일반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며 (13.a)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是’의 앞에 출현한다. 그러나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이 초점으로 기능하며 초점 성분은 반드시 ‘是’의 뒤에 출현한다. 또한, 분열구문의 ‘的’는 동사구(VP)를 전제화하는 기능을 하므로 ‘V的O’(‘VO的’)는 항상 과거에 발생한 행위로 인식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는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은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도구, 방식, 목적, 원인, 행위자, 대상 등을 강조하는 분열구문과는 완전히 다른 구문이며 두 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기능도 서로 다름을 주장하였다.

본고도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의 ‘的’와 분열구문의 ‘的’를 모두 어기조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어에서 어기조사는 일반적으로 문말에 출현하지만, ‘是…的’ 분열구

문의 '的'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문말이 아닌 위치에도 출현이 가능하다.

(14) a. 他们是在台北结的婚。/ 他们是在台北结婚的。
그들은 타이베이에서 결혼했어요.
b. 他是昨天买的书。/ 他是昨天买书的。
그는 어제 책을 샀어요.
(汤廷池, 1981: 188)

다음으로 어기조사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했을 경우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만 달라질 뿐, 문장의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5) a. 今日赶不到(的)。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b. 我是在上海会见他*(的)。
저는 상하이에서 그를 만났어요.
b'. 我是在上海会见他。
저는 상하이에서 그를 만날 거예요.

(15.a)의 경우는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이며 이 경우에 '的'를 생략하여도 문장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면, (15.b)는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분열구문이며 '的'를 생략할 경우 문장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즉, (15.b)에서 '的'가 있으면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지만, (15.b')와 같이 '的'를 생략할 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어기조사로 보는 견해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6.1.3 시제표지로 보는 관점

宋玉柱(1981), 李铁根(2002), 송화연(2002), 李振中 · 肖素英(2008), 王晶(2015)

등의 견해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일종의 시제표지이다. 특히, 李振中 · 肖素英(2008)은 '的'를 과거 시제표지로 보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예문 (16.a)와 (16.b)는 '是…的' 분열구문으로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的'를 생략할 경우 문장의 시제는 비과거를 나타낸다. 또한, (16.c)의 경우 미래 시점 표현인 '后天'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표지인 '的'와 공기할 수 없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표지이다.

(16) a. 你究竟哪一天回来的？(比较: 你究竟哪一天回来？)
당신은 도대체 언제 왔어요?
b. 这家具在天河家具城买的。(比较: 这家具在天河家具城买。)
이 가구는 텐허 가구점에서 샀어요.
c. 张嫂后天什么时候来？(比较: *张嫂后天什么时候来的？)
장씨 아주머니는 모레 언제 와요?

(李振中 · 肖素英, 2008: 6)

일반적으로 시제는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문법 범주로서 어떠한 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양운비(2016: 33)에 따르면 한국어의 과거 시제표지 '었'은 상태동사들과도 결합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러한 상태가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17) a. 영희는 예뻤다.
b. 어제는 날씨가 더웠다.

(양운비, 2016: 33)

또한, 영어의 경우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사와의 결합에서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18) a. I liked John when I was in college.
b. She was pretty when she was young.

그러나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동사와의 결합에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는 '喜欢'과 같은 상태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또한 '吃'와 같은 동사와 결합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V的'가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은 '的'를 과거 시제표지로 보는 견해와 모순되는 현상이다.

(19) a. *我是上大学的时候喜欢李四的。 / *我是上大学的时候喜欢的李四。
b. 这是我吃的。
이것은 제가 먹는 것이에요./이것은 제가 먹었어요.

다음으로 Whaley(1997: 203-218)에 따르면 시제표지와 상표지는 종종 하나의 절에 함께 출현한다. 아래는 과거 시제표지와 진행을 나타내는 상표지가 함께 출현하는 터키어의 예문이다.[68]

(20) Gel - iyor - du - m
오다 - 진행 - 과거 - 1단수
저는 오고 있었어요.

(Whaley, 1997: 213)

그러나 중국어에서 분열구문의 '的'는 일반적으로 '着', '过', '了'와 같은 상표지와 함께 출현할 수 없다.

68) Foley & Van Valin(1984: 210), Bybee(1985: 196-200), Whaley(1997: 213-214) 등의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절에 시제표지와 상표지가 함께 출현할 경우 두 표지의 분포는 도상적(iconic)이다. 즉, 상표지는 시제표지보다 동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상표지는 동사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시제표지는 명제 전체 즉, 문장에 의해 나타난 명제가 시간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표지는 시제에 비해 동사와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1) a. *我是中午吃{着/过/了…}的面。
b. *我是三年前去{过/了…}的北京。

마지막으로 중국어에 시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어학계에서 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어에 시제표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중국어에는 상표지만 존재할 뿐 시제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제표지가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张秀(1957), 张济卿(1998a, 1998b), 陈立民(2003), 陆丙甫 · 金立鑫(2015) 등이 있다. 张秀(1957)는 시제를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구분하였으며 중국어에서 절대 시제는 어휘적 수단을 통해 표현되므로 ‘了$_1$’, ‘呢’와 같은 상대 시제표지만 존재함을 주장하였다.[69] 张济卿(1998a, 1998b), 陈立民(2003) 등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어의 ‘了$_1$’과 ‘过’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표지이며 ‘着’는 현재 시제를, ‘将’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표지이다.[70] 또한, 陆丙甫 · 金立鑫(2015: 198-206)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어의 ‘了$_1$’은 가까운 과거를, ‘过’는 비교적 먼 과거를 나타내며 ‘了$_2$’와 ‘着’는 현재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중국어의 시제는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미래-비미래의 대립 체계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어에 시제표지가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은 ‘了’, ‘着’, ‘过’ 등을 모두 시제표지로 분류하고 있다.

Comrie(1985: 13-18), Whaley(1997: 205), 고영근(2004: 9), 문숙영(2005: 42), 박진호(2011: 290) 등의 시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시제는 사태(stat-of-affairs) 발생의 시간적 위치(temporal position)를 지시하는 문법 범주이다. 그러나 ‘了$_1$’은 예문 (22.a)에서와 같이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 (22.b)와 같이 미래를 나타

69) 박진호(2011: 290)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한 시점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기준점이 필요하며 화자가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순간(발화시, speech time)을 기준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순간을 기준점으로 할 수도 있다.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할 경우 절대 시제(absolute tense)라고 부르며 그 외의 순간을 기준점으로 할 경우에는 상대 시제(relative tense)라고 부른다.

70) 대부분의 학자들은 ‘将’을 부사로 보고 있으며『现代汉语八百词』(2015)와 같은 사전이나, 卢福波(1996: 105), 刘月华 외(2001: 231) 등과 같은 문법서에도 ‘将’은 시간 부사로 분류된다.

내는 경우에도 쓰인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어의 '了$_1$'은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22) a. 没有什么，被毛毛虫咬了一口！(夏衍,『春蚕』)
괜찮아요. 송충이한테 좀 물렸어요!
b. 茧又不能当饭吃，债又逼紧了，时间又拖不起，出了蛾子怎么办？(夏衍,『春蚕』)
누에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빚쟁이들이 또 압박해 오는데, 시간을 끌 수도 없고, 나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한, 예문 (23)을 보면 '着'의 경우도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에 모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 a. 我们是在西班牙结识的。阿尔芒当时站着。他没有同我握手。(让·热内,『小偷日记』)
우리는 스페인에서 알게 되었어요. 아르망은 그때 서 있었는데, 저와 악수도 안 했어요.
b. 他十分善良友好地笑着。(安东尼·伯吉斯,『发条橙』)
그는 매우 착하고 우호적으로 웃고 있어요.
c. "开车送你到目的地，反正今天下午闲着。""谢谢。不过可以了，挺远的，还是电气列车快。"(村上春树,『舞！舞！舞！』)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태워줄게요. 어쨌든 오늘 오후에 한가해요."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너무 멀기도 하고, 기차가 빨라요."

다음으로 아래의 예문을 통해 '过'도 '了$_1$', '着'와 마찬가지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a."吃过饭了吗？要不要我给你弄点吃的？"(玛格丽特·阿特伍德,『可以吃的女人』)
"밥 먹었어요? 제가 먹을 것 좀 만들어 줄까요?"

b. “请您立刻给她一个回音。”“我读过以后再写回信吧。”(莎士比亚, 『李尔王』)
“지금 바로 그녀에게 회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제가 읽어본 이후 회신을 할게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중국어의 ‘了$_1$’, ‘着’, ‘过’를 사용하여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石毓智(1992), 劉月華 외(2001: 361), 陈前瑞(2008: 271), 백은희(2018b), 朴正九(2018) 등과 같이 ‘了$_1$’, ‘着’, ‘过’를 모두 상표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에 쓰이는 ‘的’의 경우도 ‘了$_1$’, ‘着’, ‘过’와 마찬가지로 시제표지가 아니라 상표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6.1.4 상표지로 보는 관점

앞서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명사화표지, 어기조사, 시제표지로 보는 관점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분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的’를 상표지로 보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상표지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赵淑华(1979), 马学良 · 史有为(1982), 吕必松(1982), 史有为(1984), 刘月华 외(2001), 王光全(2003), 朴正九(2018) 등이 있다. 赵淑华(1979)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了$_1$’, ‘过’, ‘来着’와 동일한 기능으로 쓰이며, 따라서 동태(动态)조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 a. 这些窗户去年修理了合页，(今年不要再修了。)
b. 这些窗户去年修理的合页，(今年不要再修了。)
c. 这些窗户去年修理过合页，(今年不要再修了。)
d. 这些窗户去年修理合页来着，(今年不要再修了。)
이 창문들은 작년에 경첩을 손질했다. (올해 다시 손질할 필요가 없다.)
(赵淑华, 1979: 61)

马学良 · 史有为(1982), 吕必松(1982), 史有为(1984), 刘月华 외(2001: 763), 王

光全(2003)의 견해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는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이 과거에 발생했거나, 이미 실현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的'는 과거의 의미와 실현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시상(体-时)조사이다.

朴正九(2018)는 중국어의 '的'는 속격표지에서 명사화표지로 문법화한 후 나중에 완정상 표지로 문법화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어의 '了$_1$', '了$_2$', '的'는 모두 상표지로 기능하지만, 정보구조적으로 다음의 차이를 보인다.

(26) a. 我买了*(一本)书。
b. 我买(*一本)书了。
c. 我买的(*一本)书。

'了$_1$'은 완정상(perfective)으로서 목적어를 초점화하는 기능을 하며 '了$_2$'는 완료상(perfect)으로서 술어 부분을 초점화하는 기능을 한다.[71] '的'가 출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사어, 주어, 목적어가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的'는 논항을 초점화하는 기능을 한다. 朴正九(2018)는 '的'가 완정상 표지로 문법화하였기 때문에 분열구문에서 다른 상표지와 공기할 수 없으며, 문법화의 속도가 빠른 베이징방언에서 '的'의 위치가 동사의 바로 뒤로 이동한 것도 이러한 상적 기능에서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상(aspcet)에 대한 Comrie(1976: 16-24), Bybee 외(1994: 54), 박진호(2011: 304) 등의 정의를 살펴보면, 완정상은 비완정상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건의 내부구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건을 하나의 완전한 덩어리로 나타낸다. 완료상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박정구(2016: 89)에 따르면 최근의 언어유형론 연구들에서 중국어의 '了$_1$'은 유계적(bounded) 사태를 나타내고 사건을 전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71) 중국어의 '了$_1$'을 완정상(perfective)으로, '了$_2$'를 완료상(perfect)으로 부른 것은 박정구(2016: 89)에서 제안된 용어이다. 그는 중국어의 '了$_1$'은 사건의 내적 시간 구조를 보는 비완정상(imperfective)과는 달리 사건을 전체로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완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了$_2$'는 영어의 'have+pp'에 상응하므로 완료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완정상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了$_2$'는 문장이 의미하는 사태가 현재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므로 완료상으로 분류하고 있다.[72]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의 경우도 '了$_1$'과 마찬가지로 완정상 표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的'는 '了$_1$'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27) a. 我是在新华书店买的书。
저는 신화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b. 他是去年毕业的。
그는 작년에 졸업했어요.

예문 (27)은 '是…的' 분열구문으로서 책을 산 행위와 졸업한 사건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전제로 하며 문장의 초점은 장소, 시간과 같이 사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들이다. 따라서 분열구문의 '的'는 사건의 내적 시간 구조나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완전한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的'를 상표지로 보는 두 번째 이유는 '的'가 다른 상표지와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的'는 예문 (28)에서와 같이 '了', '着', '过' 등과 공기할 수 없다.

(28) a. *我是昨晚看{了/着/过…}的书。
b. *我是在北京见{了/着/过…}的朋友。

마지막으로 '的'를 완정상 표지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 '的'가 '了$_1$'과 동일한 위치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72) 백은희(2018b)는 '你吃过饭没有？'에 출현하는 '过'를 '过$_1$'으로, '我吃过臭豆腐'에 출현하는 '过'를 '过$_2$'로 구분하였으며 '过$_1$'도 '了$_1$'과 마찬가지로 완정상 표지로 분류하였다.

(29) a. 我今天中午吃了一碗面。
저는 오늘 점심에 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b. 我是今天中午吃的面。
저는 오늘 점심에 면을 먹었어요.

梅祖麟(1981), 曹广顺(1986), 李讷 · 石毓智(1997), 吴福祥(1998), 石毓智(2006: 280), 陈前瑞 · 张华(2007) 등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了$_1$'은 초기에 문말에만 쓰이다가 점차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조 시기에 '동사+목적어+완성동사'의 구조가 처음 출현하였으며 당대에 와서 완성동사 대신 '了'가 쓰이기 시작하여 '동사+목적어+了'의 구조로 발전하였다. 이후 당송 시기부터 '了'는 점차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동사+了+목적어'의 구조로 문법화되었다.[73]

분열구문의 '的'도 문말과 목적어 앞의 두 위치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30) a. 我是中午看电影的。
b. 我是中午看的电影。
저는 정오에 영화를 보았어요.
(牛秀兰, 1991: 177)

본고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대중국어의 '的'도 상표지로서 다른 상표지와 마찬가지로 문말의 위치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문법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 문법화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방언 지역에서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 '的'가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73) 梅祖麟(1981)의 '완성동사'는 '毕, 讫, 已, 竟' 등을 의미하며 李讷 · 石毓智(1997), 石毓智(2006: 280)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보어'로 보았다.

6.2 '的'의 공시적 분포

李如龙(2001: 1-5), 李小凡 · 项梦冰(2009: 21-22), 강병규(2019: 5) 등에 따르면 중국의 남방 지역의 언어는 북방에 비해 문법화의 속도가 더디므로 남방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은 문법화의 경로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방언 화자들이 표준중국어를 구사할 때 방언의 영향으로 인해 발음과 형식에 있어서 자신들의 방언 체계와 유사하게 구사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도 '了$_1$'과 마찬가지로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 단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방언 지역에서의 '的'의 출현 위치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어 방언구를 7개로 구분한 후 해당 지역 방언을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74] 본고의 설문 조사는 방언 지역 모어 화자의 표준중국어 어감을 분석한 것으로, 방언을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의 방언 화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챗(WeChat)의 '问卷星'이라는 앱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설문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설문 조사에 사용한 예문이다.[75]

(31) a. 你是什么时候见的他？ V_1+的+O_1
b. 你是什么时候见他的？ V_1+O_1+的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났어요?

(32) a. 我是上午吃的面包。 V_1+的+O_2
b. 我是上午吃面包的。 V_1+O_2+的
저는 오전에 빵을 먹었어요.

---

74) 李如龙(2001: 29), 李小凡 · 项梦冰(2009: 29-30)에 따르면 1950 년대 이후 대부분 중국어의 대방언을 7 개 혹은 10 개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7 대 방언으로 구분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黄景湖(1987), 袁家骅(1989) 등이 있으며 10 대 방언으로 구분한 대표적인 학자는 李荣(1987)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방언 지역을 7 개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75) 예문에서 'V_1'은 1 음절 동사를, 'V_2'는 2 음절 동사를 의미하며 'O_1'은 1 음절 목적어를, 'O_2'는 2 음절 목적어를 의미한다.

(33) a. 你是什么时候见到的他? V_2+的+O_1
b. 你是什么时候见到他的? V_2+O_1+的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났어요?
(34) a. 我是去年离开的北京。 V_2+的+O_2
b. 我是去年离开北京的。 V_2+O_2+的
저는 작년에 베이징을 떠났어요.

본고는 설문 조사에 사용하는 동사를 1음절과 2음절인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목적어 역시 1음절과 2음절로 구분함으로써,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방언 지역 화자들이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 '的'가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的'의 분포적 특성이 운율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중국어 모어 화자는 총 251명이며 참여자의 성별 및 연령대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6-2] 방언별 설문 조사 참여 인원[76]

방언구		官话	吴方言	湘方言	赣方言	客家方言	闽方言	粤方言
성별	남	18	3	19	2	1	2	6
	여	61	15	24	8	10	72	10
나이	30세 이하	35	11	27	7	6	10	4
	31~50세	43	7	15	3	5	60	12
	51세 이상	1	0	1	0	0	4	0
합 계		79	18	43	10	11	74	16

76) 본고는 방언별 참여 인원수를 균등하게 조절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방언별로 10 명 이상의 참여자가 나올 때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해당 조사는 2019 년 12 월부터 2022 년 6 월까지 진행되었으므로, [표 6-2]의 연령대는 참여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참여자들의 현재 나이와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3] '的'의 분포에 대한 지역별 조사 결과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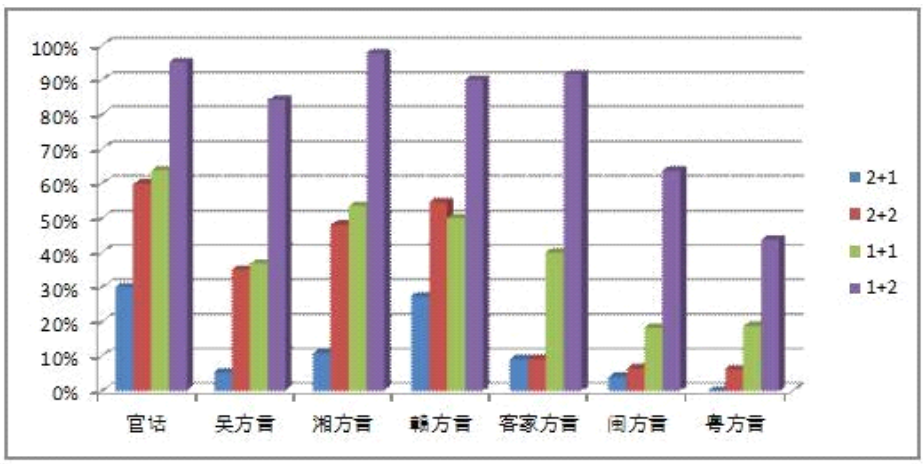
방언구	V_1+O_1+的	V_1+的+O_1	V_2+O_1+的	V_2+的+O_1	V_2+O_2+的	V_2+的+O_2	V_1+O_2+的	V_1+的+O_2
官话	36%	64%	70%	30%	40%	60%	5%	95%
吴方言	63%	37%	95%	5%	65%	35%	16%	84%
湘方言	47%	53%	89%	11%	52%	48%	2%	98%
赣方言	50%	50%	73%	27%	46%	54%	10%	90%
客家方言	60%	40%	91%	9%	91%	9%	8%	92%
闽方言	82%	18%	96%	4%	94%	6%	36%	64%
粵方言	81%	19%	100%	0%	94%	6%	56%	44%

우선,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1음절인 경우 관화(官话) 지역에서는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비율이 64%로서 'V的O'의 형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吴)방언, 커자(客家)방언, 민(闽)방언 및 웨(粵)방언 지역에서는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비율이 각각 63%, 60%, 82%, 81%로서 'VO的'의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 샹(湘)방언과 깐(赣)방언 지역의 경우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비율은 각각 47%, 50%이며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비율은 각각 53%, 50%로서 'VO的'와 'V的O'의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동사가 2음절이고 목적어가 1음절인 경우 각 방언에서의 'VO的' 형식의 사용 빈도는 모두 70% 이상으로서 'V的O'의 사용 빈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2음절인 경우 관화(官话) 지역에서는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비율이 60%로서 'V的O'의 형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吴)방언, 커자(客家)방언, 민(闽)방언 및 웨(粵)방언 지역에서는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비율이 각각 65%, 91%, 94%, 94%로서 'VO的'의 형식을 더 많이 사용

77) 본고는 3 음절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목적어가 3 음절인 경우 '的'의 분포는 2 음절과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따라서 결과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다. 샹(湘)방언과 깐(贛)방언 지역의 경우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비율은 각각 52%, 46%이며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비율은 각각 48%, 54%로서 'VO的'와 'V的O'의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동사가 1음절이고 목적어가 2음절인 경우 웨(粵)방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방언 지역들에서는 'V的O'의 사용 빈도가 'VO的'의 형식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 유일하게 웨(粵)방언 지역에서만은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비율이 56%였고,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비율이 44%로서 'VO的'와 'V的O'의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본고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V的O' 형식의 지역별 사용 빈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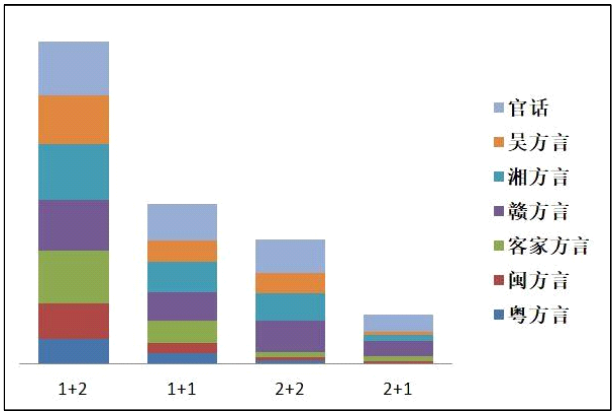


[그림6-1] 음절수에 따른 'V的O'의 사용 빈도

위의 도표를 통해 관화(官话) 지역에서는 대부분 'V的O'의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동사가 2음절이고 목적어가 1음절인 경우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V的O'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화(官话)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방언 지역에서는 대부분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우(吴)방언, 커자(客家)방언, 민(闽)방언 및 웨(粵)방언 지역에서는 동사가 1음절이고 목적어가 2음

절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的'가 문말에 출현한다. 특히 민(闽)방언과 웨(粵)방언 지역의 경우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闽)방언과 웨(粵)방언 지역에서 '的'는 거의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샹(湘)방언과 깐(贛)방언 지역에서는 동사가 1음절이고 목적어가 2음절인 경우에는 'V的O'의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반대로 동사가 2음절이고 목적어가 1음절인 경우에는 'V的O'의 형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샹(湘)방언과 깐(贛)방언 지역에서 동사와 목적어의 음절수가 동일할 경우 '的'가 목적어의 앞과 문말에 출현하는 빈도는 거의 비슷하다.

다음은 음절수에 따른 'V的O'의 누적 빈도이다.



[그림6-2] 음절수에 따른 'V的O' 누적 빈도

[그림6-2]에서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동사가 1음절이고 목적어가 2음절인 경우이다. 반대로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낮은 경우는 동사가 2음절이고 목적어가 1음절인 경우이다. 또한, 동사와 목적어의 음절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와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값을 갖는다.

张淑华(1979: 59), 刘月华 외(2001: 765)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是…的' 분열구문에서 목적어가 인칭대사인 경우 '的'는 문말에만 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화(官话) 지역에서는 '见他的'의 형식보다 '见的他'를 더 많이 사용하며 샹(湘)방언과 깐(赣)방언 지역에서는 '见他的'와 '见的他'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6-2]를 보면 'V的O' 형식의 전반적인 누적 빈도에서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1음절인 '见的他'의 사용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에서 목적어가 인칭대사인 경우 '的'는 문말에만 출현한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으며 '的'의 출현 위치는 운율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Chao(1968: 35), 冯胜利(2009: 78-80), 陆丙甫 · 金立鑫(2015: 40-52) 등은 일반적으로 표준중국어의 강세 구조는 [약강]이며 문장의 일반 강세는 문말 즉, 마지막 통사 구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78] 冯胜利(2009: 92-97)의 분석에 따르면 [SVO]로 구성된 기본 구조에서 문말의 동목구는 강세 영역으로서 [약강] 구조이며 목적어는 동사보다 큰 강세를 받는다. 따라서 [V_1+O_2] 형식의 운율 구조는 오른쪽이 무거울 것을 요구하는 일반 강세 조건에 부합되지만, [V_2+O_1] 형식은 왼쪽이 무겁고 오른쪽이 가벼운 형식이므로 일반 강세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5) a. *种植树
b. *归还钱
c. *阅读报

(冯胜利, 2009: 95)

또한,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1음절인 경우와 2음절인 경우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강약 구조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 강세가 실현되어 문장의 기본적인 운율 구조가 충족되므로 [V_1+O_1]와 [V_2+O_2]의 동목구조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78) 중국어의 강세 구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며, Chao(1968: 35), 冯胜利(2009: 78-80), 陆丙甫 · 金立鑫(2015: 40-52) 등이 주장하는 [약강] 강세 구조는 베이징화 또는 표준중국어에 국한된 것이다. 중국어는 방언에 따라 강세 구조가 상이하므로, 방언의 상표지와 운율적인 특성에 따라 방언 지역 화자의 표준중국어 강세 실현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동사가 1음절이고 목적어가 2음절인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할 경우 [V_1+的][O_2]의 구조로 실현되며 이 경우에 '的'는 경성이므로 오른쪽이 왼쪽의 무게와 같거나 더 무겁기 때문에 강약 구조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V_1的O_2'의 경우 일반 강세가 실현되어 문장의 기본적 운율 구조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사가 2음절이고 목적어가 1음절인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할 경우 [V_2+的][O_1]의 구조가 되며 이 경우에 왼쪽이 무겁고 오른쪽이 가벼울 수밖에 없으므로 강약 형식의 구조가 된다. 따라서 'V_2+的O_1'의 경우는 일반 강세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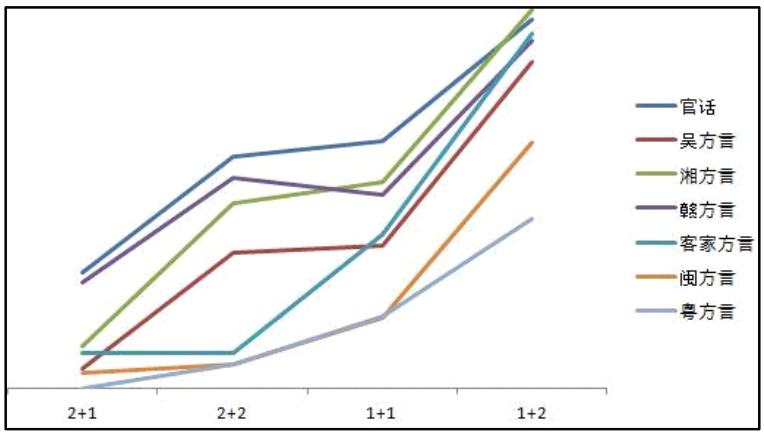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1음절이거나 2음절인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경우 [$V_{½}$][$O_{½}$+的]의 구조로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무거운 약강 구조이지만,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에는 [$V_{½}$+的][$O_{½}$]의 구조로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무거운 강약 구조가 된다. 따라서 동사와 목적어의 음절수가 동일한 경우에 '的'가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데 운율적으로 제약이 존재한다.[79] 그러나 [$V_{½}$+的][$O_{½}$]와 [V_2+的][O_1]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왼쪽의 무게가 덜 무겁고 운율적인 제약도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1음절인 경우가 2음절인 경우보다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유는 'V_1的O_1'의 경우 [V_1+的+O_1]의 구조로서 여전히 하나의 운율단위(또는 음보)를 구성하는 반면, 'V_2的O_2'의 경우에는 [V_2+的]+[O_2]의 구조로서 두 개의 운율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운율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관화(官话) 지역에서 'V_2+的O_1'의 사용 비율이 30%를 차지한다는 점은 '是…的' 분열구문의 '的'가 '了$_1$'처럼 상표지의 자격을 획득하는 문법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완정상 '了$_1$'이 과거에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한 것처럼 현재 분열구문의 '的'도 이러한 문법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

79) 李如龙(2001: 97)에 따르면 표준중국어의 '的'는 남방 방언에서 '个', '其' '格' '嘅' 등으로 대응되며 대부분이 경성이 아니라 고유의 성조를 갖는다. 따라서 경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방 방언의 경우 [V_1+的][O_1]의 구조는 [V_2]+[O_1]처럼, [V_2+的]+[O_2]의 구조는 [V_3]+[O_2]처럼 되어 [약강] 제약을 위배하는 정도가 더 커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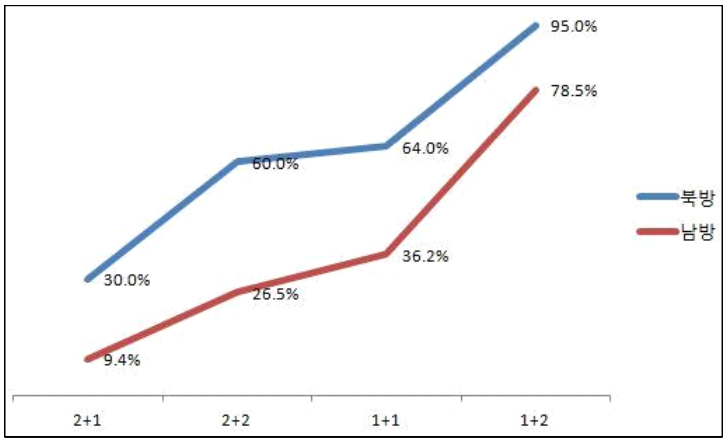
다음으로 아래의 그림을 보면 '的'의 문법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은 관화(官话) 지역이며 가장 적게 진행된 지역은 웨(粵)방언과 민(闽)방언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림6-3] 'V的O'의 지역별 사용 양상

웨(粵)방언과 민(闽)방언 지역은 지리적으로 관화(官话) 지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的'의 문법화는 관화(官话) 지역과 가까울수록 빠르게 진행되며 관화(官话)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느리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6-4]를 통해서도 '的'의 문법화 속도에 있어서 남방과 북방이 전체적으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6-4] 북방과 남방에서의 'V的O' 사용 양상 비교[80]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본고는 '的'의 분포에 다음의 몇 가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분열구문에서 '的'의 분포는 북방과 남방의 차이를 보인다. 즉, 비관화(非官话) 지역에서는 대부분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관화(官话) 지역에서는 문말과 목적어의 앞에 모두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동사가 2음절이고 목적어가 1음절인 경우이다. 셋째, '的'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동사가 1음절이고 목적어가 2음절인 경우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고는 현재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다른 상표지들과 마찬가지로 문말에서 동사의 뒤로 이동하고 있는 문법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이동은 운율적으로 제약이 덜한 유형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的'가 동사의 뒤로 이동하는 것은 운율의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분포적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的'가 상표지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문법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80) 李小凡 · 项梦冰(2009: 36)에 따르면 중국어의 방언을 북방과 남방으로 나눈다면 일반적으로 관화(官话)를 북방방언(北方方言)으로, 나머지 방언들을 남방 방언(南方方言)으로 부른다. 따라서 [그림 6-4]에서 '북방'은 관화(官话) 지역의 'V 的 O' 사용 양상을 의미하며 '남방'은 나머지 우(吴)방언, 샹(湘)방언, 깐(赣)방언, 커자(客家)방언, 민(闽)방언, 웨(粤)방언 지역에서의 'V 的 O' 사용 양상을 의미한다.

6.3 ‘的’의 문법화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 이어 ‘的’의 전반적인 문법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黎锦熙(1924: 263-264), 太田辰夫(1958/2003: 319-326), Chao(1968: 253-257), 朱闰(2011: 66-67), 完权(2018: 6-7,19)을 비롯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의 ‘的’는 고대중국어의 ‘底’에서 기원하였다. ‘的’는 원대부터 ‘底’와 ‘地’를 대신하여 쓰이기 시작하다가 명청대에 이르러 백화소설에서 하나로 통합된 ‘的’의 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민국 시기에 서방의 문법과 대응시키기 위해 일부 번역 작품에서 다시 ‘底’, ‘的’, ‘地’의 세 가지 용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底’는 속격표지로 사용되었으며 ‘的’는 형용사 뒤에 붙는 조사로, ‘地’는 부사 용법으로 쓰였다.

(36) a. 马底头，科学底分析
b. 野蛮的举动，科学的分析
c. 慢慢地，科学地分析

(Chao, 1968: 253)

그러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56년에 ≪잠의한어교학어법계통≫(暂拟汉语教学语法系统)이 반포되면서 ‘底’ 대신 ‘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다시 ‘的’는 관형어표지로 쓰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太田辰夫(1958/2003: 322), 梅祖麟(1988), 朱闰(2011: 26) 등의 견해에 따르면 ‘底’는 ‘之’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당대부터 ‘之’를 대신하여 쓰이기 시작하였다.[81] 특히, 梅祖麟(1988: 121)은 ‘之’가 ‘底’로 변화하게 된 과정에 대해 원래 ‘之’의 발음은 ‘tjɛi’였지만, 남북조 시기에 ‘j’가 탈락되면서 비구개음화되었고 이후 ‘底’(tei)로 문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예문 (37.a)는『祖堂集(조당집)』에 나오는 ‘底’의 예시이고, (37.b)는『孟子(맹자)』에 나오는 ‘之’의 예시이며

81) 曹广顺(1986)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底’가 ‘者’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吕叔湘(1942: 212-219)은 ‘之’가 ‘者’로 문법화한 후 ‘者’가 다시 ‘底’로 문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예문을 통해 ‘底’와 ‘之’ 모두 관형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7) a. 有人问:“大业底人，为什摩阎罗天子觅不得”。
누군가 물었다. “대업을 하는 사람을 왜 염라대왕은 못 찾을까요?”
(朱闰, 2011: 22)

b. 王之著諸臣。
왕의 여러 신하들.
(Pulleyblank, 1995[양세욱 2005: 150])

또한, Pulleyblank(1995[양세욱 2005]), 朱闰(2011: 10-17), 백은희(2018a) 등에 따르면 고대중국어에서 ‘之’는 원래 지시사의 용법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관형어표지로 문법화되었다.[82] 아래는 Pulleyblank(1995[양세욱 2005: 190])에서 언급된 ‘之’의 지시사 용법에서 관형어 용법에로의 문법화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 명사 종속 표지, 즉 수식 관계를 표시하는 ‘之’는 명사 뒤에 놓여 앞 명사를 재지시하는 지시사 ‘之’의 용법에서 비롯되었다. 가령 ‘人之本’(인의 근본)의 원래 의미는 ‘인, 그것의 근본’이고 ‘麟之趾’(기린의 발)의 원래 의미는 ‘기린, 그것의 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통해 관형어표지 ‘的’는 고대중국어의 지시사로부터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朱德熙(1993)는 현대중국어의 ‘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的$_3$’로서 관형어표지에서 명사화표지로 문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82) 백은희(2018c)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지시사는 정관사, 관계대명사, 3 인칭 대명사, 계사, 접속사, 보문소, 수표지, 속격표지와 같은 다양한 문법 표지의 공통된 역사적 기원이다.

[표6-4] 朱德熙(1993)에서 제시된 현대중국어 '的'의 분류

구분	기능	용법	예시
的$_1$	접미사	부사에 부가됨	渐渐的, 忽然的
的$_2$	접미사	상태형용사에 부가됨	红红的, 干干净净的
的$_3$	명사화표지	명사, 동사, 형용사(상태형용사는 제외), 인칭대사, 절에 부가됨	学校的, 吃的,

사실상 근대중국어의 '底' 역시 명사화표지로 쓰인 예들이 적지 않다. 朱闰(2011: 18-26), 邢向东(2013: 308-328) 등에 따르면 당대의『敦煌变文集(돈황변문집)』,『祖堂集(조당집)』에 출현하는 '底'는 [명사+底], [형용사+底], [부사+底], [대사(代词)+底] 등의 형태로 쓰였으며 '底'의 이러한 용법은 현대중국어의 명사화표지 '的'의 기능과 동일하다. 따라서 근대중국어의 '底'도 현대중국어의 '的'와 마찬가지로 명사화표지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祖堂集(조당집)』에 출현하는 [V底]의 예시이다.

(38) a. 祖曰:"即这个不污染底，是诸佛之所护念，汝亦如是，吾亦如是。"
선조께서 말씀하셨다."오염되지 않은 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하다."
b. 师曰:"默底是？说底是？"
스승께서 말씀하셨다."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인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인가?"
c. 师见洞山沉吟底，欲得说破衷情。
스승님이 동산을 보고 중얼거림은 마음을 말하여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朱闰, 2011: 22)

또한, Chao(1968), Li & Thompson(1981: 575-593), 袁毓林(2003), 完权(2013), 吴福祥 · 邢向东(2013: 308-328) 등도 朱德熙(1993)와 마찬가지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를 명사화표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是…

的' 분열구문의 '的'를 [X的Y]와 같은 구조에서 중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로부터 파생된 명사화표지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문 (39.a)와 (39.b)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39) a. 他是从中国来的(人)。
그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b. 从中国来的是他。
중국에서 온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앞서 6.2.1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명사화표지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0) a. 你是什么时候见的张三？ - 我是昨天见的。
당신은 언제 장싼을 만났어요? - 저는 어제 만났어요.
b. 昨天见的是我
어제 만난 사람은 저예요.

예문 (40.a)에서 '见的张三'은 [X的Y]의 구조가 아니며 (40.a)의 '我是昨天见的'는 분열구문으로서 (40.b)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는 명사화표지 '的'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예문 (41.a)와 (41.b)는 동일한 형식으로 쓰였지만, (41.a)의 '的'는 명사화표지이고 (41.b)의 '的'는 상표지이다.

(41) a. 米糠中含油量比大米中含油量高，可按照习惯，大米是人吃的，米糠却喂猪了。(『中国儿童百科全书』)
쌀겨에 포함된 유분은 쌀보다 더 많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쌀은 사람이 먹는 것이고, 쌀겨는 돼지에게 먹였다.
b. 泰国陆军总司令似有感触，指着碑文问："这是谁写的？"(『1994年报刊精选』)
태국의 육군 총사령관은 감명을 받은 듯 비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은 누가 썼습니까?”

이 외에도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명사화표지 ‘的’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명사화표지 ‘的’는 동사와의 결합에서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지만,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제약이 존재한다. 아래의 예문 (42)를 보면 (42.a)의 경우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경우에 ‘的’는 ‘喜欢’과 같은 상태동사들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42.b)를 보면 분열구문의 형식에서 ‘的’는 상태동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2) a. 这是上大学的时候喜欢的。
이것은 대학교 때 좋아했던 거야.
b. *我是上大学的时候喜欢的李四。

둘째, 명사화표지 ‘的’는 상표지와 공기할 수 있지만,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다른 상표지와 공기할 수 없다.

(43) a. 这是上大学的时候喜欢过的。
이것은 대학교 때 좋아했던 거예요.
b. *我是在北京买过的这本书。

셋째, 명사화표지 ‘的’의 뒤에는 중심어를 부가할 수 있지만, ‘是…的’ 분열구문에서는 ‘的’의 뒤에 중심어를 부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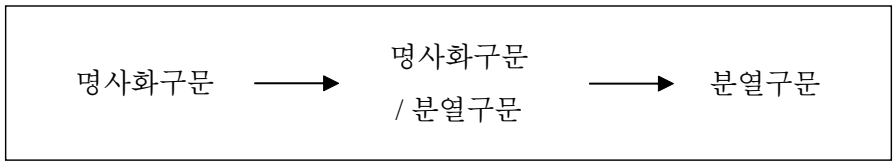
(44) a. 这是小时候喜欢的游戏。
이것은 어릴 때 좋아했던 게임이에요.
b. 这本书，我是在北京买的(*东西)。
이 책을 나는 베이징에서 샀어요.

그러나 예문 (45)와 같이 ‘是’의 앞에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

에는 '的'가 명사화표지인지, 상표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45) a. 这是我哥哥寄来的。
이것은 우리 형이 보내왔어요./이것은 우리 형이 보내온 것이에요.
b. 毛衣是她织的。
스웨터는 그가 떴어요./스웨터는 그녀가 뜬 것이에요.
(张宝林, 1994: 15)

본고는 예문 (45)와 같이 일부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的'가 명사화표지에서 상표지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吴早生(2011: 196-201)의 견해에 따르면 분열구문은 명사화구문에서 문법화된 것이며 이러한 문법화 과정에는 명사화구문과 분열구문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是…的' 분열구문은 '这是我哥哥寄来的东西'와 같이 '[是]+[N的N]' 형식의 명사화구문에서 발전하였으며 완전한 분열구문으로 문법화되는 중간 단계에는 예문 (45)와 같이 명사화구문과 분열구문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중의적인 형태가 존재한다.



[그림6-5] 吴早生(2011: 201)이 제시한 분열구문의 문법화 경로

마지막으로 '是…的' 분열구문이 언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太田辰夫(1958/2003: 324), 韩昱(2011), 김선희(2015a) 등은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형식이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는 원명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선희(2015a)의 분석에 따르면 『수호전』, 『서유기』에 출현하는 과거 의미의 '是…的' 구문은 총 180개이며 아래의 예문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6) a. 这句法语，也是他对小弟说的。(『水浒传』, 第97回)
이 법어도 그가 제게 말해준 것이에요.
b. 这位兄弟便是引小弟两个见大官人的，唤做鬼脸儿杜兴。(『水浒传』, 第48回)
이 분은 바로 저희 둘을 데리고 나리를 뵈었고, 익살스러운 표정 두흥이라 불러요.
c. 僮僕道："才有四位高僧，爹爹问他起居，他说是东土大唐皇帝差来的，往灵山拜佛爷爷，到我们这里，不知有多少路程。爹爹说是天降的，吩咐我们快整斋，供养他也。"(『西遊記』, 第96回)
아이 종은 말하였다. "방금 고승 네 분께서 오셨는데, 나리께서 그분들에게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동녘 땅 당나라 황제가 파견하시여 영산으로 부처님을 찾아뵈러 오신 분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먼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나리 말씀이, 그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하시면서, 소인들더러 빨리 식사를 마련해서 대접해드리라고 분부하셨어요."
(김선희a, 2015: 185-193)

예문 (46.a)는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초점은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다. (46.b)는 주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문장의 초점은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다. (46.c)는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근대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도 현대중국어와 마찬가지로 크게 'O+是+XP+VP的', 'S+是+XP+VP的' '是+XP+VP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유형의 출현 빈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6-5]『수호전』,『서유기』에 출현하는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83]

유형	O是SV的	S是AV(O)的	S是AV的O	是SV(O)的	是AV的O
출현 빈도	78	55	3	34	10
백분율	43.3%	30.6%	1.7%	18.9%	5.6%

[표6-5]를 보면『수호전』,『서유기』에 출현하는 '是…的' 분열구문에서 '的'는 목적어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는 있으나, 'V的O'의 출현 빈도가 'VO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시기에는 주로 '的'가 문말에 오는 형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이 생성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的'가 문말에만 출현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는 고대중국어의 지시사에서 발전한 것으로, 관형어표지로 문법화한 후 명사화표지로 문법화되었다가 현재는 완정상 표지로 문법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6.4 소결

본 장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的'를 명사화표지, 어기조사, 시제표지로 보는 견해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를 상표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的'는 완정상 '了$_1$'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낸다. 둘째, '的'는 다른 상표지와 공기할 수 없다. 셋째, '的'는 완정상 '了$_1$'과 동일한 위치에 출현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了$_1$'이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한 것처럼 현재 '的'도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83) [표 6-5]는 필자가 김선희(2015a: 183)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V 는 동사, S 는 행위자, O 는 행위의 대상을 의미하며 A 는 부사어로서 시간, 조건, 원인, 목적 등을 의미한다.

문법화 단계에 있다.

다음으로 본고는 '的'가 '了$_1$'과 마찬가지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는 문법화 단계에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7대 방언 지역의 251명의 화자가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의 '的'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的'의 분포는 우선적으로 운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방 지역으로 갈수록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경향이 강하고, 북방 관화(官话) 지역으로 갈수록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우(吴)방언에 속하는 우시(无锡)방언과 민난(闽南)방언에서 '的'는 문말에만 출현한다.

(47) a. 伊是啥辰光去北京个？ (无锡话)
b. *伊是啥辰光去个北京？
c. 他是什么时候去的北京？ (普通话)

(48) a. 伊是昨昏去北京的。 (闽南话)
b. *伊是昨昏去的北京。
c. 他是昨天去的北京。 (普通话)

또한, Tang(2011)에 따르면 웨(粵)방언에는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49) a. *佢系寻日去北京嘅。 (广州话)
b. *佢系寻日去嘅北京。
c. 他是昨天去的北京。 (普通话)

李如龙(2001: 1-5), 李小凡 · 项梦冰(2009: 21-22), 강병규(2019: 5) 등에 따르면 북방 방언은 내부적 · 외부적(언어접촉)인 요인으로 인해 혼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방 방언은 성조나 어순 등 여러 측면에서 고대중국어의 흔적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남방 지역의 언어는 북방에 비해 문법화의 속도가 더디므로, 남방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은 문법화의 경로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吴)방언, 민(闽)방언과 같은 남방 방언에 ‘V的O’의 형식이 없다는 것은 ‘的’가 처음에는 문말에만 출현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방언 화자들이 표준중국어를 구사할 때 방언의 영향으로 인해 발음과 형식에 있어서 자신들의 방언 체계와 유사하게 구사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吴)방언과 민(闽)방언 지역 화자들이 표준중국어로 ‘是…的’ 분열구문을 구사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의 방언에는 없는 ‘V的O’의 형식보다는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형식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리적으로 관화(官话)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웨(粵)방언 지역의 경우에는 ‘是…的’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방 지역의 ‘是…的’ 형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的’는 북방 지역에서도 초기에는 문말에만 쓰였기 때문에 현재 웨(粵)방언 지역에서도 ‘V的O’의 형식보다는 문말의 ‘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언어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북방 지역에 비해 남방 지역의 언어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더디므로, 웨(粵)방언 지역에서는 초기에 습득했던 ‘VO的’의 형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현재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다른 상표지들과 마찬가지로 문말에서 동사의 뒤로 이동하고 있는 문법화 과정에 있으며 ‘的’의 이동은 운율적으로 제약이 덜한 유형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즉, ‘的’가 문말에서 동사의 뒤로 이동하는 것은 운율의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분포적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的’가 상표지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문법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는 고대중국어의 지시사에서 발전한 것으로, 관형어표지로 문법화한 후 명사화표지로 문법화되었다가 현재는 완정상 표지로 문법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7장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란 "사태의 개념적 표상인 명제가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그 구조를 정보의 단위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대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휘문법적 구조와 짝지어지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이다.[84] Lambrecht (1994: 70)는 영어의 'it-분열구문'의 정보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문장: It's my keys that I lost.
전제: I lost X
단언: X=my keys
초점: my keys

화자가 청자에게 'It's my keys that I lost'라는 문장을 발화할 때 '나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즉 열린 명제(open proposition) 'I lost X'는 전제(presupposition)이며 문맥상 활성적(active)이기도 하다. 또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열쇠이다'는 단언(assertion)이며 초점(focus)은 '열쇠'가 된다.[85] 따라서 영어의 'it-분열구문'은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86]

다음으로 黃正德(1989), Wu(1998: 157-175), 刘林(2013) 등의 주장에 따르면

84) Lambrecht(1994: 5)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85) Lambrecht(1994: 52, 213)에 따르면 전제란 발화 시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것으로서 문장에서 어휘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단언은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으로서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를 말한다. 초점은 단언이 전제와 구별되게 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이다.

86) Lambrecht(1994: 221-238)는 문장의 초점 구조를 서술어-초점, 논항-초점, 문장-초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서술어-초점 구조는 가장 무표적인 구조로서 문두의 주어가 화제이고 술어가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논항-초점 구조는 서술어나 문장 전체가 아닌, 특정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며 문장-초점 구조는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로서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현대중국어에서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과 '是' 초점구문은 모두 영어의 'it-분열구문'에 해당한다.[87]

(2) a. 他是昨天去图书馆了。
b. 他是昨天去的图书馆。
그는 어제 도서관에 갔어요.

(刘林, 2013: 105)

예문 (2.a)는 '是' 초점구문이며 (2.b)는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이다. 黄正德(1989), Wu(1998), 刘林(2013) 등의 견해에 따르면 (2.a)와 (2.b)에서 전제는 '그는 도서관에 갔다'로서 동일하다. 또한, (2.a)와 (2.b)의 초점은 '是'의 뒤에 출현하는 시간 표현이다. 따라서 그들은 '是' 초점구문과 '是…的' 분열구문은 모두 논항-초점 구조로서, 화용적 기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형식상 서로 다른 두 구문이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즉,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은 형식이 다르므로, 당연히 화용적 기능도 다르다고 보며 본 장에서 두 구문의 정보구조적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88]

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是…的' 분열구문은 크게 'O+是+XP+VP的', 'S+是+XP+VP的', '是+XP+VP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是' 초점구문의 경우도 'O+是+XP+VP', 'S+是+XP+VP', '是+XP+VP'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O+是+XP+VP的' 분열구문의 비교 대상은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며 'S+是+XP+VP的' 분열구문의 비교 대상은 'S+是+XP+VP'이다. 마찬가지로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XP+VP的' 분열구문의 비교 대상은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다. 본고는 분석 과정에서 코퍼스 자료를 통해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이 실제로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는지, 정보구조적으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

87) '是' 초점구문은 '我是学生'과 같이 '是'가 주요 동사로 쓰인 판단문이 아니라, 예문 (2.a)와 같이 '是'가 초점표지로 쓰인 문장을 의미한다.

88) 본고에서 논의하는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차이에 대한 분석은 이은경(2022d)를 기반으로 그 논지를 발전시킨 것이다.

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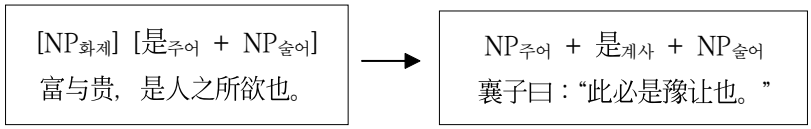
7.1 '是'의 초점표지 기능

본 절에서는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두 구문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是'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王力(1957), Pulleyblank(1995[양세욱 2005]), Li & Thompson(1977), 敖镜浩(1985), Stassen(1997), 梁银峰(1912) 등 많은 연구에 따르면 고대중국어에서 '是'는 원래 지시사의 용법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계사로 문법화되었다. 아래는『맹자』에 나오는 '是'의 지시사 용법이다.[89]

(3) a. 是不為也，非不能也。 (『孟子』, 1上/7)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b. 是亦走也。 (『孟子』, 1上/3)
이것 역시 달아나는 것이다.
(Pulleyblank , 1995[양세욱 2005: 153])

고대중국어의 '是'가 지시사에서 계사로 문법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7-1] '是'의 지시사에서 계사로의 문법화 과정[90]

89) Pulleyblank(1995[양세욱 2005: 203])에 따르면 고대중국어에서 '是'는 일반적으로 근칭이나 원칭의 특별한 함의 없이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이것'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저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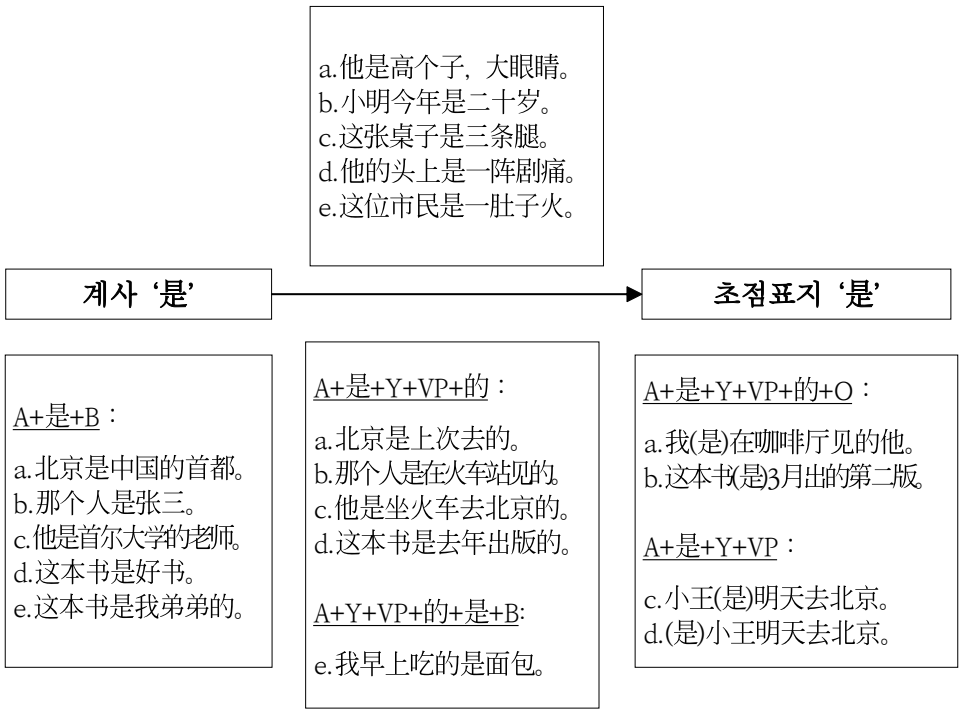
90) [그림 7-1]은 공범련(2022: 37)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림7-1]을 보면 ‘是’는 화제와 술어 사이에 출현하여 조응(anaphora)의 기능을 하는 지시사로 쓰이다가 나중에 계사로 문법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대중국어에서 이러한 문법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지시사에서 계사로의 문법화과정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 王力(1957: 194)는 ‘是’의 계사 용법이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를 대략 서한(西汉) 말기에서 동한(东汉) 초기로 추정하였으며, Stassen(1997: 83)은 AD 1세기부터 AD 6세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전국(战国) 말기부터 이미 ‘是’의 계사 용법이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黄正德(1989), 徐杰 · 李英哲(1993), 方梅(1995), Wu(1998), Heinke & Kuteva(2022: 96, 108), 石毓智(2005), 刘林(2013), 史金生(2017), 공범련(2022) 등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是’는 계사와 초점표지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으며 ‘是’의 초점표지 기능은 계사 용법에서 문법화된 것이다. 특히, Heinke & Kuteva(2002: 96, 108)는 500여 개의 언어를 조사한 결과 많은 언어에서 초점표지가 계사와 지시대명사에서 문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범언어적으로 지시대명사(demanstrative) → 계사(copular) → 초점표지(focus marker)의 문법화 경로는 보편적인 것이며 중국어의 ‘是’ 역시 이러한 문법화 과정을 겪었음을 주장하였다.

공범련(2022)는 ‘是’가 출현하는 다양한 문장 형식을 분석한 결과, 계사 용법에서 초점표지로 완전히 문법화하는 과정에는 중간 단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공범련(2022: 2012-21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是’는 계사와 초점표지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판단성 명사술어에 부가된 ‘是’는 주로 주어와 술어의 동등과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는 전형적인 계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판단을 나타내는 ‘是’자문에서 초점은 ‘是’의 뒤에 오는 성분이며 이때의 ‘是’는 계사의 기능이 강하므로 초점표지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에 출현하는 ‘是’는 완전히 초점표지로 문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상+是+속성’ 명사술어문에 부가된 ‘是’는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是…的’ 분열구문, ‘是’ 초점구문의 중간 단계로서 어느 정도의 초점표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상+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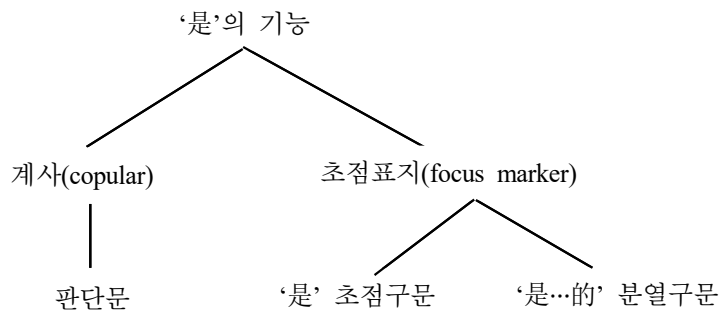
+속성' 구문에서 '是'는 '就', '才', '只' 등과 같은 초점민감연산자(focus-sensitive operator)와 함께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是+속성' 구문에는 다른 주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是'가 계사의 기능과 초점표지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北京是上次去的'와 같이 명사화구문과 분열구문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도 문법화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법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7-2] 계사에서 초점표지까지의 연속체[91]

黄正德(1989)도 '是'의 기능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91) [그림 7-2]는 공범련(2022: 211)에서 제시된 것으로, 'A'는 주어, 'B'는 판단문의 목적어, 'Y'는 부사어, 'O'는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를 나타낸다.



[그림7-3] ‘是’의 기능 분류[92)]

‘是’가 계사로 쓰인 경우에는 예문 (4.a)와 같이 동등 관계(identification)를 나타내거나, (4.b)와 같이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是’가 초점표지로 쓰인 경우에는 (4.c), (4.d)와 같은 ‘是’ 초점구문과 ‘是…的’ 분열구문이 포함된다.

(4) a. 我的老师是张先生。
저의 선생님은 장 선생님이에요.
b. 张先生是个好人。
장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c. 张三是明天到纽约去。
장싼은 내일 뉴욕으로 가요.
d. 张三是去年结的婚。
장싼은 작년에 결혼했어요.

(黄正德, 1989: 44)

Wu(1998: 157-175), 刘林(2013) 등도 黄正德(1989), 공범련(2022)와 마찬가지로 ‘是’ 초점구문과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是’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초점표지로 보았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是’ 초점구문과 ‘是…的’ 분열구문의 ‘是’는 후행 성분을 초점화하며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제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에서 초점은 ‘是’에 후행하는

92) [그림 7-3]은 黄正德(1989)에서 제시된 ‘是’의 기능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그린 것이다.

성분이며 나머지 부분은 전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두 구문의 기능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통해 현대중국어에서 '是'의 기능은 계사와 초점표지로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是'의 기능을 네 가지로 구분한 石毓智(2005)의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是'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판단, 초점, 강조, 대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7-1] '是'의 기능 분류[93]

문법 기능	예문	'是'의 생략 가능성 여부
판단 (copula)	老王是模范。 这辆车是新的。 这场雨下得是时候。	불가능
초점 (focus)	小王是昨天在门口用钳子把自行车修好了。 他是去年结的婚。	가능
강조 (emphasis)	她妈妈是要问这件事的。 这辆车是最好的。	가능
대조 (contrast)	噢，她没出事儿，我们是想采访她。 不是你嫌，是我嫌。	가능

계사 용법은 '是'가 주요 동사로서 판단문에 쓰인 경우이며 초점표지 용법은 '是'가 초점표지로서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에 쓰인 경우이다. 또한, 강조표지 용법은 '是'가 화자의 긍정이나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是…的' 구문에 쓰인 경우이며 대조표지 용법은 '是'가 후행하는 성분을 다른 것과 대조하기 위해 특정한 대조의 문맥에 쓰인 경우이다. 또한, 石毓智(2005)는 '是'의 네 가지 기능의 문법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93) [표 7-1]은 石毓智(2005)에서 제시된 '是'의 기능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림7-4] 石毓智(2005: 44)가 제시한 '是'의 문법화 과정

지금까지 '是'의 기능과 문법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대중국어의 '是'는 계사와 초점표지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으며 지시사 → 계사 → 초점표지의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에 출현하는 '是'는 동일한 초점표지로서 후행 성분을 초점화하며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제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94]

7.2 'O+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

이번 절에서는 'O+是+XP+VP的' 분열구문과 'O+是+XP+VP'의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O+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은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화제로서 문두로 전치된 경우이며 O의 위치에는 일반적으로 한정(definite) 명사구가 출현한다.

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是+XP+VP的'의 형식은 다른 유형에 비해 출현 빈도가 높으며 주로 행위자, 시간, 방식,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한다. 그중에서도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논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두 개 이상의 논항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에도 '행위자+시간', '행위자+방식', '행위자+장소' 등과 같이 행위자와 다른 논항의 결합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O+是+XP+VP的'의 형식으로 발화할 때 일반적으로 화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그중에서도 '누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가장 많이 출현

94) 石毓智(2005)가 제시한 '是'의 강조와 대조의 기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본고의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겠다.

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O+是+XP+VP的' 분열구문의 대표적인 예문이다.

(5) a. (那件衣服是谁买的？) 那件衣服是我买的。
그 옷은 제가 샀어요.
b. (这本书是在哪儿买的？) 这本书是在北京买的。
이 책은 베이징에서 샀어요.

Lambrecht(1994)의 도식을 이용하여 (5.a)와 (5.b)의 정보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5') a. 전제: 그 옷은 X가 샀다.
단언: X=나
초점: 나
b. 전제: 이 책은 X에서 샀다.
단언: X=베이징
초점: 베이징

(5'.a)와 (5'.b)에서 열린 명제 '그 옷은 X가 샀다'와 '이 책은 X에서 샀다'는 전제이며 'X는 나이다'와 'X는 베이징이다'는 단언이다. 또한, 문장의 초점은 '나'와 '베이징'이며, 따라서 'O+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은 영어의 분열구문과 마찬가지로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95]

다음으로 본고는 코퍼스 자료에 근거하여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이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정보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의 예문

95) Lambrecht(1994: 224)에 따르면 '논항-초점'(argument-focus)의 '논항'은 비서술적 표현(non-predicating expression)으로서, 장소, 시간, 태도 등과 같은 표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是…的' 분열구문에서 초점의 위치에 출현하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과 같은 성분을 모두 논항 초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은 코퍼스를 통해 검색한 'O+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이다.

(6) a. 这是无可争辩的事实，罪有应得的厄运，不过，这些厄运是谁造成的？我可怜的小册子夹在这些言词尖锐的公开信之间，结果如何？ (夏多布里昂,『墓畔回忆录』)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벌을 받아 생긴 재앙이에요. 근데, 이런 재앙은 누가 초래했나요? 저의 불쌍한 책자는 이런 날카로운 공개 편지 속에 껴있네요. 결과는 어찌 됐어요?

b. "我的先生！我认为卡拉斯皮克先生完全有这个权利！我不知您头脑中的这种怪念头是怎么产生的。我们已有四十年的交情了，却还不了解您。" (克拉林,『庭长夫人』)
"선생님! 저는 칼라스피크 선생이 그럴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당신 머릿속의 그런 이상한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가 40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아직도 당신을 모르겠어요."

c. 我尽量把注意力从其鞋音移开，并把手电筒光照准她的脊背，盯着橄榄绿美军夹克挪动脚步。记得这夹克是1971年买的。1971年越南战场仍在交火，当时所有的人都留长发穿脏鞋，都听神经兮兮的流行音乐。(村上春树,『世界尽头与冷酷仙境』)
저는 되도록 신발 소리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플래시로 그녀의 등을 비추면서 올리브색의 미군 재킷을 보며 걸었어요. 이 재킷은 1971년에 산 것으로 기억하는데, 1971년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때라,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기르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이상한 팝송을 들었어요.

예문 (6)의 밑줄 친 문장에서 문두의 명사구는 모두 진술(또는 서술)의 대상이며 해당 문맥에서 접근가능한 지시체이므로 화제로 기능한다.[96] 또한, (6.a)의

96) 본고에서 논의하는 화제(topic)는 Lambrecht(1994)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문장이나 절 단위에 제한된 개념이다. Lambrecht(1994: 131)는 화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주어진 발화 상황에서 명제가 어떤 지시체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면, 즉 그 지시체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밑줄 친 문장을 보면 의문대사 '谁'(누구)는 초점으로 기능하며 문맥을 통해 어떠한 재앙이 이미 초래되었다는 내용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b)와 (6.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怎么'(어떻게)와 '1971年'(1971년)이 초점으로 기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문맥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즉, 예문 (6.a) ~ (6.c)는 모두 'O+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으로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행위자, 방식,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논항-초점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만일 예문 (6.a) ~ (6.c)의 밑줄 친 문장에서 '的'를 '了'로 대체할 경우 모두 비문이 된다.

(6') a. 这是无可争辩的事实，罪有应得的厄运，不过，*这些厄运是谁造成了?
我可怜的小册子夹在这些言词尖锐的公开信之间，结果如何?
b. "我的先生！我认为卡拉斯皮克先生完全有这个权利！*我不知您头脑中的这种怪念头是怎么产生了。我们已有四十年的交情了，却还不了解您。"
c. 我尽量把注意力从其鞋音移开，并把手电筒光照准她的脊背，盯着橄榄绿美军夹克挪动脚步。*记得这夹克是1971年买了。1971年越南战场仍在交火，当时所有的人都留长发穿脏鞋，都听神经兮兮的流行音乐。

따라서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O+是+XP+VP的' 분열구문이 쓰이는 문맥에서는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두에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출현하고 과거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 세부 정보가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 '是…的' 분열구문은 쓰일 수 있지만, '是' 초점구문은 쓰일 수 없다.

본고는 코퍼스를 통해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그 지시체는 명제의 화제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화제는 진술(또는 서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Lambrecht(1994)에 따르면 화제는 발화 상황에서 화용적으로 접근가능(accessible)해야 한다.

(7) a. 他要画的是一张胸像。面部占着画像的上半，身体微向右面偏着。左手抱了一丛百合花，百合花是早已画好了，背景也差不多好了，他预算明天画一天，后天再仔细修改一遍，大功便可以告成了。（叶灵凤,『永久的女性』)

그가 그리려는 것은 흉상이에요. 얼굴은 화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몸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왼손으로는 백합꽃 한 다발을 안고 있어요. 백합은 이전에 이미 다 그렸고, 배경도 거의 다 그렸어요. 그의 예상대로라면 내일 하루 그리고, 모레 한 번 더 세밀하게 수정을 하면 다 끝낼 수 있어요.

b. “她们的人数很多吧？”他本来不想提这个问题的，这个问题也是习惯性地说出来了。“多得我都记不清数目了，实在太多了。”(胡安·鲁尔福,『佩德罗·巴拉莫』)

“그들의 수가 매우 많은가요?” 그는 원래 이 문제를 질문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 문제도 습관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너무 많아서 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너무 많았어요.”

c. 然后他就真的没再开口，在接下来的路程一路沉默。这条土路肯定是最近整修过，走起来还很平坦，事实上，感觉似乎有点太平坦了，就好像我们的车没怎么着地，轻轻地飘浮在空中似的。（特雷西·基德尔,『生命如歌』)

그러고 나서 그는 정말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고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켰어요. 이 도로는 틀림없이 최근에 정비했고, 걸어보면 평탄하게 느껴져요. 사실상 너무 평탄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차 바퀴가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문 (7)의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O+是+XP+VP’의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 구문이며 ‘是’와 동사 사이에는 시간,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출현한다. 또한, 예문 (7.a)의 경우 밑줄 친 문장에서 주어인 ‘百合花’는 진술(또는 서술)의 대상이며 문맥상 이미 활성화된 성분으로서 화제로 기능한다. 또한,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술어 부분은 새로운 정보로서 초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7.b)와 (7.c)의 경우도 주어인 ‘这个问题’와 ‘这条土路’는 화제이며 주어를 제외한 술어 부분은 모두 새로운 정보이다. 즉, (7.a) ~ (7.c)의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서술어-초점(predicate-focus) 구조로서 술어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며, '是'에 후행하는 부사어들은 초점의 범위에 포함된다.

만일 예문 (7)의 밑줄 친 문장에서 '了'나 '过'를 '的'로 대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된다.

(7') a. 百合花是早已画好的。
백합은 이전에 이미 다 그렸어요.
b. 这个问题也是习惯性地说出来的。
이 문제는 습관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c. 这条土路肯定是最近整修的。
이 도로는 틀림없이 최근에 정비했어요.

예문 (7')의 경우에도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는 여전히 과거를 나타낸다. 또한, (7')에서는 술어 부분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예문 (7)의 경우와는 달리, 시간,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만 초점으로 기능한다. 즉,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서 '了'나 '过'를 '的'로 대체할 경우 과거 사건의 세부 정보를 강조하는 '是…的' 분열구문으로 해석되며 문장의 정보구조가 달라진다. 따라서 예문 (7)과 같은 문맥에서 '是' 초점구문을 (7')의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경우 문맥상 어색해진다.

또한, 'O+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서 XP의 위치에는 일반적으로 '谁'(누가), '什么时候'(언제), '在哪儿'(어디서) 등과 같은 의문대사가 출현할 수 없다.

(8) a. *那本书是谁买了？
b. *那本书是什么时候买了？

'O+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서 XP의 위치에 '谁'(누가), '什么时候'(언제), '在哪儿'(어디서) 등과 같은 의문대사가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은 XP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문 (9)와 같이 대조의 문맥

이 있는 경우 XP는 대조 초점으로 기능한다. 즉, 아래의 예문 (9.B)에서 '李四'는 대조 초점이며 일반적으로 '李四'에는 대조 강세가 실린다.

(9) A: 是你买走了那本书吗？
당신이 그 책을 사 갔어요?
B: 那本书是李四买走了，不是我。
그 책은 리쓰가 사 갔어요. 제가 아니에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이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是…的' 분열구문은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하지만, '是' 초점구문은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코퍼스를 통해 'O+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쓰인 문맥에서 '是' 초점구문을 'O+是+XP+VP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동일한 문맥에서 두 가지 구문을 모두 쓸 수 있는 경우는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구문의 정보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O+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을 'O+是+XP+VP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분열구문 대신 '是' 초점구문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O+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이유에 대해 '了$_2$'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朴正九(201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了$_2$'가 출현하는 문장의 경우 아래의 예문과 같이 술어 부분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10) a. 他[$_F$昨天离开首尔了]。
b. 他昨天[$_F$离开首尔了]。
그는 어제 서울을 떠났어요.

또한,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초점표지인 '是'의 기능으로 인해 반드시 '是'에 후행하는 XP가 초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O+是+XP+VP了'의 경우 '是'와 '了$_2$'의 기능으로 인해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是'와 '了' 사

이의 술어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가 비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是+XP+VP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 비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예문 (11), (12)와 같이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되며 'O+是+XP+VP的'의 형식이 분열구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미실현된 사건에 쓰일 수 없다.

(11) a. 那是以前用的，这是现在用的。
그건 이전에 쓰던 거고, 이건 지금 쓰는 거예요.
b. 现在用这套工具，那套是明天用的。
지금은 이걸 쓰고, 그건 내일 쓸 거예요.

(12) a. 这套房子是现在住的，原来那套早就卖了。
이 집은 지금 사는 곳이에요. 원래 살던 집은 오래전에 팔았어요.
b. 那家宾馆是明晚住的，今天我们不住那里。
그 호텔은 내일 묵을 곳이고, 오늘은 거기 안 묵어요.

그러나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비과거 시점 표현이 출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실현된 사건에 쓰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3) a. "明明都放春假了，你不去滑滑雪，或回老家看看吗？""我晚上还要打工啊，滑雪是下礼拜才去。"(山本文绪,『一切终将远去』)
"분명 봄방학이 시작됐는데, 너는 스키 타러 가거나, 고향에 내려가지는 않아?" "저는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스키 타러는 다음 주에나 가려고요."
b. 说完她就走了，走前给了红衣主教一张王后选定的分期付款的单子，其中第一笔是在一个月以后付，数目是五十万利弗尔。(大仲马,『王后的项链』)
얘기를 끝낸 후 그녀는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추기경에게 왕후가 정한 할부금 전표를 주었어요. 그중 첫 할부금은 한 달 이후에 지불해야 하는데, 금액은 50만 리브르예요.

c. 今晚，在欧洲俱乐部里面，只有一桌人在打桥牌。他们很早就睡了，招待会是明天举行。 (BCC/玛格丽特·杜拉斯,『副领事』)
오늘 저녁 유럽 클럽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한 테이블뿐이었어요. 그들은(나머지 사람들) 일찍 잠에 들었고, 축하연은 내일 열려요.

예문 (13)에서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O+是+XP+VP'의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이며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는 미래를 나타낸다. (13.a)에서 '滑雪'는 진술(또는 서술)의 대상으로서 화제이며, 문맥을 통해 '스키 타러 가다'는 활성화된 상태이므로 '언제'에 해당하는 논항인 '下礼拜'가 초점으로 기능한다. (13.b)와 (13.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이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즉, 예문 (13.a) ~ (13.c)의 '是' 초점구문에서 초점은 '是'에 후행하는 시간 표현이며, 세 문장 모두 논항-초점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화 상황을 가정해 보자.

(14) A: 下周会议的材料都准备好了吗？
다음 주 회의 자료는 다 준비됐어요?
B: 基本上都准备好了，PPT是明天准备。
기본적으로 다 준비됐는데, PPT는 내일 준비하려고요.
B':基本上都准备好了，PPT是明天小鹏帮我做(准备)。
기본적으로 다 준비됐는데, PPT는 내일 샤오펑이 도와줄 거예요.

위의 대화문에서 (14.B)와 (14.B')는 'O+是+XP+VP'의 형식이며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는 미래를 나타낸다. (14.B)와 (14.B')에서 주어인 'PPT'는 진술(또는 서술)의 대상이며 대화 문맥상 회의 자료 중의 일부로서 접근가능한 지시체이므로 화제로 기능한다. 또한, 문맥을 통해 다음 주 회의에 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은 전제되어 있으므로 'PPT를 만드는(또는 준비하는) 것'도 전제가 된다. 따라서 (14.B)의 초점은 '是'에 후행하는 시간 표현이며 (14.B')의 경우에는 '是' 뒤에 출현하는 시간, 행위자, 방식이 모두 초점으로 기능한다.[97] 이러한 분석을 통해 'O+是+XP+VP'의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미래 사건에 쓰이는 경우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예문을 보면 'O+是+XP+VP'의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5) A. 你家孩子的衣服是在哪儿买？
당신 집 애들 옷은 어디서 사나요?
B. 我都是去万达广场买。
저는 완다 스퀘어에 가서 사요.

(16) A. 这把刀是什么时候用？
이 칼은 언제 써요?
B. 切肉的时候用。
고기를 썰 때 써요.

예문 (15)의 밑줄 친 문장의 경우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초점으로 기능하며 예문 (16)의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O+是+XP+VP'의 형식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미래 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비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문말에 '的'를 부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a. "明明都放春假了，你不去滑滑雪，或回老家看看吗？""我晚上还要打工啊，*滑雪是下礼拜才去的。"
b. 说完她就走了，走前给了红衣主教一张王后选定的分期付款的单子，*其中第一笔是在一个月以后付的，数目是五十万利弗尔。
c. 今晚，在欧洲俱乐部里面，只有一桌人在打桥牌。他们很早就睡了，*招待会是明天举行的。

97) 4.1 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고는 '是'와 동사 사이에 둘 이상의 초점 논항이 출현하는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다중 논항-초점 구조로 보았다. (14.B')의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도 '是'와 동사 사이에 여러 개의 초점 논항이 출현하므로 다중 논항-초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문 (13')는 (13)의 '是' 초점구문의 문말에 '的'를 부가한 경우이며 예문을 통해 동사의 뒤에 '的'를 부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14)도 (13)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뒤에 '的'를 부가할 경우 모두 비문이 된다.

(14') A. 下周会议的材料都准备好了吗？
B. 基本上都准备好了，*PPT是明天准备的。
B'.基本上都准备好了，*PPT是明天小鹏帮我做的。

따라서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 비과거 시점 표현이 출현하는 경우 동사의 뒤에는 '的'를 부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시간 표현이 출현하지 않으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O+是+XP+VP'의 형식에 '的'를 부가한 경우이다.

(15') A. 你家孩子的衣服是在哪儿买的？
B. 我都是去万达广场买的。
(16') A. 这把刀是什么时候用的？
B. 切肉的时候用的。

예문 (15)와 (16)의 경우 장소, 시간을 강조하는 '是' 초점구문으로서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는 현재를 나타낸다. 그러나 (15'), (16')와 같이 동사의 뒤에 '的'를 부가할 경우 과거 사건의 장소, 방식, 시간을 강조하는 '是…的' 분열구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간 표현이 출현하지 않는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의 경우 '的'를 부가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과거 사건의 장소, 시간, 방식,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분열구문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목적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O+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은 반드시 과거 사건에만 쓰이는 반면, 'O+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우에 모두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O+是+XP+VP的' 분열구문은 항상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반면, 'O+是+XP+VP'의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하며 비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구문이 의미하는 시제가 모두 과거일지라도 화용적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是…的' 분열구문이 쓰인 문맥에서 분열구문 대신 '是' 초점구문을 쓸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是' 초점구문을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7.3 'S+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

본 절에서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S+是+XP+VP的' 분열구문과 'S+是+XP+VP'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S+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에는 주로 시간, 장소,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출현하며 두 개 이상의 초점 논항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시간+장소'의 조합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S+是+XP+VP的'의 형식으로 발화할 때 일반적으로 화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아래는 'S+是+XP+VP的' 분열구문의 대표적인 예문이다.

(17) a. (你是在哪儿买的书？) 我是在北京买的书。
　　저는 베이징에서 책을 샀어요.
　　b. (张三是什么时候去的北京？) 张三是上周三去的北京。
　　장싼은 지난주 수요일에 베이징에 갔어요.

우선, Lambrecht(1994)의 도식을 이용하여 (17.a)와 (17.b)의 정보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7') a. 전제: 나는 X에서 책을 샀다.
　　단언: X=베이징
　　초점: 베이징

b. 전제: 장싼은 X에 베이징에 갔다.
단언: X=지난주 수요일
초점: 지난주 수요일

(17')에서 열린 명제 '나는 X에서 책을 샀다'와 '장싼은 X에 베이징에 갔다'는 전제이며 'X는 베이징이다'와 'X는 지난주 수요일이다'는 단언이 되고, '베이징'과 '지난주 수요일'은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S+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도 영어의 분열구문과 마찬가지로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是+XP+VP的' 분열구문과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정보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S+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이 쓰인 문맥을 살펴보자.

(18) a. "那个名字古怪的外国人，他是怎么死的?""他被抓住后自杀的。" (海明威,『丧钟为谁而鸣』)
"그 이름이 이상한 외국인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 죽었어요?""그는 붙잡히자 자살했어요."

b. 郭祥点点头，满口称赞说："同志，你们这个仗，打得实在太干脆了!""那是我们离得比较近。"金连长谦逊地说。"你们是什么时候到的?""今天拂晓"(魏巍,『东方』)
꿔샹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동지, 이번 싸움을 정말 시원하게 치르셨네요!""그건 우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씨 중대장은 겸손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언제 도착하셨어요?""오늘 새벽에요."

c. 布莱里奥又突然意识到自己还一直没有给妻子打电话。于是他拨打了妻子的电话。她是在一个咖啡店里接的电话。在那里，她正和同事桑德拉和马克在喝酒聚会。(帕特里克·拉佩尔,『人生苦短欲望长』)
블레리오는 자신이 아직도 아내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어떤 카페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녀는 동료인 샌드라, 마크와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하고 있었어요.

예문 (18.a)의 밑줄 친 문장에서는 '怎么'(어떻게)가 초점으로 기능하며 그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은 전제가 된다. (18.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什么时候'(언제)가 초점으로 기능하며 상대방이 이미 도착하였다는 내용은 전제가 된다. (18.c)의 경우에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앞 문장을 통해 그녀가 전화를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 전화를 어디서 받았는지에 해당하는 정보가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즉, 예문 (18.a) ~ (18.c)의 밑줄 친 문장의 초점은 각각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방식,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만일 예문 (18)의 밑줄 친 문장에서 '的'를 '了'로 대체할 경우 모두 비문이 되며, 따라서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S+是+XP+VP的' 분열구문이 출현하는 문맥에서는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8') a. "那个名字古怪的外国人，*他是怎么死了?""他被抓住后自杀的。"

b. 郭祥点点头，满口称赞说："同志，你们这个仗，打得实在太干脆了!""那是我们离得比较近。"金连长谦逊地说。"*你们是什么时候到了?""今天拂晓"

c. 布莱里奥又突然意识到自己还一直没有给妻子打电话。于是他拨打了妻子的电话。*她是在一个咖啡店里接了电话。在那里，她正和同事桑德拉和马克在喝酒聚会。

본고는 코퍼스를 통해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과거 사건에 쓰인 경우를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맥에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19) a. "相信我吧！我的钱足够你摆脱苦恼，足够你、你的父母和弟妹生活用的，而且还绰绰有余。""你是不是最近见到了他们？"她急忙问。"见到了。他们也不知道你在哪儿。我也是碰巧在这儿见到你的。"(托马斯·哈代,『德伯家的苔丝』)

"저를 믿어 줘요! 저는 당신을 곤경에서 구해낼 만큼 충분한 돈이

있고, 당신과 당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까지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그러고도 남아요.”“혹시 최근에 그들을 만났어요?” 그녀는 다급히 물었다. “만났어요. 그들은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데요. 저도 당신을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b. 通过非凡的影响，他行为的结果经常与他的思想背道而驰；说他是保皇党人，他是一七八九年推翻了八个世纪的王权；说他是共和党人，他又在一八三零年建立了街垒王权：(夏多布里昂,『墓畔回忆录』)
비범한 영향으로 인해 그의 행동의 결과는 늘 그의 사상과 배치되었어요. 그를 왕당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1789년에 8세기의 왕권을 전복시켰기 때문이에요. 또 그를 공화당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그가 1830년에 바리케이트 왕권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c. 里奥那托：“得胜者全师而归，那是双重的胜利了。”贝特丽丝：“请问你，那位剑客先生是不是也从战场上回来了？”使者：“小姐，这个名字我没有听见过；在军队里没有这样一个人。”里奥那托：“侄女，你问的是什么人？” 希罗：“姊姊说的是帕度亚的培尼狄克先生。” (莎士比亚,『无事生非』)
레오나토: “승리하고 전 사단이 돌아오니, 이중 승리네요.” 베아트리체: “당신께 질문이 있어요. 그 검객 선생도 전장에서 돌아오셨나요?” 사신: “아가씨, 그 이름은 처음 들어요. 군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레오나토: “조카, 묻는 사람이 누구죠?” 헤로: “누나가 묻는 사람은 파두아의 베네디크 씨예요.”

예문 (19)의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S+是+XP+VP’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이며 ‘是’와 동사 사이에는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출현한다. 예문 (19.a)의 ‘是’ 초점구문에서 문두의 주어는 진술(또는 서술)의 대상이며 문맥상 접근가능한 지시체로서 화제로 기능한다. 또한, 해당 문장에서 ‘是不是’는 ‘你最近见到他们’이라는 초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你是不是最近见到了他们’을 ‘是不是你最近见到了他们？’이나, ‘你最近见到了他们，是不是？’로 대체해도 세 문장이 공유하는 명제는 변함이 없으며 ‘你最近见到他们’이란 명제를 동어 반복하는 ‘见到了(他们)’이나, 그것을 긍정하는 ‘是’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a)의 ‘是’ 초점구문에서 초점

은 '最近见到了他们'으로서 전체 술어가 되며 해당 문장은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19.b)와 (19.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두의 주어는 진술(또는 서술)의 대상이며 문맥상 접근가능한 지시체로서 화제로 기능한다. 또한,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술어 전체는 새로운 정보로서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S+是+XP+VP'의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 서술어-초점 구조가 되는 이유에 대해 '是'와 '了'의 기능 때문이라고 본다. 朴正九(2018)에 따르면 '了$_1$'이 출현하는 경우 목적어가 초점이 될 수도 있고, 술어나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될 수도 있다. 즉, '了$_1$'이 출현하는 문장에서 목적어는 반드시 초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了$_2$'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7.2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술어 부분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예문 (19.a)와 (19.b)의 경우 '了$_1$'이 출현하므로 목적어는 반드시 초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19.c)의 경우에는 '了$_2$'가 출현하므로 술어 부분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是' 초점구문에서는 '是'의 초점표지 기능으로 인해 반드시 '是'에 후행하는 XP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 '是'와 '了'의 기능으로 인해 술어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판단한다.

만일 (19)의 밑줄 친 문장에서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 (19')와 같이 문장의 정보구조도 달라진다.

(19') a. 你是不是最近见到的他们？
당신은 최근에 그들을 만났나요?
b. 他是一七八九年推翻的八个世纪的王权。
그는 1789년에 8세기의 왕권을 전복시켰어요.
c. 那位剑客先生是不是也从战场上回来的？
그 검객 선생도 전장에서 돌아오셨나요?

예문 (19')와 (19)의 밑줄 친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는 모두 과거를 나타내지만,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S+是+XP+VP'의 형식

과는 달리 (19')의 경우에는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만 초점으로 기능한다. 즉, (19.a)에서 '你是不是最近见到了他们？'의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 '最近'만 초점이 되며 (19.b) (19.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一七八九年'과 '从战场上'만 초점이 된다. 따라서 (19)와 같은 발화 상황에서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을 'S+是+XP+VP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경우 문맥적으로 어색해진다.

또한, 'S+是+XP+VP了' 형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XP의 위치에는 '什么时候'(언제), '在哪儿'(어디서) 등과 같은 의문대사가 출현할 수 없다.

(20) a. *他是什么时候买书了？
b. *他是在哪儿买书了？

'S+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서 XP의 위치에 '什么时候'(언제), '在哪儿'(어디서) 등과 같은 의문대사가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은 XP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문 (21)과 같이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 XP는 대조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아래의 예문 (21.a)에서는 '北京'과 '上海'가 대조를 이루게 되며 (21.b)에서는 '昨天'과 '今天'이 대조를 이룬다.

(21) a. 他是在北京参加了那次会议，不是上海。
그는 베이징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상하이는 아니에요.
b. 他是昨天去图书馆了，今天没去。
그는 어제 도서관에 갔어요. 오늘은 안 갔어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S+是+XP+VP的' 분열구문과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분열구문은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하지만, '是' 초점구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是+XP+VP的' 분열구문과 'S+是+XP+VP'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의 화용적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두 구문이 출현하는 문맥적 상황도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코퍼스를 통해 예문 (22)와 같이 '是' 초점구문을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22) a. 软禁的第四天，年轻人的脸色比平素更加惨白，他那双因失眠而发红的双眼表明，他是在发烧中度过了一整夜。但他的前额却显示出比任何时候更为严肃的泰然。（大仲马,『三个火枪手』)
연금된 지 4일째, 젊은이의 안색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불면증으로 인해 빨개진 그의 두 눈은 그가 열나는 상태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이마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태연함을 보여주었다.

b. 马是争强好胜的，一群好马在一起时往往有一种竞争，你选了它或者骑了它，就意味着它的得宠和别的马的失宠，它就会在别的马跟前洋洋得意。藏扎西是无意中偷到了它，但在它看来即使是偷也是千挑万选地偷。（杨志军,『藏獒1』)
말은 승부욕이 강해서, 좋은 말들이 함께 있을 때는 늘 서로 경쟁하는데, 당신이 어떤 말을 고르거나 탄다면 그 말은 총애를 받지만 다른 말들은 총애를 잃었음을 의미하므로, 그 말은 다른 말들 앞에서 득의양양해지게 된다. 짱자시는 무심코 그 말을 훔쳤지만, 그 말이 보기에는 훔쳤을지라도 신중하게 골라 훔친 것이다.

(22.a)는 대중마의『삼개화추수』에 출현하는 예문이고 (22.b)는 양지군의『장오』에 출현하는 예문이며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다. 예문 (22.a)에서 '是' 초점구문이 쓰인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앞 문장에서 그가 밤새 잠을 못 자서 눈이 빨개져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고 눈이 빨개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작가는 그 이유를 '是' 초점구문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열나는 상태로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이다'로 설명하였으며, 해당 문장에서 주어를 제외한 술어 부분은 새로운 정보가 된다. (22.b)의 경우도 (22.a)와 마찬가지로 주어를 제외한 술어 부분인 '无意中偷到了它' 전체가 새로운 정보로 기능한다. 만일 (22.a)와 (22.b)의 밑줄 친 문장에서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22') a. 软禁的第四天，年轻人的脸色比平素更加惨白，他那双因失眠而发红的双眼表明，他是在发烧中度过的一整夜。但他的前额却显示出比任何时候更为严肃的泰然。

b. 马是争强好胜的，一群好马在一起时往往有一种竞争，你选了它或者骑了它，就意味着它的得宠和别的马的失宠，它就会在别的马跟前洋洋得意。藏扎西是无意中偷到的它，但在它看来即使是偷也是千挑万选地偷。

예문 (22)의 '是' 초점구문에서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 (22')와 같이 '是…的' 분열구문이 된다. 예문 (22'.a)에서 초점은 '在发烧中(열나는 상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제가 되며 (22'.b)의 경우에도 '无意中(무심코)'는 초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他是在发烧中度过了一整夜'의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 초점은 '열나는 상태'가 되며 나머지 부분 즉, '그가 어떤 상태로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이다'는 전제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藏扎西是无意中偷到了它'의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 초점은 '무심코'가 되며 '짱자시는 그 말을 훔쳤다'는 전제로 해석된다.

Lambrecht(1994: 71)는 예문 (22)와 같은 문맥에서 분열구문이 사용 가능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시로 설명하였다. 어떤 강사가 강의에서 다음의 문장을 발화했다고 생각하자.

(23) It was George Orwell who said that the best books are those which tell you what you already know.
가장 좋은 책은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조지 오웰이었어요.

예문 (23)은 'it-분열구문'으로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who절로 표현된 내용 즉, '누군가 가장 좋은 책은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예문 (23)의 발화 상황을 보면, 그 강의를 듣는 청중 중에 아무도 who절로 표현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즉 예문 (23)의 발화 상황에서 관계절로 표현된 내용은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3)과 같은 문장을 발화할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전제 설정의 책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it-분열구문'으로 발화하는 것은 청자로 하여금 관습적으로 관계절로 표현된 내용을 사실로 수용하도록 설정하는 화자의 일종의 책략이다.

Lambrecht(1994)의 이러한 분석을 예문 (22)와 같은 상황에 적용해 보면, 밑줄 친 문장을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경우 독자들은 관습적으로 '在发烧中(열나는 상태)'나 '无意中(무심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제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문맥에서 '是' 초점구문을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예문 (19.a)와 같이 '你是不是最近见到了他们？'을 '你是不是最近见到的他们？'으로 대체할 경우 문맥상 어색해지므로, '是' 초점구문 대신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예문 (22)는 문맥적으로 두 가지 초점 구조를 모두 허락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 '是' 초점구문을 쓸지, '是…的' 분열구문을 쓸지는 화자의 일종의 발화 책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의 경우 아래의 예문과 같이 동사의 뒤에 비한정(indefinite)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24) a. "这小姑娘多大了？"我问。"她十四了。"那监工说。"这丫头明明顶多不过十岁。""她有身份证。"那监工说道。… "这小丫头是从一个大姐姐那里借来了一张身份证。""明明白白是十四岁！"那监工放大了嗓门又冲我说。 (埃里奇·西格尔,『奥利弗的故事』)
"이 소녀는 몇 살이에요?" 나는 물었다. "그 애는 14살이에요." 현장 감독이 말했다. "이 꼬맹이는 분명히 기껏해야 열 살밖에 안 될 텐데요." "그 애는 신분증이 있어요." 현장 감독이 말했다. … "이 꼬맹이가 어떤 언니한테서 신분증 하나를 빌려왔군요." "명백하게 14살이에요!" 그 현장 감독은 또 한 번 나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b. 在父亲带来的书籍中，最引我注意的是吉宾的十卷≪罗马史≫。这几本书似乎是十分枯燥无味。我想，"作为一个孩子，我是万分无奈地读了许多书。但是一个大人念不念书是可以随便的，为什么也自寻烦恼

呢？”(冰心,『冰心全集』)
아버지가 가져오신 서적 중 가장 저의 눈길을 끈 것은 기븐의『로마사』10권이었어요. 그 책들은 모두 무미건조해 보였어요. 저는 “어린 아이인 난 어쩔 수 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어른들은 책을 읽든, 안 읽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왜 스스로 고민거리를 찾지?”라고 생각했어요.

예문 (24.a)의 밑줄 친 문장에서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목적어는 ‘수+량+명사’의 형식이며 (24.b)의 경우는 ‘许多+명사’의 형식이다. 현대중국어에서 ‘许多’, ‘很多’, ‘不少’ 등은 수량(数+量)처럼 기능하며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25) a. 他已经写了许多(很多/不少)小说。
그는 이미 많은(적지 않은) 소설을 썼어요.
b. 他已经写了三本小说。
그는 이미 세 편의 소설을 썼어요.

따라서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서 동사의 뒤에는 수량구를 동반하는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是+XP+VP的’ 분열구문의 경우에는 목적어의 위치에 비한정 명사구가 출현할 수 없다.

(26) a. 我是在新华书店买的书。
저는 신화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b. 我是在新华书店买的那本书。
저는 신화서점에서 그 책을 샀어요.
c. *我是在新华书店买的的一本书。

朴正九(2018)에 따르면 목적어가 비한정 명사구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초점이 되며 초점의 범위는 문말이 된다. 즉, 예문 (27.a)에서 초점은 ‘两本词典’(사전 두 권)이며, (27.b)에서 초점은 ‘两部电影’(영화 두 편)이다.

(27) a. 我在书店买了两本词典。
저는 서점에서 사전 두 권을 샀어요.
b. 我昨晚看了两部电影。
저는 어제 저녁에 영화 두 편을 보았어요.

그러나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 세부 정보가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초점의 범위는 동사의 앞쪽에 놓인다. 만일 '是…的' 분열구문에서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출현한다면, 두 가지 유형의 초점 구조가 상충하게 된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에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구조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가 비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S+是+XP+VP的' 분열구문의 경우 비과거 사건에는 쓰일 수 없다.

(28) a. *我是{现在/明天…}见的他。
b. *他是{现在/明天…}去的北京。
c. *我是{现在/明天…}毕的业。
d. *我是{现在/明天…}发现的这个问题。

그러나 黄正德(1989), Wu(1998: 157-175), 刘林(2013) 등의 주장에 따르면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미래 사건에도 쓰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是'에 후행하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즉, 아래의 예문에서 초점은 시간 표현이다.

(29) a. 你是明天在公园里见他吗？ - 不，不是。
Is it tomorrow that you will see him at the park? - No, it is not.
당신은 내일 공원에서 그를 만나나요? - 아니, 아니에요.

b. 你是什么时候见他呢？
When will you see him?
당신은 언제 그를 만나나요?

(Wu Guo, 1998: 161)

또한,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으며 미래 시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是’에 후행하는 논항이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30) A: 你一般在哪儿买衣服？
당신은 보통 어디서 옷을 사나요?
B: 我是在万达广场买。
저는 완다 스퀘어에서 사요.

(31) A: 什么时候用这把刀？
이 칼은 언제 써요?
B: 我是切肉的时候用。
저는 고기를 썰 때 써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 ‘S+是+XP+VP的’ 분열구문은 비과거 사건에는 쓰일 수 없는 반면,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비과거 사건에도 쓰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是’에 후행하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 비과거 시점 표현이 출현하는 경우 동사의 뒤에는 ‘的’를 부가할 수 없다. 그러나 비과거 시점 표현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的’를 부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과거 사건의 장소, 시간, 방식 등을 강조하는 분열구문으로 기능한다.

(29') a. *你是明天在公园里见的他吗？
b. 你是什么时候见的他？

(30') A: 你一般在哪儿买的衣服？
B: 我是在万达广场买的。

(31') A: 什么时候用的这把刀？
B: 我是切肉的时候用的。

지금까지 'S+是+XP+VP的' 분열구문과 'S+是+XP+VP'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S+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은 반드시 과거 사건에만 쓰이는 반면,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우에 모두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S+是+XP+VP的' 분열구문은 항상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반면,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하며 비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구문이 의미하는 시제가 모두 과거일지라도 화용적 기능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是…的' 분열구문이 쓰인 문맥에서 분열구문 대신 '是' 초점구문을 쓸 수 없으며 '是' 초점구문을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S+是+XP+VP的' 분열구문의 경우 목적어의 위치에 비한정 명사구가 출현할 수 없는 반면,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다.

7.4 '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

이번 절에서는 '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XP+VP'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형식으로서 '是'의 앞에 어떠한 명사구도 출현하지 않는 경우이다.

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퍼스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 700개의 '是…的' 분열구문 중 'O+是+XP+VP的'의 형식으로 쓰인 경우는 294개 출현하였고, 'S+是+XP+VP的'의 경우는 253개 출현하였으며 '是+XP+VP的'의 형식으로 쓰인 경우는 153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또한, '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이 쓰인 문맥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대부분 (32.a), (32.b)와 같이 '是'의 앞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었음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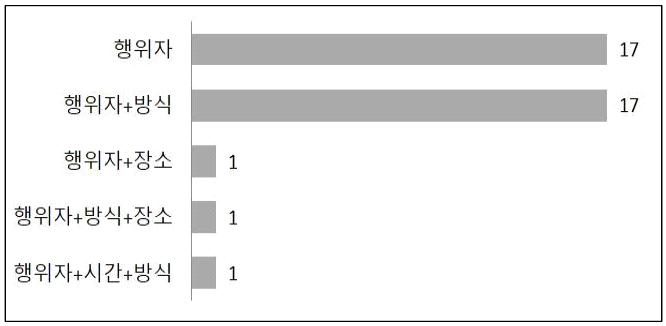
(32) a. 门房就直截了当地告诉他：“先生，她已经死了，而且是刚刚死的。”
(海明威,『丧钟为谁而鸣』)
경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녀는 이미 죽었어요. 게다가 방금 전에 죽었어요.”

b. “你这箱子真好，先生，肯定是在莫斯科买的吧?”“是在莫斯科买的。”
(阿瑟·高顿,『死灵魂』)
“당신의 상자는 정말 좋군요. 선생님. 틀림없이 모스크바에서 사셨지요?”“모스크바에서 샀어요.”

c. 他看到卡不吭气了，就提醒卡是和“神蓝”会面的。“神蓝”是个多么可怕的恐怖分子，多大的阴谋家，并且还是由伊朗培养的共和国的死敌。“是谁安排您和他见面的?”“一个我不知道姓名的宗教学校学生。”卡说。(奥尔罕·帕慕克,『雪』)
그는 칼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칼이 만난 사람은 신람임을 상기시켰다. 신람은 아주 무서운 테러리스트이고, 큰 음모가이며 이란이 키운 공화국의 사적이기도 하다. “누가 당신에게 그를 만나도록 주선했나요?”“이름을 모르는 한 종교 학교의 학생이에요.” 칼이 말했다.

예문 (32)의 밑줄 친 문장들을 보면 (32.a)의 경우 문맥적으로 ‘是’의 앞에 의미상 주어인 ‘她’(그녀)가 생략되었으며 (32.b)의 경우에는 ‘是’의 앞에 의미상 목적어인 ‘这箱子’(이 상자)가 생략되었다. 그러나 (32.c)의 경우에는 문맥상 어떠한 성분도 생략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맥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是+XP+VP的’의 형식으로 쓰인 153개의 예문 중 ‘是’의 앞에 주어가 생략된 예문은 25개이고 목적어가 생략된 예문은 91개이며 (32.c)와 같이 아무런 성분도 생략되지 않은 예문은 37개이다.

본 절에서는 (32.c)와 같이 문두 위치에 어떠한 성분도 생략되지 않은 ‘是+XP+VP的’ 분열구문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는 37개의 ‘是+XP+VP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초점 논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7-5] '是+XP+VP的' 분열구문의 초점 논항

[그림7-5]를 보면 '是+XP+VP的' 분열구문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초점 유형은 '행위자'와 '행위자+방식'으로서, 각각 17회 출현하였다. 이 외에도 '행위자+장소', '행위자+방식+장소', '행위자+시간+방식'의 조합이 각각 1회씩 초점으로 출현하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37개의 '是+XP+VP的' 분열구문에 모두 초점으로 출현한다는 점이다. 즉, '是+XP+VP的' 분열구문의 초점 논항이 하나인 경우에 XP는 반드시 '행위자'이며 초점 논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반드시 초점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XP+VP的'의 형식으로 발화할 때 일반적으로 화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누가' 또는 '누가 어떻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아래는 '是+XP+VP的' 분열구문의 대표적인 예문이다.

(33) a. 是你引诱的我。
당신이 저를 유인했군요.
b. 是姐姐让我进的屋。
언니가 저를 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刘月华 외, 2001: 766)

Lambrecht(1994)의 도식을 이용하여 (33.a)와 (33.b)의 정보구조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33') a. 전제: X가 나를 유인했다.
단언: X=너
초점: 너
b. 전제: X가 나를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단언: X=언니
초점: 언니

(33')에서 열린 명제 'X가 나를 유인했다'와 'X가 나를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전제이며 'X는 너이다'와 'X는 언니이다'는 단언이 되고, '너'와 '언니'는 각각 초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XP+VP的'의 경우도 'S+是+XP+VP的', 'O+是+XP+VP的'와 마찬가지로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고는 코퍼스 자료에 근거하여 '是'가 문두에 출현하는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이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정보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4) a. 郭祥一看，原来是白英子，惊奇地问："你怎么到这儿来了?""是妈妈带我来的。"她笑着说。郭样知道她说的是朴贞淑。又问："她怎么来啦?""不光她来啦，阿爸基也来啦!"(魏巍,『东方』)
꿔샹은 바이잉즈를 보고 놀라며 물었다. "네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꿔샹은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퍄오전수임을 알고 또 물었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 "그분만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오셨어요."
b. 罗萨莉正要跨出门坎，再走几步就自由了，却被她父亲逮个正着。"烂货，你要到哪儿去？"罗登在抓住她时大叫一声，与此同时，隆博抓住了我。"啊！"罗登看着我，又说道，"是这个贱货帮你逃跑的!"(萨德,『淑女的眼泪』)
로잘리는 문지방을 막 넘으려 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나가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덜미를 잡혔다. "망할 놈, 어디 나가려고?" 로든이 그녀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롬보가 나를 붙잡

았다. "아!" 로든이 나를 보며 또 말했다. "이 망할 놈이 네가 도망가도록 도왔구나!"

c. 我看过他主演的≪哈姆莱特≫，是db去年带了菲芘和我一起去看的。他先请我们吃了顿午饭，然后请我们去看戏。 (塞林格, 『麦田里的守望者』)
저는 그가 주연을 맡은 『햄릿』을 본 적이 있어요. db가 작년에 피피렌을 데리고 저와 함께 가서 봤어요. 그는 먼저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한 후, 우리를 극장으로 초대했어요.

예문 (34)는 코퍼스를 통해 검색한 '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이다. (34.a)의 경우 밑줄 친 문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녀가 이미 온 것'은 문맥을 통해 전제되어 있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오게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정보가 되므로 행위자와 방식이 모두 초점으로 기능한다. (34.b)의 경우도 문맥을 통해 '그가 도주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도주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새로운 정보가 되므로 (34.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와 방식이 모두 초점으로 기능한다. (34.c)의 경우에도 '『햄릿』을 이미 본 것'은 전제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했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새로운 정보가 된다. 즉, (34.c)의 밑줄 친 문장에서는 '是'에 후행하는 행위자, 시간, 방식을 나타내는 세 가지 정보가 모두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초점 논항이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초점 논항이 한 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항-초점 구조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98]

만일 (34)의 밑줄 친 문장에서 '的'를 '了'로 대체할 경우 모두 비문이 된다. 따라서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是+XP+VP的' 분열구문이 쓰이는 문맥에서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4') a. 郭祥一看，原来是白英子，惊奇地问："你怎么到这儿来了?" "*是妈妈带我来了。"她笑着说。郭样知道她说的是朴贞淑。又问："她怎么来

98) 4.1 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에서 '是'와 동사 사이에 둘 이상의 논항이 출현하는 경우 다중 논항-초점 구조로 보고자 한다.

啦?”“不光她来啦，阿爸基也来啦!”

b. 罗萨莉正要跨出门坎，再走几步就自由了，却被她父亲逮个正着。“烂货，你要到哪儿去？”罗登在抓住她时大叫一声，与此同时，隆博抓住了我。“啊！”罗登看着我，又说道，“*是这个贱货帮你逃跑了!”

c. 我看过他主演的≪哈姆莱特≫，*是db去年带了菲芘和我一起去看了。他先请我们吃了顿午饭，然后请我们去看戏。

본고는 코퍼스를 통해 ‘S+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과거 사건에 쓰인 경우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35) a.“孩子，告诉老师，明儿后儿，束修我准送过来。”正说着，藏青布帘子冲开了一道缝，随着是一个矮小肥胖的女人捧着一盆热水进来了。“姑娘，真难为你了。”妇人急忙接了过来。（萧乾,『矮檐』)
“얘야,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내일이나 모레 학비를 내가 꼭 드린다고.” 한창 말을 하고 있는데, 감색 커튼이 열렸고, 곧 왜소하고 뚱뚱한 여자가 뜨거운 물 한 대야를 들고 들어왔다. “얘야, 정말 고생이 많다.” 부인은 급히 그것을 받아 들었다.

b. 于连津津有味地吃着晚饭，这时，突然有人使劲摇晃房门。是德·莱纳先生来了。于连只来得及钻到沙发底下。（司汤达,『红与黑』)
위랜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세게 흔들었다. 드레너 씨가 왔다. 위랜은 소파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c. 黑暗中的一群人走到了废井边，他们围在井边忙碌了一会儿，颂莲就听见一声沉闷的响声，好像井里溅出了很高很白的水珠。是一个人被扔到井里去了。（苏童,『妻妾成群』)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폐우물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우물가에서 한동안 바쁘게 움직였다. 쑹롄은 묵직한 소리를 들었고, 우물에서 높고 하얀 물방울이 튀어 올라오는 듯했다. 누군가 우물에 던져졌다.

예문 (35.a) ~ (35.c)의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是+XP+VP了’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이다. (35.a)에서 '是' 초점구문이 쓰인 앞뒤 문맥을 보면 '一个矮小肥胖的女人'(왜소하고 뚱뚱한 여자)나, '捧着一盆热水进来了'(누군가 뜨거운 물 한 대야를 들고 들어왔다)에 대한 정보는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35.a)의 문맥에서 '是+XP+VP了'의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은 전체 문장이 새로운 정보로서 초점으로 기능한다. (35.b)의 경우 '是德 · 莱纳先生来了'(드레너 씨가 왔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묘사한 문장이므로, 이 경우 역시 전체 문장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35.c)의 경우에는 우물에서 높고 하얀 물방울이 튀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누군가 우물에 던져졌기 때문이다'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是一个人被扔到井里去了'는 문장-초점 구조로 해석된다. 즉, (35.a) ~ (35.c)의 '是' 초점구문은 모두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하는 문장-초점 구조로 볼 수 있다.[99]

본고는 예문 (35)의 '是+XP+VP了' 구문이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이유에 대해 '是'와 '了$_2$'의 기능 때문이라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일반적으로 '了$_2$'가 출현하는 경우 술어 부분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是+XP+VP了' 구문의 경우 초점표지인 '是'의 기능으로 인해 XP가 초점이 되어야 하므로, 전체 문장이 초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만일 (35)의 밑줄 친 문장에서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 (35')와 같이 과거 사건의 세부 정보를 강조하는 '是+XP+VP的' 분열구문이 된다.

---

99) Cheng(2008), 刘莹 · 李宝伦(2019) 등도 '是+XP+VP 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일반적으로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주장하였다. 아래와 같은 대화 상황에서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发生了什么事情'(무슨 일이야)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으며 이 경우 '是+XP+VP 了' 구문은 전체 문장이 새로운 정보로 기능한다.

A: 发生了什么事情？吓我一跳。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네.

B: 是小高打碎了花瓶，别担心。
샤오가오가 화병을 깨뜨렸어. 걱정하지 마.

(刘莹 · 李宝伦, 2019: 680)

(35') a. 是一个矮小肥胖的女人捧着一盆热水进来的。
b. 是德·莱纳先生来的。
c. 是一个人被扔到井里去的。

예문 (35)의 '是' 초점구문과 (35')의 분열구문을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는 여전히 과거를 나타내지만,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是' 초점구문과는 달리 (35')에서는 '是'와 동사 사이에 있는 논항만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즉, (35'.a)의 경우 행위자와 방식을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며 (35'.b)와 (35'.c)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예문 (35)에서 문장-초점 구조인 '是+XP+VP了' 구문을 '是+XP+VP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경우 XP만 초점이 되므로 문맥상 어색해진다.

또한, '是+XP+VP了' 형식의 경우 XP의 위치에는 일반적으로 '谁'(누구), '什么时候'(언제), '在哪儿'(어디서) 등과 같은 의문대사가 출현할 수 없다.

(36) a. *是谁打碎了花瓶？
b. *是什么时候打碎了花瓶？

'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서 XP의 위치에 '谁'(누구), '什么时候'(언제), '在哪儿'(어디서) 등과 같은 의문대사가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은 XP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분열구문은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하지만, '是' 초점구문은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구문의 화용적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두 구문이 출현하는 문맥적 상황도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코퍼스를 통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예문 (37)과 같이 '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을 '是+XP+VP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맥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37) 我现在是光棍，我老婆死了，说得更确切些，是一个江湖医生害死了她。
她怀孕的时候，那个医生给她吃了泻药。 (塞万提斯,『堂吉诃德』)
저는 현재 홀아비이고, 제 아내는 죽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돌팔이 의사가 그녀를 죽였어요. 그녀가 임신 중일 때 그 돌팔이 의사가 그녀에게 설사약을 먹였어요.

예문 (37)의 밑줄 친 문장은 '是+XP+VP了'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다. 화자는 우선 '是' 초점구문의 앞 문장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그다음 문장에서 '是' 초점구문을 사용하여 '누군가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37)의 '是' 초점구문은 '是'에 후행하는 전체 문장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문장-초점 구조로 해석된다. 예문 (37)의 밑줄 친 문장의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37') 我现在是光棍，我老婆死了，说得更确切些，是一个江湖医生害死的她。
她怀孕的时候，那个医生给她吃了泻药。
저는 현재 홀아비이고, 제 아내는 죽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돌팔이 의사가 그녀를 죽였어요. 그녀가 임신 중일 때 그 돌팔이 의사가 그녀에게 설사약을 먹였어요.

예문 (37)의 '是' 초점구문에서 '了'를 '的'로 대체할 경우 (37')와 같이 '是…的' 분열구문이 되며 초점은 '一个江湖医生'(어떤 돌팔이 의사)가 되고, 나머지 내용은 전제가 된다. 즉, (37')의 문맥에서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할 경우 '아내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어도 청자는 관습적으로 이 내용을 전제로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예문 (37)은 문맥적으로 두 가지 초점 구조를 모두 허락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 '是' 초점구문을 쓸지, '是…的' 분열구문을 쓸지는 화자의 일종의 발화 책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두 구문에 출현하는 목적어의 지시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是+XP+VP的' 분열구문의 경우에는 목적어의 위치에 비한정 명사구가 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8) a. 是张三叫我给他买的书。
장싼이 저를 시켜 그에게 책을 사주었어요.
b. 是张三叫我给他买的那本书。
장싼이 저를 시켜 그에게 그 책을 사주었어요.
c. *是张三叫我给他买的一本书。

그러나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목적어의 위치에 비한정 명사구가 출현할 수 있다.

(39) a. 她母亲花了三十元的巨款，几乎是一个月的薪水配了一副眼镜，但是似乎也不能减除头痛的毛病。(林语堂,『风声鹤唳』)
그녀의 어머니는 30위안의 거액을 써서, 거의 한 달 월급으로 안경 하나를 맞추었지만, 두통 문제는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b. 仿佛在一片大水之上，仿佛有一条船，仿佛是一个水手驾了一只木舟。窗外，丝丝缕缕的残云在天上舒卷撕缠，风刮起雪尘肆无忌惮地扬洒在空中，太阳把它们照耀得迷蒙灿烂。(史铁生,『边缘』)
마치 큰물 위에 있는 것 같았고, 마치 배 한 척이 있는 것 같았으며, 마치 선원이 나무배 하나를 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는 실낱 같은 잔운들이 하늘에 휘감기고,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거리낌 없이 공중에 흩날리고, 태양은 이것들을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었어요.

예문 (39)의 밑줄 친 문장들은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며 해당 문장의 목적어인 '一副眼镜'(안경 하나)와 '一只木舟'(나무배 하나)는 모두 '수+량+명사'의 형식으로 쓰인 비한정 명사구이다. 따라서 예문 (39)를 통해 '是+XP+VP'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수량구를 동반하는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是'의 앞에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출현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S+是+XP+VP的'와 '是+XP+VP的' 유형의 분열구문에서 목적어의 위치에 비한정 명사구가 출현할 수 없는 반면, 'S+是+XP+VP'와 '是+XP+VP' 유형의 '是' 초점구문에서는 비한정 명사구가 출현할 수 있다. 또한,

그 이유도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목적어가 비한정 명사구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초점이 되므로, 초점의 범위는 문말이 된다.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하며 목적어는 초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정보구조적으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是+XP+VP的' 분열구문의 경우에는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을 나타내는 XP가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초점의 위치는 동사의 앞쪽이 된다. 따라서 분열구문에서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출현한다면 두 가지 유형의 초점 구조가 상충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是…的' 분열구문에는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장이 의미하는 시제가 비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是+XP+VP的'와 'S+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은 모두 과거 사건에만 쓰인다. 또한, 아래의 예문을 통해 '是+XP+VP的' 형식의 분열구문도 비과거 사건에는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0) a. *是爸爸让我{现在/明天…}见的他。
b. *是张三叫我{现在/明天…}去的北京。
c. *是姐姐{现在/明天…}带我进的城。
d. *是妈妈{现在/明天…}陪我去的医院。

다음의 대화문을 보자.

(41) A: 请问，是你们单位(公司)招人吗？
실례지만, 그쪽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하나요?
B: 对，是我们。
네. 맞습니다.

(42) A: 明天孩子的家长会，你们家谁去？
내일 아이들 학부모회에 당신 집에서는 누가 가나요?
B: 是孩子他爸去。
애들 아빠가 가요.

예문 (41.A)와 (41.B)의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是+XP+VP' 형식으로 쓰인 '是' 초점구문이다. 또한, (41.A)의 경우 현재 시제를 나타내며 문장의 초점은 '是'에 후행하는 행위자이다. (41.B)의 경우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며 (41.A)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41)과 (42)를 통해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비과거 사건에도 쓰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是'에 후행하는 XP가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코퍼스를 통해 찾은 예문이다.

(43) a. "哪一位找招待员？我就是的。"只说了这句，那前面一个女子便迎上前道："是我们找招待员。我们是杨柳歌舞团的人，请你引我们到后台去吧。"(张恨水,『美人恩』)
"어느 분이 접수원을 찾나요? 제가 접수원이에요."라고 말하자 그 앞에 있던 여자가 다가와서 말했다. "저희가 접수원을 찾고 있어요. 저희는 양류가무단 사람들인데요. 저희를 무대 뒤로 안내해 주세요."

b. "明天吃喜酒你去不去呀？"曼璐却又听见了，问："吃谁的喜酒？"曼桢道："是我一个老同学明天结婚。妈，我明天要是来不及，我直接去了，你到时候别等我。"(张爱玲,『半生缘』)
"내일 결혼 축하주 마시러 갈래요?" 만루가 듣고 물었다. "누구 결혼 축하주인데요?" "제 동창 하나가 내일 결혼해요. 어머니! 제가 내일 늦어지게 되면 바로 갈게요.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예문 (43.a)의 밑줄 친 문장은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으로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며 (43.b)의 경우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是' 초점구문이다. 또한, (43.a)에서 '是' 초점구문이 쓰인 문맥을 보면 '누군가 접수원을 찾고 있다'는 것은 전제이므로, 이 경우에 초점은 '我们'(우리)가 된다. (43.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맥상 '누군가 내일 결혼한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으므로 '我一个老同学'(나의 동창 한 명)이 초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이 비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초점은 '是'에 후행하는 논항이며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是'의 앞에 동사의 의미상 주어나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에 비과거 시점 표현이 출현하는 경우 동사의 뒤에는 '的'를 부가할 수 없다. 그러나 비과거 시점 표현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的'를 부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과거 사건의 장소, 시간, 방식, 행위자 등을 강조하는 분열구문으로 기능한다.

(41') A: 请问，是你们单位(公司)招的人吗？
B: 对，是我们。
(42') A: 明天孩子的家长会，你们家谁去？
B: *是孩子他爸去的。
(43') a. 是我们找的招待员。
b. *是我一个老同学明天结的婚。

지금까지 '是+XP+VP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是+XP+VP的' 분열구문은 반드시 과거 사건에만 쓰이는 반면,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우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是'의 앞에 동사의 의미상 주어나,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즉, '是…的' 분열구문은 반드시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화자와 청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쓰이는 반면, '是' 초점구문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도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是' 초점구문의 전제는 부정할 수 있지만, '是…的' 분열구문의 전제는 부정할 수 없다.

(44) A: 明天是谁去北京？
내일 누가 베이징에 가나요?
B: 没人去。
아무도 안 가요.
(45) A: 是谁去的北京？
누가 베이징에 갔어요?
B: *没人去。

다음으로 ‘是+XP+VP的’ 분열구문은 항상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반면,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하며 비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구문이 의미하는 시제가 모두 과거일지라도 화용적 기능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是…的’ 분열구문이 쓰인 문맥에서 분열구문 대신 ‘是’ 초점구문을 쓸 수 없으며 ‘是’ 초점구문을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是+XP+VP’ 형식의 ‘是’ 초점구문의 경우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지만, ‘是+XP+VP的’ 분열구문의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없다.

7.5 소결

본 장에서는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是…的’ 분열구문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만 쓰이는 반면, ‘是’ 초점구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에 모두 쓰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是…的’ 분열구문은 반드시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화자와 청자에 의해 이미 확인된 과거 사건인 경우에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미래 사건에도 잘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是’ 초점구문의 전제는 부정할 수 있지만, ‘是…的’ 분열구문의 전제는 부정할 수 없다.

둘째, ‘是…的’ 분열구문에서는 반드시 ‘是’에 후행하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지만,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도 있고, 서술어-초점 구조나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도 있다. 즉, ‘是’ 초점구문이 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 ‘S+是+XP+VP了’와 ‘O+是+XP+VP了’는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하며 ‘是+XP+VP了’는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한다. 또한, ‘是’ 초점구문이 비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한다.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7-2]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 비교

구문 유형	시제	수용성	초점 구조
‘是…的’ 분열구문	과거	○	논항-초점
	현재	X	-
	미래	X	-
‘是’ 초점구문	과거	○	서술어-초점/문장-초점
	현재	○	논항-초점
	미래	○	논항-초점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과거 사건의 세부 정보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이 쓰이며 현재나 미래 사건의 세부 정보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是’ 초점구문이 쓰임을 알 수 있다. 즉, 논항-초점 구조로 해석되는 경우 두 구문의 출현은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은 화용적으로 다르게 기능하므로, ‘是…的’ 분열구문이 쓰인 문맥에서 분열구문 대신 ‘是’ 초점구문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是’ 초점구문을 ‘是…的’ 분열구문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셋째,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없지만,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목적어가 비한정 명사구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초점이 되며 초점의 범위는 문말이 된다. 그러나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등 세부 정보가 초점이 되므로 초점의 범위는 동사의 앞쪽에 놓인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에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할 경우 두 유형의 정보구조가 상충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是…的’ 분열구문에는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할 수 없다. 반면, ‘是’ 초점구문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술어나,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목적어가 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은 ‘是’ 초점구문에 비해 시제적으로나, 정보구조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비한정 목적어와의 공기 관계에서도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사와의 공기 제약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본고는 4장에서 지속성이 강하거나 종결성이 없는 동사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경우 강한 제약을 받음을 밝혔다. 즉, 상태 상황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에서 ‘可爱’(귀엽다), ‘喜欢’(좋아하다), ‘爱’(사랑하다)는 모두 전형적인 상태동사들이며 이러한 동사들은 ‘是’ 초점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46) a. 这个小孩子是挺可爱。 (刘林, 2013: 85)
이 아이는 귀여워요.

b. “噢！不是，他什么都没有跟我说过，你知道他多尊重你。是我喜欢你，想你留下来。”“二表姐，我有空再来看你！”(岑凯伦,『蜜糖儿』)
“아! 아니, 그는 아무것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그가 너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서, 네가 남기를 바라는 거야.”“둘째 언니, 제가 한가할 때 또 올게요!”

c. 你的目光让我恐惧。我怕你。伟大的天主啊！你是从来也没有爱过我吗？如果是这样的话，就让我丈夫发现我们的爱情吧。 (司汤达,『红与黑』)
당신의 눈빛은 저를 두렵게 해요. 저는 당신이 무서워요. 위대한 천주님!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사랑한 적이 없나요? 만일 그렇다면, 저의 남편이 우리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고는 이러한 동사 제약의 원인을 완정상 ‘的’의 기능과 ‘是…的’ 분열구문의 정보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본다. 즉, ‘是’ 초점구문에서 ‘是’는 초점의 앞에 부가되어 초점표지로서만 기능하지만,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的’의 완정상 기능으로 인해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줌으로써 실현된 사건을 나타내게 되며 화자와 청자에게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은 과거에 이미 실현된 사건에만 쓰일 수 있다. 또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반드시 자연 종점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가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쉽게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 인식된다. 반면,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자연 종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속의 자질이 강한 동사일수록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화용적 기능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구문의 정보구조가 동일하다고 주장한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적절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제8장 결론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是…的' 분열구문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분열구문의 기능을 갖는 '是…的'의 형식이 반드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왜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지, 동사의 출현에는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는지,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명사화구문과는 어떠한 연관성과 차이점을 갖는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的'의 기능은 무엇인지, 정보구조적으로는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우선, '是…的' 분열구문이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동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상적 자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의 동사들을 상적 자질에 근거하여 재분류한 후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동사들이 출현할 수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시간 표현이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각 유형의 동사들이 어떤 시간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고는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현재 상표지로 문법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문법화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각 방언 지역에서 '是…的'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 '的'가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的'의 문법적 기능 및 전반적인 문법화 경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是' 초점구문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동사를 동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자질로써 상태, 동작, 달성 및 성취의 네 가지 상황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의 동사들이 내포하는 특징과 자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태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

의 형식에 출현할 수 없다. 대표적인 상태동사에는 ‘喜欢’, ‘爱’, ‘相信’ 등이 있으며 형용사도 상태 상황유형에 속한다. 다음으로 동작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동작 상황유형을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강지속, 약지속, 비지속의 세 부류로 구분하였다. 강지속동사에는 ‘等’, ‘找’ ‘盯’ 등과 같이 지속성이 강한 동사들이 속하며 약지속동사에는 ‘看’, ‘做’, ‘写’ 등과 같이 지속성이 약한 동사들이 속한다. 그리고 비지속동사에는 ‘碰’, ‘眨(眼)’, ‘咳嗽’ 등과 같이 지속의 자질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순간동사들이 속한다. 달성 상황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일반적으로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출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달성동사에는 ‘来/去’, ‘买’, ‘见’ 등이 속하며 ‘吃饱’, ‘写完’, ‘走进’, ‘跑出来’ 등과 같이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부가된 경우도 달성 상황유형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들은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며 중첩, ‘V一下’, 명령문의 형식에 모두 출현할 수 없다. 대표적인 성취동사들은 ‘死’, ‘发现’, ‘毕业’ 등이 있다.

둘째,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은 ‘O+是+XP+VP的’, ‘S+是+XP+VP的’, ‘是+XP+VP的’로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O+是+XP+VP的’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是+XP+VP的’이다. 다음으로 각 유형의 분열구문에서 어떤 논항이 초점으로 자주 출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O+是+XP+VP的’의 경우 행위자, 시간, 방식,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이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S+是+XP+VP的’의 경우에는 방식,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논항의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 ‘是+XP+VP的’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논항이 다른 논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행위자와 방식을 나타내는 두 논항이 함께 초점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셋째,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일수록, [+지속]의 자질이 약한 동사일수록 ‘是…的’ 분열구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반면, [-종결]의 자질을 갖는 동사들 중 [+지속]의 자질이 강한 상태동사들과 강지속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找

到', '发现' 등과 같이 사건의 종점을 인식할 수 있는 동사일수록 분열구문을 구성하기 쉬움을 말해주며, 분열구문은 이러한 자질을 지닌 동사가 쓰인 구문으로부터 발전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是…的'의 형식으로 쓰인 문장이 분열구문으로 해석될지,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될지는 동사의 상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동사가 [+종결], [-지속]의 속성이 강할수록 과거 시점 표현과만 공기하며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종결]이면서 [+지속]의 속성이 강한 동사일수록 다양한 시점 표지과 공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분열구문이 아니라,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약지속-동작동사가 'O+是+XP+VP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서 논항 초점을 갖는 분열구문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현재의 반복적인 행위로서 대조 초점을 갖는 명사화구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분열구문과 명사화구문은 동사의 상적 의미에 따라 정보구조적으로 다르게 쓰이며 문장의 시제도 과거로 해석되거나, 비과거로 해석될 수 있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분열구문은 명사화구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사화구문과 분열구문 사이에는 일종의 연속적 변이가 존재하지만 뚜렷한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是…的' 분열구문에 쓰인 '的'는 현재 완정상 표지로 문법화하는 단계에 있다. 본고에서 '的'를 완정상으로 분류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的'는 완정상 '了$_1$'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내며 다른 상표지와 공기할 수 없다. 또한, 분열구문의 '的'는 점차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중국어 상표지의 전형적인 위치이다. 분열구문에서 '的'의 분포적 변화가 발생한 것은 '的'의 문법적 기능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다. 본고는 7대 방언 지역의 251명의 화자가 분열구문을 사용할 때의 '的'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的'의 분포는 우선적으로 운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방 지역으로 갈수록 '的'가 문말에 출현하는 경향이 강하고, 북방 관화 지역으로 갈수록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是…的' 분열구문의 '的'는 북방 관화

(官话) 지역에서부터 문말에서 목적어의 앞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적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的’가 상표지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문법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是…的’ 분열구문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만 쓰이며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화자와 청자에 의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쓰일 수 있다. 반면, ‘是’ 초점구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에 모두 쓰일 수 있으며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미래 사건에도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반드시 ‘是’에 후행하는 논항이 초점으로 기능하지만,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도 있고, 서술어-초점 구조나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是’ 초점구문이 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 ‘O+是+XP+VP’와 ‘S+是+XP+VP’는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하며 ‘是+XP+VP’는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是’ 초점구문이 비과거 사건에 쓰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논항-초점 구조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과거 사건의 세부 정보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是…的’ 형식의 분열구문이 쓰이며 현재나 미래 사건의 세부 정보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是’ 초점구문이 쓰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논항-초점 구조로 해석되는 경우 두 구문의 출현은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是…的’ 분열구문의 경우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없지만, ‘是’ 초점구문의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비한정 명사구가 목적어로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화용적 기능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구문의 정보구조가 동일하다고 주장한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是…的’ 분열구문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만 쓰이며 동사의 출현에 제약을 갖는 이유에 대해 정보구조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완정상 ‘的’의 기능과 동사의 상적 특성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是…的’ 분열구문은 반드시 화자와 청자에 의해 확인된 사건임을 전제로 하며 ‘的’의 완정상 기능으로 인해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줌으로써 이미 실현된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是…的’ 분열구문은 과거에 이미 실현된 사건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또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의 내부구조 속에는

반드시 자연 종점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동사들이 의미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가 '是…的'의 형식에 출현하는 경우 쉽게 과거에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 인식된다. 반면, 동사가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자연 종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속의 자질이 강한 동사일수록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은 '是…的' 분열구문에 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강병규(2019),『중국어 어순의 지리적 변이와 유형학적인 의미』, 역락.

고영근(2004),『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김성화(2003),『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김영희(2005),『한국어 통사 현상의 의의』, 역락.

김현철, 김시연, 김태은(2019),『중국어학입문』, 학고방.

김현철, 박정구, 최규발 역(2007),『중국어어법 연구방법론』(陆俭明, 2005), 차이나 하우스.

박정구 역(2005),『중국어 화용론』(温锁林, 2001), 서울: 신성.

박정구, 백은희, 조은정 역(2020),『고대중국어 문법론』(梅广, 2018), 서울: 한국문화사.

박찬욱 역(2019),『중국어 화용론의 이해』(李櫻, 2012), 학고방.

박철우(2003),『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이성하(1998),『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조경환(2015),『중국어의 상: 안과 밖』, 역락.

曹逢甫(1977),『主题在汉语中的功能研究——迈向语段分析的第一步』, 北京: 语文出版社.

陈昌来(2000),『现代汉语句子』,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_____(2003),『现代汉语语义平面问题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陈前瑞(2008),『汉语体貌研究的类型学视野』, 北京: 商务印书馆.

戴昭铭(2003),『汉语方言语法研究和探索』, 黑龙江: 黑龙江人民出版社.

丁声树(1961),『现代汉语语法讲话』, 北京: 商务印书馆.

范开泰(1990),『现代汉语语法分析』,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房玉清(1992),『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冯胜利(2009),『汉语的韵律、词法与句法(修订本)』, 北京: 北京出版社.

郭锡良(1981),『古代汉语』, 北京: 商务印书馆.
郭锐(2002),『现代汉语词类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胡裕树 · 范晓(1995),『动词研究』, 河南: 河南大学出版社.
黄景湖(1987),『汉语方言学』, 厦门: 厦门大学出版社.
蒋绍愚(2005),『古汉语词汇纲要』,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黎锦熙(1924),『新著国语文法』, 北京: 商务印书馆.
李临定(1986),『现代汉语句型』, 北京: 商务印书馆.
李如龙(2001),『汉语方言学』,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李小凡 · 项梦冰(2009),『汉语方言学基础教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刘丹青(2008),『语法调查研究手册』, 上海 : 上海教育出版社.
刘丹青 · 徐烈炯(2003),『话题与焦点新论』,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刘月华 · 潘文娱 · 故韡(2001),『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龙果夫(1958),『现代汉语语法研究』(Dragunov, 1952), 北京: 科学出版社.
陆丙甫 · 金立鑫(2015),『语言类型学教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卢福波(1996),『对外汉语教学实用语法』,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吕叔湘(1942),『中国文法要略』, 北京: 商务印书馆.
_____(1979),『汉语语法分析问题』, 北京 : 商务印书馆.
马庆株(1992),『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史金生(2017),『语法化的语用机制与汉语虚词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石毓智(2006),『语法化的动因与机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太田辰夫(1958[2003]),『中国语历史文法』, 蒋绍愚 · 徐昌华译,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完　权(2016),『'的'的性质与功能』, 北京: 商务印书馆.
_____(2018),『说'的'和'的'字结构』, 上海: 学林出版社.
王　力(1957),『汉语史稿』, 北京: 科学出版社.
_____(1987/1954),『中国现代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_____(1989/1943),『汉语语法史』, 北京: 商务印书馆.
吴福祥 · 邢向东(2013),『'语法化与语法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吴早生(2011),『汉语领属结构的信息可及性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袁家骅(1989),『汉语方言概要』,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张伯江(2016),『从施受关系到句式语义』, 上海: 学林出版社.

张和友(2012),『"是"字结构的句法语义研究：汉语语义性特点的一个视角』,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朱德熙(1982),『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Binnick, I. R. (2012),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orkin, A. (1984), *Problems in form and function*,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rlson, G. N.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Chao, Y. R. (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ollins, P. C. (1991), *Cleft and Pseudo-cleft Constructions in English*, London: Routledge.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ley, W. A. & Robert D. V. V. (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bert, R. (1949),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Barnes and Noble.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ne, B. & Kuteva, T.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spersen, O. (1937/1969), *Analytic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Kenny, A. (1963),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 C. N. & Thompson, A. S.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ulleyblank, G. E. (1995[2005]),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양세욱 옮김, 서울: 궁리

Smith, S. C. (1997), *The Parameter of Aspect*, Springer-Science+Business Media, B.V.

Stassen, L.(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e University press.

Whaley, L. J. (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s.

Wu, G. (1998),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Peking University Press.

Xiao, R. & McEnery, T. (2004), *Aspect in Mandarin Chinese: a corpus-based study*,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Pub.

2. 논문류

고영란(2021),「‘是…的’ 강조구문 고착 – 문법화의 관점에서」,『중국언어연구』 제96호, 357-384.

김미성(2018),「중국어 순간동사 범주에 대한 고찰」,『중국인문과학』 제69집, 43-61.

김선희(2015a),「명대 ‘是…的’ 형식 과거의미 분석 - ≪수호전≫, ≪서유기≫를 중

심으로」,『중국어문학논집』 제91집, 177-196.

_____(2015b),「타동성 관점으로 본 근대중국어 과거의미 ‘是…的’ 형식의 “的” -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을 중심으로」,『중국문학연구』 제60집, 213-241.

김성종(2004),「영어의 분열문」,『언어학』 제8호, 79-124.

김지나(2012),「“是…的”구조에 대한 연구」,『동아인문학』 제21집, 81-99.

김현철, 권문란(2012),「현대중국어 ‘VV’형 동사중첩식의 의미 고찰」,『중국어문학논집』 제76호, 199-228.

김현철, 김세미(2015),「현대중국어 ‘V+Ct’ 구조의 지속 의미 연구」,『중국어문학논집』 제94호, 59-83.

박정구(2016),「중국어 상 체계의 언어유형적 특성 고찰 -완정상으로의 문법화 경로에 놓인 변이를 중심으로-」,『중국학보』 제77권, 87-111.

_____(2020),「중국어의 형식과 의미의 조화, 그리고 그의 인지적 투영」, 2020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정구, 강병규, 유수경(2017),「언어유형론적 관점에 입각한 기점 표시 부치사의 의미지도 연구 – 중국어 방언 분석을 중심으로」,『중국언어연구』 제71권, 109-158.

박정구, 강병규, 유수경(2020),「중국어 방언의 완정상 · 완료상 · 완성상 표지의 분포와 그의 언어유형론적 함의」,『중국언어연구』 제87권, 219-258.

박정구, 이명숙, 유수경(2022),「현대 중국어 논항 생략 계사문의 정보구조 - ‘我就是’, ‘就是我’ 형식을 중심으로」,『중국언어연구』 제100권, 109-138.

박진호(2011),「시제, 상, 양태」,『국어학』 제60권, 289-322.

박철우(2008),「국어 분열문의 통사구조」,『한말연구』 제22호, 77-96.

백은희(2018a),「고대 중국어의 지시사 형식과 인지 범주의 상관성」,『중국언어연구』 제65권, 391-421.

_____(2018b),「중국어 경험상 표지 ‘过’의 유형학적 특징과 문법화 과정」,『중어중문학』 제73집, 227-251.

_____(2018c),「고대중국어 지시사 ‘부(夫)’의 문법화와 소실 과정에 대한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74권, 245-269.

손 욱(2022), 「한국어 '-ㄴ 것이다' 구문과 중국어 '是……的' 구문의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제86호, 145-170.

송화연(2002), 「현대 중국어 시제 구조와 의미」, 『중국학논총』 제14호, 173-190.

양운비(2016), 「한국어 시제 형태소 '-었-'의 기능에 관한 연구」, 『중한언어문화연구』 제11권, 281-309.

원춘옥(2015), 「현대중국어 '……的'구문과 '是……的'(一)」, 『중국어문논총』 제68집, 27-49.

유수경(2021), 「언어유형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중국어 동사중첩의 어법특성과 발전기제 고찰」, 『중국어문학지』 제75집, 169-201.

윤유정(2019a), 「현대중국어 분열문 및 준분열문」, 『외국학연구』 제48집, 79-108.

_____(2019b), 「현대중국어 준분열문 'S+VP+的是+NP' 격식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17집, 73-97.

윤비취(2021), 「중국어 '是……的'구문의 의미 기능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28호, 107-122.

이남근(2008), 「한국어 분열구문의 유형과 특성: HPSG 분석」, 『언어연구』 제25권, 25-38.

이범열(2010), 「현대중국어 '是…的'구문의 생성과 사용」, 『동북아문화연구』 제22권, 169-186.

이승희(2018), 「한 · 중 어휘상 유형에 관한 고찰 -Vendler(1967)와 Smith(1997)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7권, 55-84.

이옥주(2009), 「표준중국어 운율단위(prosodic unit)와 경계억양(boundary tone)에 대한 고찰 -마(마)의문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회』 제30권, 271-297.

이은수(2009), 「현대중국어의 상황상 연구」, 『중국학논총』 제26권, 1-23.

이은경(2021), 「현대중국어 'O是SV的' 구문의 시제 제약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96권, 281-312.

_____(2022a), 「중국어 '是…的' 구문의 상황유형에 따른 시간 표현 공기 제약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99권, 207-246.

_____(2022b),「말뭉치 자료에 근거한 ‘是…的’ 분열구문의 유형과 동사의 상황 유형 고찰」,『중국언어연구』 제102권, 213-254.

_____(2022c),「현대중국어 분열문에 쓰인 ‘的’의 문법적 기능 고찰」,『중국문학』 제113집, 205-234.

_____(2022d),「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과 ‘是’ 초점구문의 정보구조 대조 분석」,『중국언어연구』 제103권, 267-308.

이지원(2021),「중국어 어기조사 ‘的’, ‘呢’, ‘嘛’의 ‘확신적 태도’ 비교분석」,『담화와인지』 제28권, 99-125.

임규홍(1986),「국어 분열문에 관한 연구」,『어문학』 제48권, 155-175.

정인정(2020),「‘SV的O’형식의 분열문 특성 및 의미-화용기능」,『중국어문학논집』 제125권, 203-225.

敖镜浩(1985),「论系词“是”的产生」,『语言教学与研究』 第2期, 29-41.

曹广顺(1986),「≪祖堂集≫中的“底”(地)、“却”(了)、“着”」,『中国语文』 第3期, 192-202.

陈立民(2003),「汉语的时态和时态成分」,『语言研究』 第3期, 14-31.

陈　平(1988),「论现代汉语时间系统的三元结构」,『中国语文』 第6期, 401-422.

陈前瑞 · 张华(2007),「从句尾“了”到词尾“了” - ≪祖堂集≫ ≪三朝北盟会编≫中“了”用法的发展」,『语言教学与研究』 第3期, 63-71.

崔希亮(1995),「“把”字句的若干句法语义问题」,『世界汉语教学』 第3期, 12-21.

戴浩一(2007),「中文构词与句法的概念结构」,『华语文教学研究』 第4期, 1-30.

邓守信(1985),「汉语动词的时间结构」,『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7-17.

邓思颖(2002),「汉语时间词谓语句的限制条件」,『中国语文』 第3期, 217-287.

董秀芳(2003),「无标记焦点和有标记焦点的确定原则」,『汉语学习』 第1期, 10-16.

_____(2009),「整体与部分关系在汉语词汇系统中的表现及在汉语句法中的突显性」,『世界汉语教学』 第4期, 435-442.

范方莲(1963),「存在句」,『中国语文』 第5期, 386-395.

范开泰(1985),「语用分析说略」,『中国语文』 第6期, 401-408.

方　梅(1995),「汉语对比焦点的句法表现手段」,『中国语文』 第4期, 279-288.

冯志纯(1989), 「结构助词“的”和语气助词“的”的用法及其辨别」, 『自贡师专学报』 第2期, 38-40.

郭锡良(1990), 「关于系词“是”产生的时代和来源论争的几点认识」, 『汉语史论集(增补本)』, 82-95.

郭　红(2017), 「时间助词“来着”与“的2”辨析」, 『嘉兴学院学报』 第29卷, 86-91.

郭　锐(1993), 「汉语动词的过程结构」, 『中国语文』 第6期, 410-419.

韩　昱(2011), 「近代汉语时期的“是……的”句式分析」, 『鸡西大学学报』 第6期, 110-112.

何薇 · 朱景松(2015), 「瞬间动作动词的确定和语义语法特征」, 『苏州大学学报』 第6期, 158-166.

黄长著(1987), 「世界语言的分类」, 『外语教学与研究』 第3期, 1-11.

黄正德(1989), 「说“是”和“有”」, 『李方桂先生纪念论文集』 台北: 学生书局, 43-64.

黎锦熙 · 刘世儒(1957), 「汉语语法的科学体系和学科体系」,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 第2期, 102-128.

李晗 · 李慧敏(2020), 「汉语分裂句的焦点结构与特点分析」, 『中国语言文字』 第4期, 36-39.

李讷 · 安珊笛 · 张伯江(1998), 「从话语角度论证语气词“的”」, 『中国语文』 第2期, 93-102.

李讷 · 石毓智(1997), 「论汉语体标记诞生的机制」, 『中国语文』 第2期, 82-96.

梁银峰(2012), 「关于系词“是”的产生年代和形成途径」, 『语言研究集刊』 第1期, 228-243.

李昭东(2009), 「关于指称和陈述」, 『中国语言研究』 第29辑, 77-93.

李铁根(2002), 「“了”、“着”、“过”与汉语时制的表达」, 『语言研究』 第3期, 1-13.

李振中 · 肖素英(2008), 「表时标记“的”多维度语义考察」, 『佛山科学技术学院学报』 第26卷 第4期, 6-10.

廉竹钧(2022), 「“(是)……的”句中“的”与宾语的位置关系 - 以“S(是)AVO的”和“S(是)AV的O”句式为主」, 『중국언어연구』 제98호, 273-308.

刘承贤(2010), 「台语ê kám与分裂句」, 『台语研究』 第2期, 104-141.

刘莹 · 李宝伦(2019), 「穷尽性还是对比性 — 从英语分裂句看汉语焦点类"是"字句的语义」,『外语教学与研究』第5期, 677-800.

刘莹 · 杨雨岸(2021), 「分列式"是"字句预设穷尽性的实证研究」,『现代汉语』 第5期, 669-680.

龙海平 · 肖小平(2011), 「"我是昨天买的票"句式及其相关问题」,『世界汉语教学』第3期, 305-317.

吕必松(1982), 「关于"是……的"结构的几个问题」,『语言教学与研究』第4期, 21-37.

马庆株(1991), 「顺序义对体词语法功能的影响」, 『二十世纪现代汉语语法论文精选』, 165-187.

马学良 · 史有为(1982), 「说"哪儿上的"及其"的"」,『语言研究』第1期, 60-70.

梅祖麟(1981), 「现代汉语完成貌句式和词尾的来源」,『语言研究』, 66-77.

_____(1988), 「词尾"底"、"的"的来源」(『梅祖麟语言学论文集』, 商务印书馆, 112-149).

木村英树(2003), 「"的"字句的句式语义及"的"字的功能扩展」,『中国语文』 第4期, 303-314.

年玉萍(2000), 「试析"是…的"句式」,『宝鸡文理学院学报』 第3期, 63-65.

牛秀兰(1991), 「关于"是…的"结构句的宾语位置问题」, 『世界汉语教学』 第3期, 175-178.

朴正九(2005), 「名词性谓语的语法特征及其教学」, 『中语中文学』 第37辑, 135-149.

_____(2016), 「从类型学视角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中国语文』 第4期, 387-396.

_____(2018), 「从信息结构的角度探讨汉语的句子形式」(国际中国语言学学会第29届年会论文).

祁　峰(2014), 「汉语的焦点标记词」,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research* 3(1), 101-120.

齐沪扬(2003), 「语气词"的"、"了"的虚化机制及历时分析」, 『忻州师范大学学报』 第19卷, 30-36.

强星娜(2008),「话题标记代系词功能的类型学初探」,『语言科学』第6期, 615-625.

邱　峰(2014),「系词'是'字判断句的形成机制」,『湖北社会科学』第10期, 115-122.

杉村博文(1999),「"的"字结构, 承指与分类」(江蓝生; 侯精,『汉语现状与历史的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47-66).

沈家煊(1995),「'有界'与'无界'」,『中国语文』第5期, 367-380.

_____(2013),「谓语的指称性」,『外文研究』第1卷 第1期, 1-13.

史有为(1984),「表已然义的"的b"补议」,『语言研究』第1期, 249-255.

石毓智(1992),「论现代汉语的"体"范畴」,『中国社会科学』第6期, 183-201.

_____(2005),「论判断、焦点、强调、对比之关系—"是"的语法功能和使用条件」,『语言研究』第4期, 43-53.

宋玉柱(1978),「关于"是…的"结构的分析」,『天津师院学报』第4期, 75-76.

_____(1981),「关于时间助词"的"和"来着"」,『中国语文』第4期, 271-276.

孙朝奋(2018),「从汉语'是'和英语'BE'的对比看汉语国际教学语法」,『国际汉语教育』第3卷 第2期, 102-107.

汤廷池(1981),「国语分裂句、分裂变句、准分裂句的结构与限制之研究」,『语言学与语言教学』, 台湾学生书局, 177-204.

田　泉(1996),「"是"、"的"合用及单用非句法功能初探」,『汉语学习』第5期, 29-32.

完　权(2013),「事态句中的"的"」,『中国语文』第1期, 51-61.

王爱军(1998),「如何区别结构助词"的"和语气助词"的"」,『阅读与写作』第1期, 25-26.

王光全(2003),「过去完成体标记"的"在对话语体中的使用条件」,『语言研究』第4期, 18-25.

王红旗(2010),「"是"字句的话语功能」,『语言研究』第3期, 11-18.

王文颖(2018),「"是……的"句的两种焦点结构」,『语言教学与研究』第5期, 43-54.

吴福祥(1998),「重谈"动+了+宾"格式的来源和完成体助词"了"的产生」,『中国语文』第6期, 452-462.

杨素英(1998),「从情状类型来看"把"字句」,『汉语学习』第2期, 10-13.

_____(2000),「当代动貌理论与汉语」,『语法研究和探索』第9期, 81-105.

杨一姝(2018),「句末语气词"的"的确认语气考察」,『新疆大学学报』 第46卷, 第2期, 151-156.

徐杰 · 李英哲(1993), 「焦点和两个非线性语法范畴 : "否定"、"疑问"」, 『中国语文』第2期, 81-93.

余伟 · 代彦(2016), 「"是…的"句的语法结构及语义类型-兼与"是"字句比较」, 『忻州师范大学学报』第6期, 91-95.

苑趁趁(2018), 「汉语"时制"研究回顾与展望」, 『宁波大学学报』 第34卷, 第2期, 94-101.

袁毓林(2003), 「从焦点理论看句尾"的"的句法语义功能」, 『中国语文』 第1期, 3-16.

张宝林(1994), 「"是…的"句的歧义现象分析」, 『世界汉语教学』 第27卷, 第1期, 15-21.

张济卿(1998a),「论现代汉语的时制与体结构(上)」,『语文研究』第3期, 17-25.

_____(1998b),「论现代汉语的时制与体结构(下)」,『语文研究』第4期, 18-26.

张麟声(2017), 「'体词谓语句''是字句'的互补性分布」, 『海外华文教育』 第7期, 910-922.

_____(2017), 「从语言类型学的角度来看汉语'体词谓语句''是字句'的定位问题」, 『国际汉语学报』第8卷 第2辑, 1-14.

张 秀(1957), 「汉语动词的"体"和"时制"系统」, 『语法论集』, 北京: 中华书局, 154-174.

赵淑华(1979),「关于"是……的"句」,『语言教学与研究』第1期, 57-66.

朱德熙(1978), 「"的"字结构和判断句」, 『中国语文』 第1期, 23-27, 第2期, 104-109.

_____(1993),「从方言和历史看状态形容词的名词化」,『方言』第2期, 81-100.

左思民(2006), 「普通话动词的"动相"结构与体标记的焦点选择」(第十四次现代汉语语法学术讨论会论文).

_____(2009),「动词的动相分类」,『华东师范大学学报』第1期, 74-82.

Cheng, L. L.-S. (2008), Deconstructing the *shi...de* construction, *Linguistic Review* 25, 235-266.

Garey, H. B. (1957), Verbal Aspect in French, *Language* 33(2), 91-110.

Gundel, j. (1977), Where Do Cleft Sentences Come from? *Linguistics* 53, 543-559.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 Part Ⅱ,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Hedberg, N. A. (2000), The Referential Status of Clefts, *Linguistics* 76(4), 891-920.

Herriman, J. (2005), Negotiating a Position within Heteroglossic Diversity: wh-clefts and it-clefts in written discourse, *Word* 56, 223-248.

Hopper, P. J. & Thompson, S. A.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251-299.

Lambrecht, k. (2001),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left Constructions. *Linguistics* 39(3), 463-516.

Li, C. N. & Thompson, A. S. (1977), A mechanism for the development of copula morphemes, *Mechanisms of Syntactic Change.* Austin and London: University of Texas Press, 419-445.

Paul W. & John W. (2008), Shi…de Focus Clefts in Mandarin Chinese, *The Linguistic review* 25(3-4), 413-451.

Prince, E. (1978), A Comparison of Wh-Clefts and It-Clefts in Discourse, *Language* 54(4), 883-906.

Tai, J. H.-Y. (1984), Verbs and Times in Chinese: Vendler's Four Categorie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Lexical Semantics*, Chicago Linguistics Society, 289-296.

Tang, S.-W. (2011), On Gerundive Nominalization in Mandarin and Cantonese, *Nominalization in Asi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47-160.

Teng S.-h. (1979), Remark on Cleft Sentence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7(1), 101-114.

3. 학위논문

경소력(2018),『한국어 ‘것’과 중국어 ‘的’구문 대조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범련(2022),『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홍실(2018),『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숙영(2005),『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03),『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 례(2018),『인지구성문법에 기반한 한국어 ‘이다’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진현(2018),『現代漢語 焦點敏感詞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민용(2006),『현대중국어 ‘是’ 구문의 구조와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소정(2011),『현대중국어 ‘是…的’구문 연구 - 상과 초점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춘옥(2015),『현대중국어 ‘是…的’구문의 주관성과 주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2018),『현대중국어「S的O+VP」구문의 의미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수(2003),『현대중국어 상 표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현정(2005),『현대중국어 ‘是…的’ 구문의 통사 · 의미 · 화용론적 분석에 따른 활용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지(2008),『한국어 분열문의 의미 연구: 정보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2016),『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陈前瑞(2003),『汉语体貌系统研究』, 华中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黄美琴(2017), 『“是…的”句的分类及其在对外汉语教材中的分布研究』, 兰州大学

硕士学位论文.

李　路(2009),『现代汉语瞬间动词及相关问题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刘承贤(2010),『台语「敢」问句的句法』, 国立台湾师范大学台湾文化及語言文學研究所硕士学位论文.

刘　林(2013),『现代汉语焦点标记词研究 — 以“是”、“只”、“就”、“才”为例』, 复旦大学硕士学位论文.

龙海平(2007),『已然义“是…的”类句式的多角度考察』, 华中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王　晶(2015),『时制助词“的”与对外汉语教学』,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王嬿茜(2008),『论台湾闽南语分裂句与准分裂句』, 国立中正大学语言研究所硕士学位论文.

张　雷(2006),『“是…的”句句法、语义和语用三个平面的分析研究』, 上海外国语大学硕士学位论文.

朱　闰(2011),『定语标记“之、底、的”的变迁』, 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Delin, J. L. (1989), *Cleft Constructions in Discourse*, Doctoral dissertaion, University of Edinburgh.

Hedberg, N. A. (1990), *Discourse Pragmatics and Cleft Sentence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ion, University of Minnesota.

4. 공구서 및 기타

北京语言学院语言教学研究所(1986),『现代汉语频率词典』,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2012),『现代汉语词典(第6版)』, 北京: 商务印书馆.

李　荣(1987),『中国语言地图集』, 香港: 朗文(远东)有限公司.

吕叔湘(2015),『现代汉语八百词』, 上海: 商务印书馆.

BCC语料库: http://bcc.blcu.edu.cn/

CCL语料库: http://ccl.pku.edu.cn/

【中文摘要】

现代汉语‘是……的’分裂构式研究

首尔大学中文系

李恩景

分裂句指的是为了强调句子当中非谓语的成分，而把一个句子分成焦点和预设两个部分的句型，这种分裂与句子的信息结构有着密不可分的关联。也就是说在世界语言中，分裂句的发展是有效传达信息的手段在语言形式上的一种体现。

现代汉语中，强调过去事件的时间、地点、方式、条件、目的、施事等的‘是…的’句可以分成焦点和预设两个部分，焦点成分出现在‘是’的后面，这类句式在功能上相当于英文的分裂句。本文对‘是…的’分裂构式进行了再分类，并分析了这类句式的语法特征、语义特征和语用特征。

根据本文的分类标准，‘是…的’分裂构式可以分为‘O+是+XP+VP的’，‘S+是+XP+VP的’，‘是+XP+VP的’三大类。其中使用频率最高的类型是‘O+是+XP+VP的’，而使用频率最低的是‘是+XP+VP的’。另外，‘O+是+XP+VP的’形式中表施事、时间、方式、地点的论元成为焦点的几率相对更高，‘S+是+XP+VP的’形式中表方式、地点、时间的论元更容易成为焦点，而‘是+XP+VP的’形式中表施事的论元与其他论元相比成为焦点的几率具有压倒性优势，施事和方式两个论元共同作为焦点出现的频率也远高于其他论元。

接下来，本文分析了出现在‘是…的’分裂构式里的动词，其分析结果如下：如果一个动词[+终结]的性质越强，或[+持续]的性质越弱，那么这类动

词更容易出现在‘是…的’分裂构式中。与此相反，具有[-终结]性质的动词中，[+持续]性质较强的状态动词和强持续动作动词一般不能出现在‘是…的’分裂构式里。另外，‘是…的’形式解释为分裂构式还是名物化构式，与动词特征密切相关。出现在‘是…的’形式里的动词[+终结]和[-持续]属性越强，越有可能构成一个分裂构式，这时只能与表过去的时间词结合，并且时间词起到论元焦点的功能。相反，具有[-终结]和[+持续]性质较强的动词可以与各种时间标记一起使用，在这种情况下，它们通常解释为具有对比焦点的名物化构式，而不是分裂构式。而弱持续动作动词出现在‘O+是+XP+VP的’形式中时，根据上下文，既可以解释为分裂构式，又可以解释为名物化构式。换句话说，根据动词属性，‘是…的’形式的信息结构和表达的时体不同，因此本文认为分裂构式和名物化构式的关系是有一定倾向性的连续统。通过这些分析结果可以看出，分裂构式是从名物化构式发展而来的。

分裂构式里的‘的’逐渐移至宾语前面，其位置是典型的汉语体标记的位置。本文调查了七大方言区的251人使用分裂构式时的‘的’的分布情况。分析结果发现，‘的’的分布首先受到韵律的影响，其次‘的’在南方地区倾向于出现在句尾，而在北方官话地区倾向于出现在宾语前。分裂构式里的‘的’分布上有变化，这种现象说明‘的’的语法功能也有变化。因此，本文认为目前‘是…的’分裂构式里的‘的’是从句末移至宾语前面，而这种分布变化的根本原因是因为‘的’处在获得体标记资格的语法化阶段。

‘是…的’分裂构式信息结构的特点是它只用于过去已经发生的事件，而且焦点以外的部分已经被说话者和听话者确认的情况下才可以使用。但是与分裂构式功能上类似的‘是’字句可用于过去、现在和未来的事件，并且倾向于用在尚未确认的未来事件。另外，‘是…的’分裂构式的焦点一定是‘是’后面的论元，但“是”字句的焦点有三种类型，即论元焦点、谓语焦点、句子焦点。当‘是’字句用于过去事件时，‘O+是+XP+VP’和‘S+是+XP+VP’构式可以分析为谓语焦点结构，而‘是+XP+VP’构式分析为句子焦点。当‘是’字句用于非过去事件时一般分析为论点焦点结构。根据上述分析的结果我们

不难得出如下结论：当过去发生事件的时间、地点、方式、行为者等细节成为焦点时一般用'是…的'分裂构式，而当现在或将来事件的细节成为焦点时一般使用'是'字句。换句话说，起到论元焦点结构的功能时，'是…的'分裂构式和'是'字句的出现可以说是互补的。接下来，本文分析了宾语的指称性，分析结果如下：在'是…的'分裂构式中无定名词短语不能作为宾语出现在动词之后，但是在'是'字句中无定名词短语可以作为宾语出现在动词之后。

综上所述，本文认为'是…的'分裂构式之所以只用于过去已经发生的事件，并对动词有制约的原因是因为'的'的功能和信息结构的局限性。换句话说，'是…的'分裂构式是由于完整体标记'的'的功能表达的是一个整体的事件，并表示事件已经实现，所以对焦点以外的部分已被说话者和听话者确认的情况下才可以使用。因此，'是…的'分裂构式只用于过去已经发生的事件。此外，具有[+终结]特征的动词内部包含一个自然终点，因此这些动词所表达的动作很容易被认定为一个单独的事件。与此相反，[-终结]特征的动词内部不包含自然终点，这样的动词持续性越强越容易被认定为重复和习惯性的事件，而不是一个单独的事件。因此，此类动词一般不能出现在'是…的'分裂构式里。

关键词：'是…的'分裂句，名物化，情状类型，终结性，持续性，体标记，完整体，语法化，信息结构，论元焦点，对比焦点，'是'字焦点句

学 号：2018-32640